은퇴노인들의 영성회복을 위한 선교

A MISSION FOR THE SPIRITUAL REFORMATION AND MINISTRY OF AGING PEOPLE

By

Kim, Yong Chul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New York

2011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은퇴노인들의 영성회복을 위한 선교
A MISSION FOR THE SPIRITUAL REFORMATION AND MINISTRY OF AGING PEOPLE

presented by

Kim, Yong Chul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Academic Dean's Signature

May 2011

NYTS is an Affirmative Action/Equal Opportunity Institution

ABSTRACT

A MISSION FOR THE SPIRITUAL REFORMATION AND MINISTRY OF AGING PEOPLE

by

Kim, Yong Chul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Matthew 28:19-20)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we become the children of God; a new creation living in this world. All Christians, man, woman and child have a duty and responsibility to share the good news and build up the kingdom of God. This responsibility holds true regardless of time, place, age or ability. A particular group this commandment can be applied to are those who have lived their lives in the world and have now come to the season of life which brings quiet and reflection: the Silver years. In 1965,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altered to allow to legal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of Koreans. It is now 45 years later, and this first wave of immigrants have now reached their retirement years. The majority of those who immigrated to the U.S. were raised with Korean cultural ideas, educational standards, and socio-economic norms; they have lived their lives in the United States while maintaining these traditional values. Thes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worked at assimilating new American values, raise their children to value both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while appreciating their new American ways of life. In their new country, many immigrants(70%) were

able to find community, camaraderie and support attending local Churches. These immigrants were the pioneers of Asians living, working, and raising their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once again they are at the forefront of experiencing and discovering retirement life in the US. The Korean-church community now has the responsibility of instructing and assisting these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to transition into productive, harmonious, and enjoyable retirements. As such, thes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must develop a new paradigm within their culture as retiree's to honor the great commandment as stated previously.

This study discusses the need for this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population to evaluate their own values, beliefs, and world views. Upon reflection, meditation, and the workings of the Holy Spirit, illuminate wisdom and foresight to know God's will for their lives. In order to help this proces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concepts and suggestions to assist the aging Korean immigrant population. First this study will endeavor to compare and contrast the concepts and beliefs regarding traditional aging held among immigrants versus suggestions from the Bible. A second consideration is the role of social justice for the aging population from a Christian standpoint. Many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s do no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spirituality or of what it means to be Christ-like,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these terms in a meaningful and applicable manner for this population.

Many elderly Korean immigrants face a new reality regarding aging, many struggling with changing social support structures, they may become isolated or disparaged. It is necessary to help these individuals to develop a stronger sense of self, in order to assist this process. In order to evaluate the value of possible service projects and useful lectures to assist this population self evaluate, the author of this study volunteered with a group called: New Jersey Silver Mission.

Silver Mission's goal was to work with Korean immigrant retiree's and those on the verge of retirement: working to change and develop a creative response to assist the aging immigrant population while fostering a spiritual path. Projects unitized with this agency included engaging in training and actual short-term missions providing services such as Eye exams and glasses for the needy, standard medical missions,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treatments, teaching and running vacation Bible class for children, portrait photography or barber servi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apparent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is at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ir social and spiritual path. As this population grows older, the need for strong qualified leadership and services with specific goals to help guide this population into meaningful and spiritual retirement years is apparent.

ACKNOWLEDGEMENTS

하나님께 미주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을 잘 진행 하도록 지도하여주시고 격려 하여주신 N. Y. T. S.의 모든 교수님들과 Dr. Keith Russell 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힘들고 좌절 할 때 마다 용기주시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함께하여주신 백창건 교수님과 지도해주신 김상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퇴 노인들의 영성회복을 통한 선교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이민 1세들의 노후의 삶을 생각하여 보았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은퇴노인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동포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 늘 함께하며 위로와 격려로 또한 동역자로 함께하는 아내 양복남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사랑에도 늘 기쁨으로 채워주는 세 딸들 지은, 티나, 미나에게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여주시는 어머님 김정자 권사님, 장모 이금순 권사님과 처형 양복숙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까지 함께 하여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2010년 5월 아직도 할 일 많은 뉴욕에서

김 용철 목사

목 차(Contents)

Ⅰ. 서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1] 이것은 모든 교회와 헌신된 성도가 엄숙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고자 하는 지상대명령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를 향하여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한다는 사실은 강조하면서도,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거의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2] 믿음은 있지만 삶과 행함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교리적 혹은 조직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구원관 혹은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믿음과 행위, 중생과 성화는 함께 수반되는 것이라는 성경적 신앙관을 교육하여야 한다. 왜냐면 개인 삶의 개혁, 문화적 과업, 사회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변혁의 문제는 모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연구 동기

교회공동체는 영성회복을 통하여 인간이 상실한 자아를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새로운 차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그 힘을 다하여야한다. 그리고 이 대상은 인종과 계급 연령 또는 신체의 장애, 여부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미주한인들의 이민 생활이 연륜이 더해지면서 이민 1세대들이 은퇴연령으로 접어들고 은퇴자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오

[1]마태복음 28:19-20. 이하 본문에서는 성서 인용시 대한성서공회에서 2000년에 발행한 한글 개역개정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2]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9), 89.

히려 은퇴자들의 교회공동체 예배는 새로운 소망, 희망, 즐거움과 축제로서의 예배에서 벗어나 많은 노인과 은퇴자들에게 아픔과 소외감을 더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상처를 더하여주는 결과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로부터 교회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주저 하게하는 현실이 되었다.

몰트만은 '메시아적 축제' 개념에서 예배의 의미를 찾는다. 메시아적 축제는 메시아 시대의 언어의 일부요 그것의 징표다. 복음을 선포 하고 경험된 해방에 대해서 반응 하며 새로운 시작의 징표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기대하는 것은 회집된 공동체의 축제다.[3]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공동체의 영성과 예배의 본질적인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다. 노인이 된다고 차별되고 소외당하는 사회나 교회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영성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 하여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야한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한인이민자들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목회자 및 교회의 신도들은 그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또 교회공동체의 영성회복을 통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열등의식이나 피해 의식 또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지상명령을 시행하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교회는 첫째 사명이 기도와 말씀전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먼저 그리스인들이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할 필요가있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영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랑을 경험하여 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많은

---

[3]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New York: Harper & Row, 1977), 261. 메시아적 축제: 메시아적 축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의 나라 에 대한 희망을 일깨운 다. 또한 회집된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 일체적 역사, 세계에 대한 그의 사랑의 개방성과 그의 기쁨 안에서 만유의 완전케 됨을 깨닫는다. 메시아적 축제는 매일 매일의 고통과 기쁨을 지닌, 회집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세계참여의 삼위일체론적 역사의 맥락 속에다 놓는다.

말보다는 사랑의 돌봄과 관심을 표현해야하며 노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동참할 수 있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섬김 공동체에 동참 할 수 있어야한다.

예배와 영성회복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잠재능력을 키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게하며 스스로를 딛고 일어 설수 있도록 개척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영성교육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섬김을 받는 대상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예수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복음증거자로 세워져야한다.

본 연구는 뉴저지 실버 선교회가 행하는 영성교육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열등감, 의존성, 소외의식, 은폐의식 등 소극적이고 자기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역동적인 교회공동체의 한사람으로 양육시키며 더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의무를 다하고 이민 1세대로서 모범을 보여주며 복음증거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숙된 신앙을 지키며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데 전념하는 모습을 기록할 것이다.

3. 뉴저지 이민 노인

1) 지역적 배경

본 단체는 New Jersey 주에 위치하고 있다. New Jersey 주에 이민 온 사람들로서 1970년 대 초반부터 이민하여 이제는 은퇴할 시간이 되었으며 그동안 교회에서 중신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New Jersey 주는 미국 내에서 다른 주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며[4] 한인 인구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5] 따라서 한인 노인들은 이제는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은퇴연령이 되면서 젊은 교인들과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터와 또한 가정

---

[4]http://www.census.gov/hhes/www/income/data/statemedian/index.html(accessed, 01. 15. 2011). U.S.Census Bureau, *Income. B19119. MEDIANFAMILY INCOME IN THE PAST 12 MONTHS (IN 2009 INFLATION-ADJUSTED DOLLARS) BY FAMILYSIZE* 에 의하면 뉴저지 주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84,406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5]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29194(accessed, 01. 15. 2011). 기사에서 연방센서스국 통계에 의하면 New Jersey의 2009년의 한인 인구는 84,525명이라고 하고 있다.

으로부터 은퇴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제 그동안 이민하여 열심히 일하여 가정의 안정과 자녀교육을 마치고 은퇴 연령에 접어들었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히 그동안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익혀온 경험과 특별한 은사와 전문인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즉 다양한 은사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이 지역의 은퇴자들은 뉴욕의 은퇴자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며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선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뉴저지 실버 선교회는 2002년에 설립되어 설립 된지 9년이 되었으며 설립될 당시 시카고의 실버 미션 단체의 권고로 뉴저지 한인교회의 은퇴노인들에게 교육과 선교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삶과 영성회복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재충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어 하나님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실버 미션이 설립되었다.

현재 이 단체를 통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약 300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단체를 섬기는 분들은 10명의 운영이사와 1명의 훈련원 원장 5명의간사가 이 단체를 섬기고 있고 9년간의 교육을 통하여 각 나라에 약 20명의 실버선교사가 파송되었으며 현재 계속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교에 헌신하고자하는 지망생들이 선교지 파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 단체를 통하여 교육이 1년에 2회씩 실시되고 있으며 선교지의 단기선교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비젼과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Ⅱ. 신학적 연구 분석

1. 노인 여성에 대한 여성 신학적 이해.

1) 노인에 대한 정의

노인에 대한 정의는 노인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 및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Leonard Breen은 노화의 개념에는 적어도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인을 첫째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로 결손 되고 있는 사람, 넷째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으로 하고 있고 또 국제 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이라 정의하였다[6]

노인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노인이 고령으로 인해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감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동양에서는 60세 전후를, 구미에서는 65세 전후를 노인으로 여겨왔으며,[7] 한국의 경우 만 60세를 회갑으로 하는 전통으로 이 시기를 노년기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시작을 구미에서처럼 65세 전후로 변화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민 와서 미주에 거주하는 재미 동포 여성들은 고국에서 보다 지위나 경제나 사회 참여도 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되 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사회

---

[6]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84.

[7]Jack Botwinick, *Aging and Behabo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73), 7, 8.

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 스스로 고정관념의 틀에서 안주하여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성들도 남존여비 사상을 선호하여 남성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노인 여성들에게는 유교사상의 틀 속에서 지금 까지 살아가고 있다. 신앙 생활의 연륜이 많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였으나 교회의 교육 부재로 인한 여성들의 지위와 참여도는 극히 저조한 편이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사역은 여성들의 적극적 자세와 참여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육 즉 신학은 상아탑의 학문적인 신학이 아니다. 또한 지배 계급과 있는 자의 신학도 아니다. 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의 새로운 구조를 희망하며 억눌림의 세계에서 해방하기를 대망하는 신학이다. 정치 경제적이고 모든 면에서의 눌린 자, 소외된 자의 인간성의 존엄성과 회복과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이며 희망이다. "복음의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자유를 위한 눌린 자들의 해방과 이것을 쟁취하기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8]

2) 성서의 노인의 정의

성서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노인을 선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장수와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노인들은 공경과 영예의 대상이며, 지혜와 명철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노인을 시대의 노쇠에서 오는 연약함과 정서적 우울함을 가진 존재로 표현한다. 사실상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이 점차 쇠퇴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연약하고 불안해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차 소외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노인들은 돌보아야 할 대상이요, 인생의 황혼기에 처해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노인에 대한 역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교회가 노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성 신학의 과제는 현재 있는 것을 단순히 해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 신학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존의 문화적 인식이나 개념

---

[8]James Cone, *눌린 자의 하나님,* 현영학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24.

에 대안적인 것을 제시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실천하는 것이다.[9]

은퇴 여성들의 경험은 여성 신학에서 핵심적인 전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경험과 관점을 통전적으로 여겨왔던 인식론적 전제에 반기를 들고 그동안 열등적이고 등한히 하여왔던 여성의 경험을 부각 시켜야 하겠다.

특별히 미주 사회에 서 은퇴시기를 맞는 여성 노인들 에게는 새로운 성경해석과 접근 그리고 여성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유도하여야한다.

2.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노인 이해

1) 사회정의와 힘

한국 교회는 그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들 속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상실하고 있다.

21세기를 전후하여 생활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회적 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된다. 물질문명 의 발달은 생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생활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기준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노인들은 각기 자기의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하기 위해 자기변신을 시도하며 노력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문명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실존은 산업화, 기계화, 자동화 등 첨단 기술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연장될지 모르나 노인들은 저마다 불안과 허무 그리고 갈등과 소외감의 심화로 정신적 질환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삶의 조건 속에 있는 현대인들은 무감각, 무질서, 무력감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세상의 화해의 사절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할 때이다. 특히 노인들에게 당면한 중대 사안이다.

---

[9]Walter Brueggeman, *The Prophetic Imagin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13.

노인의 사회적 특성은 일선에서의 은퇴에 따른 생활환경의 축소와 여가시간이 확대됨으로써 자신의 취미를 가질 여유나 오락을 즐기는 방법을 미처 개발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늘어난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고독과 고립, 무료함, 소외 등의 사회 심리적 특성이 표출된다. 특히 노인계층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사회구조 속에서 오히려 줄어들고 여가와 문화욕구가 충족 되지못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여가시간의 증대는 노인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노인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장수와 풍요로운 생활은 동서고금 모든 인류의 염원이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노인의 평균수명을 연장하였으나 그에 걸 맞는 삶의 질은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많은 질병, 고독, 소외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현대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네 가지 고통으로, 첫째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의 문제 둘째 노쇠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건강문제, 셋째 퇴직으로 인한 지위와 역할 상실문제, 넷째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무관심으로 인한 외로움과 서글픔의 고독문제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섯째 삶의 보람과 희망의 상실, 여섯째 사회참여 기회의 상실, 일곱째 정보로부터의 단절, 여덟째 문화로부터 소외 등이 포함되고 있다.[10]

노인의 경우 신체적 노화에 따른 노동 능력의 저하,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과학기술에의 적응능력 부족 및 정년퇴직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적 권위주의는 가족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질서 화 되고 차별화되어 왔다. 한국혈연사회의 특징으로 인지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족외혼, 처가에 대한 상대적 거리감, 아들선호, 친족거리의 중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초의식을 형성시키는 생활문화로서의 농경사회의 특징은 라이트(A.F. Wright)에 따르면, 첫째 수리영농으로 인한 노동력필요, 둘째 노동력필요로 인한 대가족제, 셋째 대가족내의 서열화, 넷째 선린관계존중, 다섯째 강한 소유적 보수성, 여섯째 생존중심사고와 가족중심사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화된 종교성격의 문화지속체인 유교는 첫째 권위에 대한 복종, 둘째 원규(原規) 및 규범에 대한 복종, 셋째 과거에 대한 존경과 역

[10]한국보건원, *사회복지* (서울: 한국보건원, 1995), 110-111.

사의 중시, 넷째 전통적 학문에 대한 애정, 다섯째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여섯째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일곱째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여덟째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아홉째 비경쟁성, 열째 용기와 위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열한째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열두째 도덕적 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열셋째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11]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가(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12]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 전통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 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13]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의는 차별적 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근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 숭조 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재이고, 빈곤 구조 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14]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교육의

---

[11]A. F. Wright, “Values, Roles, and Personalities” *Confucian personalitues*, A.F. Wrigh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8.

[12]한국인의 家문화에 대하여는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1994) 및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II* (서울: 느티나무, 1994)를 참조.

[13]禮란 현실차원에서는 차별 질서를 의미한다. 이를 禮의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다.

[14]제1공화국의 경우는 국가설립의 취지에 따라 자유민주주의교육방식을 도입하였으나, 반공이데올로기의 학습장으로 교육가치가 왜곡되었으며, 3·4공화국은 정권의 효율화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 유신교육이라는 권위주의교육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5·6공화국에서는 당시의 현안으로서 대학입학정원을 늘리

특수화[15]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16]는 인맥으로 인지되는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성을 형성하고[17],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 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18]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 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2) 사회정의와 문화

정의는 동양 사상으로 생각하여 볼 때 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장 공평하게 도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개의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는 많은 경우 한 쪽으로 기울어 질 수 있다. 공동체는 동질의 사람들 즉 생각과 전통과 문화의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데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노인부양은 가족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국제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경로효친 사상이나 자녀들의 효도 관이 달라지고 있다. 효의 실천에 있어서 과거의 무조건 복종이나 전통적인 부모봉양은 약화되고 지금은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면서, 장기적인 교육대책보다는 허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주적 교육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현상을 만들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액과외 등의 사교육비를 조장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비효율적 교육현실이라는 고조를 만들어냈다. 정학주, “해방후 한국교육의 구조적 갈등” *한국사회론* (서울: 한울, 1993), 251-275.

[15]상급학교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입시형 교육을 의미한다.

[16]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최상진교수의 연구물들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정문화분석에 접근할 수 있다. http://cau.ac.kr/7 Echoi (accessed, 9. 7. 2010)의 연구내용을 참조.

[17]한국사회에서의 집단이기주의는 권력집단의 국민적 정통성결여에서 기인되어 연고주의로 구조화되었고, 대항세력으로의 하부집단은 상대적으로 계층별로 이기주의화되었다. 현대한국사회의 계층적 지배문화의 이면에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18]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① 학습성적위주로 차별의식을 심어주고, ② 사회적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교육, ③ 현재적 가치중시풍조를 형성하였다.

변화하고 있다.

자녀들은 과거 부자(父子)중심의 전통적인 대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부부와 자녀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의 생활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과거 가문과 가족을 중요시하던 경향에서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요즘 신세대 젊은 층 과거의 젊은 세대와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흥미본위의 생활과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며, 성별구분이 모호하고,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기 좋아한다. 그리고 노인 인구에도 의식의 변화가 있는 신세대 노인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데, 신세대 노인들은 부부가 둘 다 일 하면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은퇴한 후에도 노인부부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부부만 따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의식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될 것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노인부부 가구나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노인빈곤과 소외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회집단과 구조적 불평등 즉 공공성 논의와 관련되는 집단은 사회집단이다. 사회집단의 모습인 집합체(aggregate)와 결사체(association)를 먼저 살펴보면, 집합체란 어떤 특정(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속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서라기보다 외부에 의해 혹은 외부적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집단으로 구별되는 경우이다. 눈 색깔이 녹색인 사람들의 집합, 토플 점수 300점 이상인 사람들의 집합, 혹은 아버지의 고향이 서울인 사람들의 집합이 집합체의 예에 속한다. 집합체에 속하는 구성원은 이 집단에 속한 다른 구성원 및 다른 집합체에 속한 구성원들과도 어떤 특정한 관계를 수립하고 있지 않다. 반면 결사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으로 설명된다. 결사체의 예로는 클럽, 정당, 교회, 대학, 이익집단, 회사 등을 들 수 있다. 결사체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므로, 집단 구성원들은 그 목적 아래에서 특정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집단의 규칙이나 규율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사체 구성원들은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그리고 다른 결사체와의 관계에 있어 이들만의 주관적인 사회경험의 공유하게 된다.[19]

---

[19]Iris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89-90.

사회학자 Young에 따르면 사회집단은 집합체도 결사체도 아니다. 사회집단은 어떤 공유하는 속성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며 어떤 목표를 위해 계약과 같은 자발적인 동기로 구성된 집단도 아니다. 사회집단이 집합체와 결사체와 구별되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의해 구성된 집단이라는 점이다.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사회구조로 나타나며 사회구조에 의해 조건 지어진 사람들의 집합이 사회집단이라는 설명이다. 사회구조는 일반적으로 "권력의 과정, 자원의 배분, 담론의 헤게모니"를 결정짓는데, 권력의 과정, 자원의 배분, 혹은 담론의 헤게모니 속에서 유리한 지위(위치)를 차지하는 집단과 불리한 지위(위치)를 차지하는 집단이 구성되고, 이들 간의 지속적이고 불공정한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사회집단을 구별하고 특징짓는다고 Young은 설명한다.[20]

따라서 사회집단이 젠더, 인종, 종교, 소득, 민족, 나이, 능력, 섹슈얼리티 등을 축으로 분류된다고 함은 젠더, 인종, 종교, 소득, 민족, 나이, 능력, 섹슈얼리티가 바로 사회구조를 의미함이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이라는 집단은 젠더화된 사회구조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집단이며, 젠더화된 사회구조는 "권력의 과정, 자원의 배분, 담론의 헤게모니"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위치시킨다. 다시 말해, 젠더화된 사회구조는 권력의 과정, 자원의 배분, 담론의 헤게모니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가지는 남성이라는 집단과 불리한 지위를 가지는 여성이라는 집단을 구성한다. 사회집단이 관계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관계와 사회구조에 의해서 집단의 내용과 성격이 조건 지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집단은 관계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관계적 관점은 집단과 집단 간의 차이 및 어떤 집단의 구성원과 다른 집단의 구성원 간의 차이를 명확하고 실재적으로 구별하지는 못한다.[21]

공공성 논의에서 사회집단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의 지배와 억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위해서 언급했듯이, 사회구조가 사회집단을 구성한다고 함은, 권력의 과정, 자원의 배분 그리고 담론의 헤게모니 속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집단과 불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집단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Young은 이러한 사회집단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부정당한 불평등

---

[20]Ibid., 91-92.

[21]Ibid., 95-99.

관계, 즉 구조적 불평등(structural inequality)으로 설명한다.[22] 억압받는 사회집단은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위치를 점유하는 반면, 지배하는 사회집단은 사회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다. 쉽게 말해, 사회집단에 주목함으로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도모하는 공적 심의는 사회집단들 간의 지배와 억압관계, 즉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해야 함이란,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동질적인 대중 속에서 집단 차별화된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부정의를 인지하고 비판하기위해서는 집단 차별화된 관점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배제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러한 구체성과 특수성을 가진 모든 관점들이 다양한 정치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한 그러한 허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차별·배제·억압·소외 받는 사회집단이 대중 속에서 자신들 만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목소리가 공적 심의 과정 속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Young은 공적 심의 과정에서 사회집단이 대표되는 제도인 집단대표제(group representation)의 필요성을 제시 한다[23]

Young의 집단대표제 논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집단대표제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 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사회경제적인 구조에서 불평등을 겪는 사회집단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일반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이는 이들 사회집단의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사회집단의 정치적 불평등은 또 다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시켜왔다. 노동자와 빈자, 여성, 그리고 소수 문화집단과 소수 인종집단은 중산층과 부유한 자, 남성, 그리고 주류 문화집단과 주류 인종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담론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배제된 사회집단을 공적 심의에 참여시킴으로서,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직시하고 비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진정한 정치적 평등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정치적 평등은 사회경제적 평등에도 또한 기여하게 된다. 둘째, Young의 집단대표 논리와 여타 집단대표 논리와의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Young의 논

[22]Ibid., 105.

[23]Ibid., 154.

리가 규범적인 관점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집단대표의 논리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아마 다양성의 관점일 것이다. 즉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골고루 대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24] 그러나 Young의 논리는 다양성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공적 숙의의 과정에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이 대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부정의와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할 수 있는 소외받는 집단의 구체적인 관점이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Young의 입장이다. 따라서 집단대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의견의 대표와 수렴이라기보다 소외받는 관점을 포함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부정의를 직시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

[24]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84. 그리고 David Miller, *On Nation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58.

Ⅲ. 성서적 연구분석

1. 눌린 자들의 영성과 해방

구약에서의 영 이해에 기초로 구약성서의 영성은 영/육의 합일체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communion), 인간의 존재 전 영역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encounter)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야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chosen people)인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볼 수 있고, 이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구약성서의 영성이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신"(*deus revelatus)*인 동시에 자신을 숨기시는 "감추어져 있는 신"(*Deus abscconditus*)인 상반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재(*elusive Presense*)로 나타난다.

야훼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25]

그 때에 야훼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야훼"를 선포하셨다. 야훼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야훼, 나 야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

[25]출애굽기 33:21-23.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26] 이 구절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냄과 감추이심의 존재적 특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로서 그 양면성이 서로 대조적인 표현(얼굴 등)으로 잘 나타나 있고, 아울러 그 속성(은혜, 불쌍히 여김/긍휼)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다름아닌 야훼 하나님의 존재양식과 계시양식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표현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영성의 근원인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구원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구체적인 역사적 관계를 가진 분으로서 약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보시는 신이라는 것이다.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와 바빌론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구원자로서의 구원행위에서 "해방의 영성"(spirituality of liberation: 정의, 공의, 자유의 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계약의 행위에서 "창조의 영성"(spirituality of creation: 살롬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와의 관계를 파기시킨 관계단절이라는 파멸의 상태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시는 그의 적극적인 관계회복의 행위에서 "새 창조의 영성"(spirituality of new creation:화해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구약성서의 영성을 해방, 창조, 재창조의 영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구약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선민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이러한 관계를 파기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의 자리였으며 그들의 삶속이었다.

구약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항상 생동감이 넘쳤음을 성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구약의 영성은 '다스'(דַאה)와 '셰키나'(שֵׁכָנְ׳)라는 용어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구약종교의 후기에 나타난 종말신앙도 포함된다. '다스'는 '지혜'로 번역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함을 의미하고, '셰키나'는 햇빛이 물체에 접촉하는 것처

[26]출애굽기 34:5-7.

럼, 하나님이 인간 속에 와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이러한 자기실현은 햇빛처럼 어디에나 임재하게 된다.

박근원 교수는 이러한 '셰키나'에 근거를 둔 영성으로 유대교 역사 후기에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종말신앙(apoclyticism)과 비슷한 사상이 태동하여 메시야를 기다리는 사상으로까지 발전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근거가 신약의 종말론적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영성을 탈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의 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적극적인 만남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구약영성을 이해해야 한다. 구약성서의 영성은 하나님의 계약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해에 그 기초를 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부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감을 최선을 다해 이룩하는 의미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다.

2. 신약성서의 영성이해

신약에 나타난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영성적 삶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로 류기종 박사의 말을 빌리면, "기독교 영성은 한편으로는 성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에 기초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삶과 그의 깊은 영적 체험에 기초한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기독교 영성의 원천이며 또한 궁극적 모범이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론 연구 분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집중되었으며 인간인 예수님의 고뇌와 내면생활, 종교적인 체험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을 문상희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영성을 언급할 때 그 구심점은 그리스도와 성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영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체험과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체험과 초대교회의 성령강림사건에 있다. 케이는 "예수"란 책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체험"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체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록은 성서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간접적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상과 선교활동, 그 분의 삶속에서 추측해 볼 수는 있다. 특별히 요단강에서의 세례사건과 광야에서의 시험기사는 예수님의 하나님체험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세례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성별되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적 능력의 도래를 체험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 예수님의 신앙체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식이다(막1:11).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한 아들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들로서의 권한을 자의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의 방법에 따라 사용할 것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선교, 사상, 그리고 행동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즉 신앙체험의 외적 표현이다. 신약의 영성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정지어 주고 있는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종말론적인 비전 안에서 조망(眺望)했던 새 창조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날 "그 날", "여호와의 날"을 대망했던 예언자들은 종말론적인 유형론(eschatological typology)에 따라서 새 창조의 출현을 기대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타락된 원 창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부활로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활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비롯된 역동적 활동이었고, 이어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이러한 영적 힘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창조의 역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다. 부활신앙에 활력을 부여한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그 하나님체험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이다.

오순절의 성령강림과 더불어 인간의 영성은 성령과 더 친밀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요 14:16)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요 14:26). 성령은 또한 인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도 하신다(엡 1:17-18). 이런 의미에서 Lewis Sperry Chafer의 "그리스

도인의 참된 영성이란 곧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영성, 즉 새창조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것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성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즉 원 창조의 회복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새창조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성 추구의 출발점이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영성을 "새 창조의 영성"(new creation spirit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창조의 영성의 출발점은 구약의 메시야 사상에 뿌리를 둔 종말론적인 근거를 가진다. 또한 새창조의 영성적 노력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삶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력하게 증거되었다. 즉 부활로 증명된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신약의 영성-새창조의 영성-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회심하는 영적인 체험이 풍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험이 한 인격을 실증적으로, 외적으로 인식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 기독교의 영성을 바르게 정립하였다. 바울의 영성이해는 헬라철학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신비주의'로 승화하여 비로소 기독교 영성의 역사적 기반을 수립하였다.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신비주의적인 영성은 "교제의 신비"(Communio Mystica)라는 말로 표현된다.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에 대한 복종 및 그와의 교제의 관계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새 창조의 영성은 개인의 주관적인 하나님체험도 되지만 그것은 공동체적 체험이 되어야 함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영성의 모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전12장, 엡 1:21-22).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새 창조의 영성회복이 곧 만물의 회복으로까지 보았다. 정학봉 교수는 이러한 새창조의 영성을,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위치와 신분-즉 만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회복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회복이

나아가 우주만물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본 점은 “새 창조의 영성”의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하였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27]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은 육체일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28]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특성이며 또한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이다[29]

타락한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가지형상중 영적인 형상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형상은 남아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창 9:6, 약 3:9), 이형상은 인간의 물질(육)적인 본질을 뜻한다. 인간의 육적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신성한 형상을 소유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세력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창 3;14-15, 욥 1:6, 요 8:44, 요일 3:8). 어떻게 하여야만 잃어버린 신성한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인간의 신성한 영적현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으로 회복될 수 있다(롬 5:12, 8:9, 엡 2:8-9, 고후 4:4, 골 1:15).신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영혼의 동반자이다(고전 6:19). 현실적인 면에서 구원받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혼과 영뿐이다(벧전 1:9, 롬 8:10).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 이라고 불렀다(롬 7:22, 고후 4:16, 엡3:16).[30] 영 또는 혼의 임무, 혹은 어떤 극적인 것들이 종종 육의 욕구를 초월 할 때(마 4:1-4,행 13:2) 보통 육의 만족감도 높아진다. 육적인 조건이 직접 한 개인의 생활, 봉사, 복지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마 6:31, 눅 8:55).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로 표현되고 몸, 혼, 영으로 구성된 인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임간을 문화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자신의 문화를 창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

[27]창세기 1:27.

[28]요한복음 4:24.

[29]F. H. Practial Barackman, *Christian Theology* (Old Tapan: F. Revell, 1984), 188.

[30]Ibid., 197.

사람 ,즉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그리스도에게 속 했다는 것 에 대한 기본적인 표시이다. 하나님의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엡 4:14,히 5:11-14)[31]

3. 다원화 시대의 노인문화

사람들의 수명이 영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비례하여 노인차별과 사회의 냉담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노인문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욕구는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여가, 사회활동, 오락, 스포츠, 교통, 종교 등으로 상당히 다양하며,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의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도 특히 의료욕구, 소득욕구, 여가욕구, 사회활동욕구 등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2]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의 사회참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을 포함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여가욕구를,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욕구를,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스포츠욕구를, 또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사회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한편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의 소득을 증진시켜 노후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로 질병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노인들이 고독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고독, 역할상실, 정신건강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33]

그러므로 노인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

[31]M. E. Dieter, *Five views on sanctification*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7), 42.

[32]이근홍, *한국 재가노인의 사례관리 실천모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6), 88.

[33]김범수 외, *자원 봉사의 해* (서울: 학지사, 2001), 221.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

사회학적 인식 의 관점에서 "의미, 가치, 목표, 진리, 실재, 의무들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들은 외적 실재들처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회질서속의 인간의 창조성에 따른 산물이다."[34]

각 개인은 인식의 세계, 즉 각자의 실재에 대한 주관적 인식들을 의미 있고 응집력 있으며 "객관적인" 세계로 규정하는 규범을 가진다. 인식의 세계는 우리의 독특한 개성과 체험에 의해 채색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것이지마는 동시에 그것은 "의미의 모든 구조를 제공하고 유지시키는데 주된 책임이 있는" 우리 사회의 것이다. 개인이 알고 나누는 의미들은 그의 문화의 사고 계 에서 이끌어 온 것이며 또한 이사고계는 문화의 사회적 모체에서 나온 것이다.[35]

노인의 사회참여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노후생활의 만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로는 경제활동,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가 있다. 경제활동을 보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으며, 노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을 활성화하며, 노인창업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을 보면, 노인들이 종교 활동과 봉사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며, 여가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민사회 의 현실은 노인정이나 상록회 또는 노인학교 등에서 미미한 교육과 활동으로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자원봉사를 보면,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며, 조직적인 체계와 조직이 없다. 그러므로 노인의 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강화, 인식제고, 프로그램개발 및 노인 공동체 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노인의 사회참여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노인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첫째,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

[34]John G. Gager, *Kingdom and Community: the social world of Early Christianity* (Englewood, N.J.: Prentice Hall, 1975), 9.

[35]William J. Larkin. Jr., *Culture and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Company, 1988), 83.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노인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 능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흥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관들과의 network 으로 노인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며, 가칭 "미주노인자원봉사단"을 신설하여 노인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이 보람 있게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하여야한다.

앞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는 물론 미주 한인 공동동체 들의 적극적인 대책의 마련과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고령화 시대와 미래목회를 위한 노인 공동체

미주 한인 교회들이 그 신앙적 역동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희망적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중요한 문제는 이민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야만 그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교회 갱신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며, 또한 노인들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한인 이민교회보다 먼저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미국의 신앙공동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지혜로 대처하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학적 특성, 문화적 성향에 있어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교회는 대체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주류 교파들이 대개 쇠퇴하고 있는 대신 근본주의 혹은 성령강림운동 성향의 교회, 그리고 독립교회가 성장함으로 교인 감소에 대하여 상쇄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교세에

있어서나 영향력에 있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독립교회들이다.[36]

미국의 독립교회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교회들이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그 교회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적합성과 신앙적 역동성이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 남가주 대학교(USC)의 Donald E. Miller 교수는 수년간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교회인 갈보리 교회(Calvary Chapel), 빈야드 교회(Vineyard Christian Fellowship), 호프 교회(Hope Chapel)를 참여관찰, 인터뷰, 서베이 등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분석하여 책을 펴낸 바 있다.[37] 이 책에서 그는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독립교회의 내적, 외적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어떤 목회 패러다임이 현대인에게 적합한지, 새 시대 새로운 교회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 있다.

밀러가 분석한 독립교회들은 형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 프로그램, 조직, 운영을 포기하거나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교회 안팎에 화려한 장식이나 치장을 하지 않은 개조된 창고나 체육관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외형보다 마음이 중요하며, 겉치장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묵도, 찬송, 교독,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별찬송, 목회기도, 헌금, 광고 등의 순서가 없이 예배는 주로 찬양과 설교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30분간 전문 밴드와 찬양 팀이 뜨겁게(그러나 열광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찬양을 인도한다. 다음에는 약 40분간 목사가 주로 성경 구절을 풀어 설명하는 식의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 복장은 자유스러워 정장한 사람은 거의 없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건물이나 예배 형식은 파격적인 것이며, 따라서 논란의 여지도 있고 신학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의 신앙적 역동성이다.

밀러가 분석한 독립교회들의 역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그 교회들은 무엇보다 '감성을 추구하는(Seeker - sensitive)' 경향이 강하다. 종교적 회심과 경험

---

[36]David B. Barrett,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24.

[37]Donald E. Miller,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새천년 교회의 패러다임* 이원규 역 (서울: KMC, 2008). 원래의 책 이름은 *Reinventing American Protestantism - Christianity in the New Millennium* 이다. 갈보리 교회는 미국에만 600개 이상, 빈야드 교회는 400개 이상 있다. 이 교회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교단을 만들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을 중요시한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며, 특히 가족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소그룹 모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평신도를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 많은 일을 맡긴다. 교회 안의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밀러는 미국의 주류 전통교파 교회들에는 무엇인가 빠져 있으며,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그 교회들의 쇠퇴의 근원이라고 본다. 반면에 그는 그 무엇을 이 독립교회들에서 발견했는데, 첫째는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 즉 '성스러움'의 경험이고, 둘째는 사람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적 표현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원래 '성스러움'(the sacred)이란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다.[38] 이성과 전통만을 가지고는 종교의 근본에 도달할 수 없다. 유럽 기독교, 그리고 미국 주류 교파의 쇠퇴의 결정적 요인은 종교의 '경험' 차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 교회의 오류는 이런 것이다. 현대사회, 특히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합리성의 지배를 받는 서구 사회에서, 교회 그리고 신학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종교의 본질인 '성스러움'의 차원을 제거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종교의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을 배제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종교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결국 이성의 시대에는 이성적 종교가 적합하리라는 판단은 틀린 것이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경제적인 풍요와 과학의 발전, 이성적 사고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부의 팽창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도구주의적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개인의 자율성의 의미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의와 자유의 수사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풍요와 부유, 생산적 능력 가운데 존재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만연은 고립의 느낌을 가져온다. 폭력과 방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삶은 불안

---

[38]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 by Joseph W. Swain (New York: Free Press, 1965), 84.

하고, 심신을 망가뜨리는 환경에 쉽사리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현대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39] 따라서 현대성의 위기는 정체성, 공동체성, 도덕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과학, 기술, 경제, 이성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은 결국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 감성적인 종교, 합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성스러운 종교일 것이다. 이것은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하이테크(high-tech)의 시대에서 감성이 필요한 하이 터치(high-touch)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0] 이성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 감성의 종교이며, 이에 따라 성스러움의 경험을 강조하는 감성 지향적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밀러가 독립교회에서 발견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문화적 적합성이다. 즉 그들이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진보적이다. 복음적이고 성경 중심적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독립교회가 근본주의와 다른 것은 두 가지 점에서다. 하나는 전자가 후자와 달리 교조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독립교회는 교리를 가볍게 여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체험이지, 사람을 얽어매는 복잡한 교리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의 차이는 근본주의가 반(反) 문화적 정서가 강한데 비하여, 독립교회는 문화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연주되는 음악이나,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정서에 어울리는 것들이고, 교회의 음향, 조명 시설등도 현대적인 것이다. 이것이 그 교회들에서는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CCM(현대 기독교음악, 즉 복음성가)만을 부르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시설과 프로그램만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과 운영 역시 현대 문화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중앙집권화가 아닌 분권화, 위계서열 중심이 아닌 수평적 인간관계, 타율성보다는 자율성,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독립교회들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성, 도덕성,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것이다.[41] 그리고 이 요소들이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영

---

[39]Robert N. Bellah, "New Religious Consciousness and the Crisis of Modernity." in *The New Religious Consciousness*. ed. by Charles Y. Glock and Robert N. Bella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333-52.

[40]John Naisbitt, *메가트렌드 2000,* 김홍기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0), 89.

성, 도덕성, 공동체성이란 무엇이며, 그 교회들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그런 성향이 강한가?

영성은 영적인 성향, 영적인 삶의 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문제보다 초월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물질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공동체성(community spirit)은 더불어 사는 정신을 말한다. 서로 돌보고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태도이다. 소속감을 느끼고 일치와 화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밀러가 분석했던 독립교회들은 우선 영성이 뛰어난 교회들이다.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해 있고, 하나님을, 예수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즈음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리고 탐욕스러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서로에게 친절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나아가서 그들은 사회의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며 벗은 자에게 입히고 나그네 된 자를 보살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부탁 하셨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빈민, 재소자, 미혼모, 비행 청소년, 마약 중독자 등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독립교회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은 교인들의 신앙을 뜨겁

[41]독립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으로 본 것은 필자의 견해이다. 이것은 밀러 교수의 분석에 주로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2004년 연구 년 때 남가주에 머물면서 그 독립교회들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필자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게,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교회로 찾아오게 하거나 전도에 쉽게 응하게 만들고 있다. 교회가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이라는 본질을 회복하니까,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회의 양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인의 영적 성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독립교회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그 교회가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분담을 적제적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위한 다양한 예배, 교육, 친교, 신앙, 오락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넓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년과 청년을 위해서도 교회의 물적, 인적, 시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이들과 젊은이 그리고 노인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회들은 첫째 활력이 있다. 둘째로, 이들이 앞으로 교회의 주역이 될 것이므로 교회의 미래가 매우 밝다. 주로 노인들로만 채워져 있는 유럽 교회나 미국 주류교파 교회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전통 교회에 대해 대개 비관적 전망을 하는 대신에, 독립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 전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날드 밀러 교수는 이러한 교회들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의 전형이라고, 21세기에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교회 모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21세기에 주류교회가 생존하려면 독립교회처럼 자체를 재창조(reinventing)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다.[42]

미주 한인 교회 공동체가 희망적이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이라는 것이다. 미주한인 교회들이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적 가능성은 결국 교회의 본질인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5. 사회적 상실회복을 위한 섬김과 봉사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42]Donald E. Miller, 277.

사회적인 상실은 은퇴와 더불어 찾아온다.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을 때 상심하게 된다. 일을 통해 얻은 자존감, 성취감, 수입 등이 은퇴와 더불어 없어지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급격이 줄어들게 된다. 더 일하고 싶은 마음, 동료와 함께 했던 일의 즐거움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생활, 특기를 발휘하여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관심과 전직의 경험을 살려 자원 봉사와 새로운 일터를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상실에 맞춘 섬김과 봉사 프로그램 목적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상실과 더불어 은퇴 후 찾아오는 사회적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 섬김과 봉사활동을 하게하고, 목표는 섬김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을 돌아 볼 줄 아는 노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사회적 상실회복을 위한 섬김과 봉사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사회적 상실회복을 위한 섬김과 봉사 프로그램 내용은 지역주민 봉사활동 섬김이다. 타 지역(국내 및 해외 수해, 재해지역 봉사활동)등이 있고, 방법 관심별, 특기별(전직활용)로 소그룹으로 조직해 활동한다.

사회적 상실 회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내용으로는 다른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의 교역이다. 옷 입는 것,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 목욕하는 것 그리고 문여는 것,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돕는 등 서로 관심을 기울인다. 양로원과 교도소 등의 친절한 방문자의 역할과 독거노인에게 전화로 기운을 얻게 하는 역할, 다른 노인들이 병원, 약국, 식품점에 갈 때 자발적으로 돕거나 혹은 차가 있을 경우 교통편을 제공 할 수 있다. 목수나 배관 설비자 페인트 일 등 집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나 식사봉사. 전도. 교사나 지도자로서 주일학교와 다른 교회 프로그램에서 봉사. 견학 선교활동을 위하여 관심 있는 곳을 방문하고[43] 탁아소 봉사. 지역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노인들의 교역. 범죄 예방. 도움의 손길로 노인들이 음식, 옷, 허드렛일을 도울 수있고. 맞벌이 부부 자녀들 돌보는 프로그램. 집을 공유하는 것, 노인들이 학비를 보조하는 대신에 자신의 집에 대학생들이 머무르게 하면서 집안일이나 요리 등을 돕는 프로그램, 풍요로운 결혼생활 프로그램, 은퇴와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돕는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창조적인 연극, 음악, 성가대, 미술등이 있다.[44]

---

[43]임창복, *노인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282.

Ⅳ. 사회적 연구 분석

1. 노인들과 생태환경

과학과 교육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날로 연장되어지고 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재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또한 교회와 가족 그리고 본인자신들이 노녀의 삶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을 새워야할 필요가 생겼다,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층의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 인 문제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45]

본 연구자는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심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개선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삶으로 되도록 개혁하고자 한다.

신체적인 면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노쇠하여지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물학적,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퇴화과정이 재성성의 과정보다 더욱 증가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물학적 노화(biological aging)로 명시한다.

생물학적 노화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연령이 많은 노인들의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에는 의학적, 사회적, 자연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측면인 교회공동체 가 담당해야할 바람직한 분야를 다루게 된다.

노인들을 보면 65-75세는 남녀가 비슷한데, 75세가 넘으면 남자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본 연구자자 섬기고 있는 뉴욕의 union plaza nursing home의 한인 노인들의 분포를 보면 75세 이상 여자와 남자비율이 15대1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빨리 육체적으로 쇠진해 진다.

최근 한국에는 노인의 성범죄가 4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고령화 시대의 그

---

[44]Ibid., 284.

[45]김성순, *고령화 사화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1), 150-151.

림자이다. 노인의 사랑과 성을 이야기하면 주책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쉽지만 노인들의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 노인들은 100세가 되어도 사랑을 하지만 단지 숨겨져 있을 뿐이다.

최근에 한국요양원에서 86세 남자노인과 92세 여자노인이 결혼해서 미국언론의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할아버지는 한국 국가대표를 지냈을 정도의 풍채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요양원들의 할머니 사이에는 할아버지를 두고 "사랑과 전쟁"이 일어났으며 치열한 전쟁 끝에 92세 노인과 화려한 결혼식을 했다.

양로원을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러 양로원을 갈 때면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쓴다. 노인들과 이야기 할 때도 사무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다정하게 끝을 올린다. 노인들이 가장 발달한 것은 청각이기 때문이다.

양로원과 달리 경로회관과 실버미션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성별은 반반이다. 여자는 일찍 아파서 병원에서 가서 체크하고 상태를 확인하지만, 남자는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별세하는 경우가 많다

1984년 6월 한국일보에 25시의 작가 Constantin virgil Gheorghiu는 한국의 찬가에서 노인 공경하는 미풍야속을 다음과 같이 찬야하였다.

> 세계 어디에서도 노인이 한국에서처럼 존경받는 곳이 없다. 모든 문명화된 나라에서 노년은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늙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동차공장의 못쓰게 된 부품처럼   사람들은 노인을 가려 내는데, 한국은 이와는 반대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존경받는다. 노인은 머리에 왕관을 쓴 것처럼 존경받는다. 한국의 노인공경은 다른 문명국의 모범이 된다.[46]

이 특별 기고에 쓰여 진 글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도 미주동포사회에서도 적당한 말은 아니다. 이제는 한 때 존경받았던 노인들의 삶이 급격한 사회적 냉대와 소외감, 경제적 곤핍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받는 계층으로 전락 되었으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먼저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도 역할(Role)의 상실내지 제약이다. 사회에 첫걸음을 시작한 후에 역할은 점점 더 넓고, 많이 가지며 역할이

[46]D. B. Bromley, *The psychology of Human Aging* 김정회 역 (서울: 성원사, 1992), 8.

커지며 중요하게 감당하며 활동을 많이 하여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던 역할을 내려놓게 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역할 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가치가 인정되며 자아 정체감, 자기 만족감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며 또한 권리와 의무와 지위의 영향력 및 개인이 소유한 부에 의하여 역할의 중요성으로 나타난다.[47]

M.W. Riley 는 사회란 사회적 역할이나 권력, 특전, 위엄 등이 연령에 따라 등급되어 지고 서열화된 연령, 성층화(Age Stratification)체계로 볼 수 있다고 한다,[48]

이는 역할수항능력의 측면에서 중년기에 가장 놓은 권력, 특권, 후광을 누리지마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줄어들게 되며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특권, 후광의 배분 과정에서 차별받게 된다.

2. 가족제도와 유기체적 가치관

월간 「목회와 신학」 2004년 10호에 실린 설문조사에서 남자 122명과 여자 113명, 합계 235명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귀하는 주로 어떤 주제의 신앙서적을 읽습니까?”라는 질문에 인물이나 전기류가 8.5%, 설교 및 성서 강해류가 11.1%, 주석류가 7.7%, 상담과 심리이해가 17.9%, 영성에 관한 책이 43.8%, 기타 11%로 집계되었다. 상담과 심리이해, 그리고 영성에 관한 책을 합치면 무려 61.7%나 되는 수치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독서는 주로 상담과 심리, 영성에 관한 책을 읽는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면 ‘왜 현대 기독교인들은 주로 상담, 심리, 영성에 관한 책을 읽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현대인들은 자연공동체의 와해로 인해 인간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기에 관계성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성 회복이 가능한 공동체로의 복귀이다.

둘째는, 물질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영성적 빈곤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노인들은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기에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탐구하여 노인

---

[47]R. C. Atchley, *Social Forces in the Later Life* (Belment: Wadsworth publishing Co, 1980), 94.

[48]M. W. Riley, R. H. Bainstock and E. Shana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2nd* (New York: Nostrand Reinhold, 1985), 369-370.

의 상실된 정체회복이 필요하며, 가족 공동체를 통한 심신의 안정과 평안 ,위로함이 필요하다.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미주 이민 가족들은 급속도로 핵가족화 되면서 통전적 가족 관계의 와해로 노인들의 소외국감이 증폭되고 있다. 가족문제는 복잡 다양해서 획일화하기 어려우나, 산업화와 함께 가족과 사회는 유기성이 강조되면서 가족문제는 가족 자체에 의한 경우보다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많다. 그러므로 가족 사회학이나 가족정책에서는 가족문제의 원인으로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의 문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49]

그러나 가족이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가족 내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가족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족문제가 발생하기도하고 가족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문제를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50]

현대사회에서는 가정문제는 가족해체일 수 있다. 미주 교포사회 의 물질적 풍요와 생활에 편의성이 제공된 이면에 이민사회의 가족관계의 붕괴 내지 인간성 상실로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요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족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으로는 첫째로 전통적 도덕윤리의 붕괴를 들 수 있다. 도시화. 산업화하면서 전통사회에서의 사회규범이나 도덕윤리가 붕괴 내지 약화된 것도 가족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규범과 판단의 혼돈이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규범체계가 혼란 또는 붕괴되는 현상을 사회적 아노미라 한다면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인간이 나타내는 심리적 불안 자기 상실감 무력 등의 상태를 심리적 아노미라 할 수 있다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사이의 괴리에서 가정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도덕 윤리 타락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정신적 타락의 징후로는 과소비와 사치물질 및 배금주의,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 인명경시, 자기과시. 결

---

[49]공세권 외, *결손가족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 정책의 접근방법* (서울: 한국사회학회, 1998), 116.

[50]송선자,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2000), 50-51.

과위주의 사고방식, 성도덕의 타락, 부모와 노인 경시 등으로 인해 윤리의식이 해이해 졌다.

한국가족의 전반적인 문제 성향을 종합하여 보면 부자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축이던 전통적 확대가족에서 부부관계가 핵심적 관계 축이 되는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부부문제는 전체 가족문제의 가장 핵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문제로는 가정폭력문제, 배우자의 부정문제, 부부갈등, 시집 갈등 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 등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가족규모의 변화와 문제점

지난40여 년간 한국에서는 유아사망률의 저하,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유연인구(0-14세)는 그 수와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65세 이상)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유연인구 부양지수는 줄어들고, 반면에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 즉 노령인구 부양지수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인구 구성상에도 큰 변화가 있다. 출생률은 감소하는 반면에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아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인 인구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총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7-14%)에 이미 진입했으며, 2010년에는 고령사회(14-20%)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20%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1]

2) 가족형태의 변화와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는 2세대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족이다. 이러한 유형은 현재 60.8%에 이러고 있으며 우리 사회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수치는 2세대가구라는 사실만을 말해줄 뿐 자녀가 미혼인지, 기혼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인 2세대 가구 안에는 핵가족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추출이 가능하다. 또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은 3세대가구의 감소가 2세대 가구의 증가로 연경되지

[51]조홍식 외, *가족 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2), 38.

않는 다는 것이다.[52]

표 1, 가구수 구성 비율[53]

가구형태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구성비율	31.1%	20.9%	19.1%	15.5%

가구 수 구성 비율은 2000년 현재 일반가구의 가구원 수별 구성비로는 4인가구 비중이 31.1%로 가장 많고 3인 가구 20.9%, 2인 가구 19.1%, 1인 가구 15.5%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 내용을 보면 가족복지를 위한 사회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의 큰 변화는 이혼문제이며 이로 인한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 가족의 증가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가족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는 개인들의 집합체이며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가족 외부와의 관계 역시 매우 상이한 역동적인 조직체이다.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외부의 개입이 요청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와의 관계이다.

먼저 부부관계의 변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지배관계에서 민주적인 상호의존관계로, 남편주도형에서 부부의 논형으로[54], 가족의 민주화와 더불어 부부세력의 평등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5] 그러나, 부부간의 실제적 평등에 기반한 조화로운 관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큰일은 남편이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많다.

---

[52]함인희, *사회변화와 가족* (서울: 여성한국사회 연구회편, 경문사, 1995), 133.

[53]통계청, *사회복지표 2002* (서울: 통계청, 2003), 152.

[54]Ibid., 166.

[55]한남재, *한국 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1994), 91.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우선 학부모-자녀관계를 보면 혈연관계인 부모-자녀관계에 세대갈등, 세대단절 현상을 초래하였다. 공부만을 강조한 결과 부모의 권위는 낮아지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소위 역수직 관계를 초래하기도 한다. 반면에 노부모-성인자녀관계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길어지게 되었으며 여전히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중요한 부양체계가 되었다.

4) 가족기능의 변화와 문제점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가 교육제도의 발달로 보육시설, 학교 등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경제적 기능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터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전되고 있다. 아동, 노인, 병약자 등 의존적 가족구성원은 가족 내부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당연했으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달로 사회복지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사회가 가족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능상에 커다란 장애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체는 이러한 장애를 없애주고 가족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 변화를 수용 혹은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살도록도와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경제적 부양의 문제

가족소득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빈곤문제, 가족구조상 취업여성의 증가, 가족 간의 빈부차이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등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가족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2) 미주 교포사회와 핵가족화의 결과에 따른 문제

주말부부의 증가, 자녀수 감소, 주거 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되는데서 오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보호업무를 주로 여성에게 의존해 오던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 내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병약자 등을 보호하는 기능의 동공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핵가족은 부부가족이라고도 하는데 부부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2세

대 가족을 말하며 자녀들은 결혼하면 부모의 집에서 분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핵가족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었으나 가족의 보호 및 부양기능의 약화, 인간소외, 인간경시풍조, 가족기능의 축소 및 가족결합의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또한 가정 외적 문제점으로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 선택으로 인하여 가족 성립조건이 불안정하고 주위 친족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 적어 위기 시에 가족들이 쉽게 해체되어 버린다는 것이다.[56]

(3) 가족의 통제능력과 통제기능의 문제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회화, 정서적 지지의 기능 수행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사회의 잦은 이사로 인한 가족생활의 불안정성, 세대차이 문제, 부부불화, 부모 역할 모델의 부족, 대화의 부족 등이 원활한 가족기능 수행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서 가족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예로서 부부불화, 고부문제, 배우자부정,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등의 가족폭력 문제들을 들 수 있다.

가족관계의 변화 중 고부관계는 전통적 직계가족 사회의 효 이데올로기로부터 현대산업사회의 변모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의 세대간 권력관계 이동의 특성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고부문제의 양상의 변화에 있어 친족의 개입 또는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법 개정의 배경 하에서 가족 내 문제해결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아울러 노인부양의 체계가 양계제 혹은 양거제의 성격으로 가속화되는 현 추세에서 노인과 성인부부자녀사이에 개별가족의 속성이 다른 상이한 친족관계망이 형성되고, 문제와 적응양식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고부관계의 갈등 혹은 세대적 호환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가족복지적 접근은 개별가족 성원들의 가족의 범위에 대한합의로부터 출발하여 부양에의 의무와 기대의 가치가 현실적인 충족으로 이어지도록 조절하며 중재할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부부관계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부부의 애정적 기능의 강화와 현대적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강조되며 이혼의 증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불만족현상으로서 이혼의 사유분석을 통하여 현대 부부관계의 갈등의 문제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한

---

[56]권육상,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유풍출판사, 2002), 366.

형태 중 배우자 폭력은 가부장적 가정문화의 표출로서 권위적 불평등의 부부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회적 산물로 이해된다.

이상의 부부관계의 여러 문제들은 부부관계 강화훈련, 구타남편과 배우자의 치료방안, 실직자 가족의 지지서비스 등 그들의 요구에 민감한 프로그램들의 계발이 요구되며 피상담자의 자기결정적 문제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고 실현되어 져야할 것이다.[57]

(4)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

자녀유기, 별거, 이혼의 증가, 배우자 부정, 향락산업의 발달 등으로 결손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정서적 장애아동, 가출 및 비행청소년 등 문제를 자녀가 많이 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각 종 심리적 경제적 소외문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체계 내에서는 친족관계가 약화되어 가족이나 친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므로 가족이 돌보아야 할 대상을 돌 볼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다.[58]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주택분양시의 우선 혜택, 대학 및 중·고교생의 학비지원, 이외에도 의료비보조, 취업알선, 생업자금의 지원, 직업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복지대책은 장애인도 독립적 인격체로서 그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되고,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여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제는 노인가족의 문제를 복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민교포사회에는 가족관계가 중요시되는 사회규범과 미풍양속이 상존하고 있다. 이것이 다소 퇴속되고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노인가족의 돌봄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것을 보안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에 직면하게 될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건데 노인 부양의 주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가족의 건강 유지에 역기능적

---

[57]이영분, 양심영,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복지써비스의 대응 논문집* (서울: 건국대학교 사회복지과, 1998), 68.

[58]공세권 외, 55.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동안 노인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로 가족에게서 찾아왔다면 앞으로 미래의 노인들은 삶의 의미와 심리적 만족을 가족 외부에서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아직은 적지만 자녀나 가족관계, 가족역할에 중요성을 적게 부여하고 다양한 그룹 활동이나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생활양식을 즐기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노인 가족을 위하여 노인들의 이러한 사회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노인활동 모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가족형태나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름과 차이의 인정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표 2, 가족기능의 변화 양상

가족기능	지난 한 세대의 변화내용
경제공동체의 기능	생산기능의 상실, 혹은 약화 소비기능의 강화
성행위와 출산통재기능	성과 출산통재 기능 약화 부부간의 성생활 기능 강화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	자녀양육기능 강화 자녀양육기능 국가와 공유 사회와 기능 왜곡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 강화
사회보장기능	기능 왜곡 사회보장기능 국가와 공유
지위계승기능	지위계승기능 강화
성역활 사회화 기능	성 차별적 사회화
가사 노동	가사노동의 사회화, 상품화, 기계화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쟁점은 산업화와 함께 가족이 자체의 노력만으로 독립된 생활이 어렵게 된 데 있다.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는 그것이 사회의 간섭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출산조절, 보육사업, 가사지원 및 가정간호 등은 간섭이 아닌 생활개선과 역할 보완을 유도하는 가족개발을 의미한다.[59]

---

[59]이소희 외, *현대가족 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1), 41.

3. 노인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전략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노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하여 한정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60] 첫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의 등장이다. 물질적 자원의 풍요와 여가의 증대는 모든 연령층이 다양한 교육 장면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평생학습사회란 어느 연령층을 불문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확장시켜 갈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둘째, 급속한 사회의 변화이다. 사회 변화 가속화로 인하여 사회 변화 주기가 인간의 평균수명을 능가하게 되어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의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선두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코드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사회 속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노인들 역시 새로운 사회 변화와 지식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핵가족화와 세대 간 갈등의 증가이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수명의 연장으로 조부모 역할 시기가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세대 간 접촉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서로 화합을 위한 세대 간 이해 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산업화와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경로사상이 변화하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젊은 세대 사이에 노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물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자녀들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또한 노인 자신들도 경제력만 허락한다면 굳이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60]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5), 115.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곧 노인들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노년의 사회적·심리적 자립은 역할 재정립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학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더 이상의 발달을 기대할 수 없는 쇠퇴와 조락의 시기이며, 노인은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은 평생에 걸쳐 발달한다고 하는 전 생애발달(life-span development) 관점의 등장은 노인을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이자 여전히 발달의 과정에 있는 이들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능케 하였다. 한편 생활수준 및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노인 자신들의 욕구 또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의 노인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가 가장 큰 것이었다면, 과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진 지금의 노인들은 그 이상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될수록 노년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들 노년층의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년교육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즉 고령화이다. 의료 보건 기술의 발달 및 영양과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무엇보다도 한 개인이 그의 일생 중에서 노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 즉 노년기의 연장과 직결된다. 80 평생 중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시기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매일이 여가뿐인 삶은 오히려 지루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늘어난 노년기 동안을 보다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마는 현상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을 감지할 수 있는데 첫째,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며 시설이 부족하다. 둘째,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활용가능한 이해도가 미흡하다. 준고령자 교육이 행해지는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학교 등 시설 대부분은 관련된 부처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셋째, 퇴직 전과 퇴직 후의 교육이 저조하다. 이러한 교육은 일부 에서 단기 과정으로 운영되지만, 민간

차원의 교육 컨설팅의 한계 및 고용센터, 창업교육의 체계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민동포들의, 실무자들의 전문성 결여는 노인교육 가치에 대한 협의적인 시각을 만들어 냈다

넷째, 이민 교포사회의 교육지도자,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체제 및 오락과 여가 활동 위주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등 노인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체제가 미비하다. 다섯째, 준고령자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인식이 부족하다. 즉, 준고령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으로 가족, 지역사회, 정부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및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설계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1) 미래 사회와 노인교육

향후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노인들을 의존적인 피 부양 인구로서 다루는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보호 위주의 노인 정책으로는 급증하는 노인층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노년층의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향후 고령화는 전반적인 노인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노인정책의 변화에서 핵심적인 방향은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로 집약될 수 있다. 활동적 고령화란, 증가하는 노년층을 의존적 인구가 아닌 활동적인 인구로 변화하여 노년층을 사회의 부담 요인이 아닌 발전 요인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활동적 고령화를 목표로 노인교육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학습의 산물 혹은 자본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학력, 자격, 지식, 기술 등 개인적 능력, 즉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다. 둘째, 인간관계,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 자존감, 삶의 목표, 자기실현, 비판적 사고, 강한 자아(ego strengths)를 의미하는 정체성 자본(identity)이다.

2) 인적 자본으로의 육성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으로 인구의 비율이 높아진 중·고령자들의 실업 문제와 사회적 부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근로 능력을 배양하여 인적 자본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노년층과 노년기 그리고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화를 쇠퇴 일변도의 변화로, 노인을 의존적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그리고 노년기를 역할 없는 무한 여가의 시기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노화를 자연스러운 발달의 한 과정으로, 노인을 사회의 중요한 한 구성원으로, 노년기를 완숙한 인생의 완성기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특히 앞으로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될 노인들은 예전에 비하여 훨씬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학력, 자격, 직업 경력, 지식, 기술 등) 수준 면에서도 높은 능력을 지닌 이들이 될 것이다. 또한 노년층의 이러한 변화는 노후에도 더 많은 활동과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로 표출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도 노인을 허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자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노인관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그들의 역량 개발을 통한 인적 자본으로의 육성이 향후 지향해야 할 노인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3) 사회적 자본의 확충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아동·청소년기와, 본격적인 노동의 시기인 청·장년기, 노동으로부터 물러나 은퇴하여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하여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 연령 분리적인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라 이러한 연령 분리적인 사회 특성은 연령 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각 개인의 요구에 따라 교육, 노동, 여가를 전 생애에 걸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 통합적 사회에서는 학교, 직업, 여가세계가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입과 교육, 노동, 여가 등의 활동 과정에서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연령 차별주의를 저하시키고, 연령 통합이 가능하려면 연령집단 간 상호 교류 및 각 계층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 각 계층 간의 신뢰, 네

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세대공동체 교육, 시민교육, 노인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교육 등은 연령을 초월하여 우리 사회의 계층 간 혹은 집단 간 갈등 해소, 신뢰 회복,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는 노인교육이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체성 자본의 확립

수명 연장은 개인의 삶에서 노년기를 길어지게 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제2의 인생은 개인에 따라 그 이전 단계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것일 수도 혹은 지속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노년기 삶의 다양성은 노년기 역할의 다양성, 즉 노년기에서 나의 중요한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년기 삶의 질은 길어진 인생 속에서 은퇴 이후 또 다른 새로운 삶, 즉 제2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노년기 삶을 선택할 경우 노년기의 역할은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인 반면,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노년기 삶을 선택할 경우 노년기의 주 역할은 사회와 후세대를 위한 자원봉사와 공헌이 될 것이며, 여가 중심의 풍요로운 삶을 선택할 경우 노년기는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통한 자기 계발의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노년기 역할과 삶의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 자신의 정체성 자본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노인교육의 역할 규명은 향후 지향해야 할 중요한 전략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4. 노인에 삶에 대한 실존적 이해

성서는 노인들의 생물학적 조건들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구약이나 고대 중동세계의 노년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은 백발(삼상 12:2)이다.[61] 그리고 '수염난 자'(삿

[61]William M. Clements, *Ministry with the Ag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16-22)라는 단어다. 원래명사 *Zagan* 은 '수염'의 뜻이고, *Zogan*(창 48:10)과 *Zeguim* (창 21:2,7)은 '나이가 많이들은' 이라는 형용사 *Zigan*(창 24:26, 왕상 11:4)는 '나이가 들어가는'이며 *Zagen*은 '수염난 자'라는 의미로 수염 없는 자와의 반대적 의미가 되어 노인의 지칭이 되었다.[62]

그 외에 '기력이 다함'(시 71:9), '시력이 약하짐'(창 48:10), '무감각'(삼하 19:35)등으로 나타난다. 전도서 에서는 재미가 없고 ,집지키는 자가 떨리며, 힘센 자의 허리가 굽고, 이가 빠지며, 시력이 희미해져 정력이 빠져나가 몸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압축하여 설명한다(전 12:1-7). 그 밖에 지팡이에 의지하여(슥 8:4), 불면증, 걱정, 욕망의 감퇴를 경험하며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시 71:9)고 표현한다.

건강의 약화와 일상에서의 역할 상실과 함께 소득의 상실이 노년의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였기에 성경에서는 홀아비보다 과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한다(출 22:22-24, 신 10:18, 24:17-22, 눅 20:47, 행 6:1-7, 9:39, 약 1:27. 딤전 5:3-6).[63]

하나님은 이러한 배성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무관심 하게 되었을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 질책하셨다. 에스겔서 22장 7졸 이하에 보면 당시 유대사회의 제도적 붕괴와 노년층에 대한 멸시를 지적하는 좋은 예를 보여 주었다.

고대 중동세계와 성경의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노인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 존경은 받았다(욥 12:12, 32:7).[64] 노인은 죽음과 상실의 단계이지마는 또한 인생의 황금기이며 복된 과정이며 존경을 받고 마무리지어야할 사명이 많은 시기임을 깨우치고 있어야 하겠다.

노인의 삶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역대기적인 것과 둘째, 동시대적인 것이다. 역대기적인 것은 세대적인 의미로서(Inter-Generational) 과거와 미래의 연계점이고 살아있는 전통의 전달자인 것이다. 동시대적인 것은 노년층이 각

1983), 24.

[62]Ibid., 25.

[63]Ibid., 11.

[64]D. J. Wiseman, "Age, Old Age" *The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vol. I* (Tyndale, 1980), 20.

세대의 그룹중 하나라는 것이다.

노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데, 이들의 중요성은 그들의 가문이나 가정의 구성원으로 있다는 사실에서 보증된다.[65] 성경에서는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 힘를 줄 수 있기에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속에서 얻어지는 '지혜' 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노년(장로)들의 충고를 져버렸기에 왕국 분열을 맞게 되었다.(왕상 12:6f) 그러므로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것을 부패한 사회의 징후로 보았다(사 3:4f)[66] 히브리 사회에서는 노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자로서 존경을 받았다(시 71:17-18. 수 24:31)[67]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형장에서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했으며(요 25:25-27), 에베소서 6장12절은 부모에게 순종함이 신앙인의 모습이라 한다. 이러한 말씀들은 부모와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함을 보여주며 보호의 대상이며 노인들의 경험이 공동체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초대교회에서도 구약시대와 같이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영적 성숙함에 이른 노인에게 맡김으로 그들에 대한 존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68]

그러므로 역할상실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오늘날의 노인계층에 변화된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찾도록 교유하고 개발하며 관리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힘쓰도록 하여야 하겠다.

---

[65]Bernhard Lang, *Prophet in Israel* (Patmos, 1980), 100-103.

[66]홍종각, *노인 문제와 그에대한 교회참여 방안*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1984), 116.

[67]Robert H. Binstock and Ethel Shanes, *Handbook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85), 132.

[68]정영식, "교회에 있어서 노인은 누구인가?" *풀빛목회,* no.35(1982년 12월), 39-40.

Ⅴ. 교육심리학적 연구 분석

기독교인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신앙이 발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를 그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신앙과 발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그와 함께 신앙발달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1. James Fowler의 신앙 발달 이론과 노년기의 신앙

교회가 말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말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을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신앙이 일련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그 체계적인 틀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러한 틀에 기초해 어떠한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파울러(James Fowler)의 신앙발달 이론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대답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노년을 비롯한 세대에 따른 신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의 신학적 기초

(1) 폴 틸리히(Paul Tillich)

파울러가 신앙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데에는 폴 틸리히의 견해가 전제되어 있다. 폴 틸리히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구심력을 형성하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들 중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그 가치를 위해 삶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였다.

(2) 윌프레드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틸리히와 니버가 보편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었다면, 비교종교학자인 스미스는 신앙이 종교나 신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신앙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체

성을 제시해 주었다. 스미스는 종교를 "축적된 전통들"이라 보았고, 그 축적된 전통들은 과거의 사람들의 신앙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신앙은 종교보다 더욱 개인적인 것으로, 그 축적된 전통들을 통해 깨달은 초월적 가치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응답방법이라고 보았다. 한편 신념은 "특정한 관념들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반면, 신앙은 신념들이 규정지어 놓는 초월자에 대한 신뢰와 충성의 관계라고 하였다.

(3)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

폴 틸리히에게선,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신앙, 스미스에게선 신념이나 종교로부터 구분되는 신앙이라는 기본적 입장을 취한 반면, 니버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신학적 구조를 거의 따르고 있다. 니버의 신학적 인간 이해가 담겨진 저서는 『책임적 자아』로서, 그 개요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두 가지 상(像)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만드는 자로서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인간"이다. 전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생각을 가지고 생산해 내는 인간을, 후자는 사회 속의 법률 아래에서 사는 인간을 말한다. 니버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법에 복종할 것인가? 라는,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사회, 시간과 역사, 절대적 의존, 죄와 구원 안에서의 책임이다.

2)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의 심리학적 기초

(1) 장 삐아제(Jean Piaget)

삐아제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주체와 객체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외부의 환경을 자기 기존의 내부 틀에 통합시키는 '동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내부 틀을 변화시키는 '조절'을 통해 인식의 '균형'을 추구해 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동기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치며 지적인 발달을 이뤄간다고 보았는데, 그 네 단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감각운동기로서, 2세까지의 영아들이 속하는 이 시기에는 감각이나 운동기관을 사용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해 나간다. 둘째 단계는 전 조작기로서,

이 시기에는 내면적인 조작적 사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은 논리적이 아닌 직관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논리보다는 상상력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셋째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로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로서 인과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넷째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로서 가시적인 것을 초월하여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기이다.

(2)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은 파울러가 신앙의 구성요소를 "도덕 판단의 형태"로 보게 된 근거가 되었다. 콜버그의 주된 관심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생각에 있어서 외부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렇게 행동하게 된 생각의 "구조"를 밝히는 데 있었다. 콜버그는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라고 불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봄으로, 그러한 도덕적 판단 내리는 근거를 중심으로 도덕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은 인습(convention)을 기초로 한 세 수준-인습전, 인습적, 인습이후의 수준-을 각각 두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인습이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협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습전 차원에선, 아직 자신의 집단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인습 차원에서는 자신의 그룹이나 사회의 규칙을 중시하여 이를 도덕판단의 근거로 삼으며, 마지막으로 인습 후 차원에서는 자신의 관점이나 이익, 또는 속한 집단을 초월한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서 행동한다.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습 이전의 수준으로는 순종-벌 단계와 순진한 자기중심적 단계의 두 단계로서 전자는 우월한 힘에 대해 자기 중심적으로 복종하는 단계이고, 후자는 옳은 행위란 자기의 필요들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을 도구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인습적 수준에는 착한 소년 소녀 지향단계와 권위와 사회질서의 단계가 있고, 전자는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도와주려는 경향을 가진데 반해, 후자는 의무를 행하고 권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 보이려는 경향을 가진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습 이후의 수준에는 사회 계약 지향 단계와 양심 지향 단계가 있는데, 전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회피하며 상호계약을 지켜주는 단계이며, 후자는 논리적인 보편성과 일관성에 대한 호소를 포함한 선택의 원리

들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 단계이다.

(3)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

신앙은 근본적으로 전적이기 때문에 신앙발달도 자아의 전적인 성장이 되어야 한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인격의 8단계를 구성하였다. 프로이드가 인격의 병적이고 신경증적인 측면의 진술에 주력한 반면, 에릭슨은 건강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인격 발달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에릭슨은 자아에 주관심을 두고 이 자아와 환경, 즉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인격이 성장한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인격은 일평생을 통해 발달하며, 각 단계에는 해결해야 할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위기들을 건강하게 극복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파울러는 10년 동안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면담을 통해 신앙발달을 연구하였다. 이 조사는 케네디 2세(Joseph P. Kennedy, jr) 재단으로부터 받은 도덕과 신앙발달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원조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면담에 사용된 질문들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삶에 대한 개관"으로서, 그 사람 자신의 인생 경험들과 도전에 대한 반응들 및 의미의 구성들을 그 면담의 주제로 삼고 있다. 파울러는 그러한 면담을 통해 얻은 답 자체보다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2부는 "삶을 형성해 주는 경험들과 관계들"은 제목의, 1부보다 더 심층적인 삶에 대한 관찰을 시도한다. 여기에서 역시 응답자들이 삶에서 일차적인 가치들을 형성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들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과 관계들을 확인하고자 노력한다. 3부는 "현재의 가치들과 헌신들"이란 제목의, 응답자의 보다 직접적인 가치관을 확인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3부가 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신앙에 대한 질문이라면, 4부는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신앙에 대한 질문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을 기조로 하여, 파울러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1972년에서 1981년까지 359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신앙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해, 그는 신앙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일곱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일곱 요소란, 논리의 형태(Form of Logic), 관점 채택(Perspective Taking),

도덕적 판단의 형태(Form of Moral Judgement), 사회의식의 테두리(Bounds of Social Awareness), 권위의 장소(Locus of Authority), 세계관의 형태(Form of World Coherence),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이다.

3) 신앙의 발달 단계

신앙 발달의 특징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울러의 신앙발달 단계는 총 일곱 단계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분화된 신앙단계(Undifferentiated Faith)이다. 파울러는 이 시기를 단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단계 이전의 시기, 즉 "0단계"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이 단계가 무의식의 세계를 형성하는 시기인 동시에, 이후의 신앙발달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서 발전된 상호성의 질, 신뢰, 자율성, 희망과 용기(또는 이와 상반되는 것들)는 후에 신앙발달에서 오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또는 모든 것을 침해하려는 위협이 된다)" 내용을 볼 때, 이 시기에 대한 이해는 에릭슨의 인격 발달 이론에서의 첫 단계, 즉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이라는 위기를 겪는 단계를 전적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단계로의 이동은 언어 혹은 의식적 놀이를 통해 상징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와 언어가 나타나면서 가능해진다.[69]

둘째는 직관적-투사적 신앙의 단계(Intuitive-Projective Faith)이다. 이 시기는 3세에서 7세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단계이다.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며, 대신 무한한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앙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중심적이다. 이 시기에서의 위험성은 바로 이 상상력이 지나쳐 억제될 수 없는 공포 혹은 파괴적인 이미지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과, 반면 금기나 도덕적 교리적 기대를 강요함으로 상상력을 악용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 조작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워주어야 한다.[70]

셋째, 신화적-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은 7, 8세에서 11, 12세의 어린이들

---

[69]James W Fowler, *신앙의 발달 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2), 195-199.

[70]Ibid., 200-218.

에게 해당하는 신앙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구체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논리구조를 따라 서술할 수 있는 반면, 설화의 주인공들을 신인동형론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그 이야기로부터 성찰적인 어떤 개념을 도출하지 못하고, 설화가 표면적으로 주는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71]

넷째는 종합적-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으로서 사춘기에 전형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의 경험은 가족의 범위를 초월한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확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신앙은 다양한 범위 속에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시기는 다양한 입장의 견해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단지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라고 이해하며, 결국 자신이 속해있는 이념, 혹은 신앙의 범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성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파울러는 "순응주의"라고 표현했다. 이 단계에서의 위험성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내면화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자율성에로의 발전 가능성 상실이다.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는 공식적인 입장과 충돌되는 사건이나 견해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공식적인 배경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비평적 성찰적 경험과 전망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72]

다섯째는 개별적-성찰적 신앙의 단계(Individual-Reflective Faith)이다. 이 단계에선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상징에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비신화화"가 일어난다. 이전에는 중요한 타인들의 상호인격적 범위에 근거하여 그 정체성과 신앙 구성들을 유지하였던 자아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나 의미의 구성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의미의 틀을 구성한다. 이 시기에선 자아와 이념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위험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비판적 성찰을 통한 자아가 실재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과 지나치게 동일시되는 자기도취적 성격을 띨 때 나타날 수 있다.[73]

---

[71]Ibid., 219-242.

[72]Ibid., 243-279.

[73]Ibid., 280-294.

여섯째는 결합적 신앙의 단계(Conjunctive Faith)이다. 이전의 단계가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개별화하였다면, 이 단계는 비평적 성찰을 통해 구분되고 무시되었던 입장들을 자신의 것과 통합하는 시기이다. 이전의 신앙이 자주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의 신앙은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정과 포용의 신앙이다. 파울러는 이 시기에서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진리에 대한 역설적 이해로 인하여 자족감 혹은 냉소적인 후회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74]

일곱째는 보편적 신앙의 단계(Universalizing Faith)이다. 파울러는 이 단계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 환경에 대한 그들의 느낌 인식이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신앙 구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단계에 도달한 인물로서, 간디(Gandi), 말년의 마틴 루터 킹 2세(Martin Luther King, Jr.),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 등을 소개한다. [75]

4) 기독교 교육적 적용

그의 신앙 이해를 통해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가 제시한 신앙의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교육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1) 교육 목적

파울러는, 신앙이 초월자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라고 함으로써, 전적인 삶의 헌신으로서의 신앙을 강조하였고,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해 가는 동사적인 신앙이해를 통해, 신앙은 중심된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발달해야 할 것을 말하였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신앙은 발달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발달은 전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전인적인 발달이라 함은 무엇보다 그가 말한 신앙의 일곱 가지 구성요소가 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일곱 요소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논리의 형태, 관점 채택, 도덕적 판단의 형태, 사회의식의 테두리, 권위의 장소, 세계관의 형태, 상징적 기능이다. 사고의 틀이 발달하도록 하는, 자신의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타

[74]Ibid., 295-319.

[75]Ibid., 320-338.

인, 또한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도록 하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성숙해지도록 하는, 사회 의식의 테두리가 확장되도록 하는, 전체적 판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로 옮겨가도록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상징들을 성숙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교육 방법

파울러의 이론에 근거하자면, 신앙 교육은 각 단계별로 다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각 신앙단계별로 신앙을 획득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다. 그는 각 신앙단계별로 주된 신앙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곧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권장되어야 할 교육방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의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에는 주로 무의식을 통해 기초적인 신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을 양육하는 자와의 질적 관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기초적인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양육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손길, 눈빛, 목소리, 태도 등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애정이 담겨 있을 때, 무의식 속에서 영아는 양육자는 물론, 세상에 대해 신뢰와 희망을 형성하게 된다.

1단계인 직관적-투사적 신앙의 단계는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상상력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상상력으로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글자보다는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내주는 그림, 상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야기, 주제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음악, 혹은 주제가 들어있는 극들-인형극, 드라마, 만화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 상상력을 이용한 교육방법은 이 시기에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발달의 전단계를 통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파울러는 상상력을 곧 신앙으로 보았고, 우리의 모든 "앎"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의식을 초월한 방법, 즉 '이미지'의 형태로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앎"의 방법으로서의 상상력을 중요시했다.

2단계인 신화적-문자적 신앙의 단계는 비로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므로,

논리적 사고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신앙적인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을 논리구조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거나, 논리적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결과, 혹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어린이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대답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3단계인 종합적-인습적 신앙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신앙방식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가치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며, 그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 혹은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기독교 신앙에 가치를 두도록 성서를 스스로 탐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4단계인 개별적-성찰적 신앙의 단계는 이전까지 형성해왔던 가치와 신념에 대해 묻고, 비판해보고, 재조정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입장으로부터 개별적인 자신의 신앙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유로운 의사의 표출이 보장된 비교 토론이나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역할극이 될 수 있다.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주기보다는 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은 자유롭게 신앙적인 회의와 고민들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개별적-성찰적 신앙에로의 전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5단계의 결합적 신앙이란, 4단계의 자주적인 신앙을 넘어선 통합적이고 수용적인 신앙을 말하며, 자신의 입장이 갖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입장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자주적으로 선택한 신앙이 전통이나 개인의 편견에서 출발한 부분적 측면임을 발견하게 해야 하며, 또한 그러기 위해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를 사실 그대로 파악하게 해야 한다. 박원호 교수는 이 시기에 합당한 교수방법으로서 토마스 그룸의 "공동참여의 방법(Shared Praxis Approach)"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6단계인 보편적인 신앙의 단계는 이전과 구분된 특별한 신앙방식이 없으며, 오히려 5단계를 삶 속에 내면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신앙

을 말하였다고 하는 파울러도, 이 단계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긴박함에 의하여 도달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기 힘들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파울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신앙이 개인의 내적 경험뿐만이 아닌 관계성이라는 외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신념이나 교리의 단순한 전수가 아닌 행동화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동체를 통한 신앙교육을 주장한 기독교교육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웨스터호프(John. H. Westorhoff Ⅲ)와 넬슨(C. Ellis Nelson)이다. 웨스터호프는 현대 신앙교육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은 교회가 학교식-교수 패러다임(schooling-instruction paradigm)을 추종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신앙과 문화를 형성하는 공동체 패러다임(a comunity of faith-enculturation paradigm)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앙은 신념이나 사상과 같은 내용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행동의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넬슨도 '신자의 공동체'를 통해 신앙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와 성인들이 모든 구체적 사건에서 사용하는 의도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생활이 곧 커리큘럼이라고 하였다.

신앙교육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은 신앙에 대한 이해에 의해 그 패러다임이 좌우된다. 그런 의미에서 파울러는 전인적인 신앙이해, 동사적인 신앙이해로 기독교교육은 바로 인간이 발달해가는 일평생 동안의 신앙을 더 성숙한 것에로 이끌어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게 하였다. 또한 신앙발달이 곧 전인격적인 발달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균형적인 신앙발달을 위해 기독교교육이 노력해야 할 것을 시사해 주었다. 그는 신학이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발달적인 측면을 심리학과의 비평적 관계를 통해 설명해 주었다.

2. 핵가족의 문제와 노인소외.

현대 노인의 문제가 식생활의 개선 그리고 의학의 발달과 운동 등 건강관리로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에 심각하게 들어나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발전하는 산업화와 사회의 핵가족화로 노인들이 사회와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에 노인들이 적응 하지 못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있다. 이 고령화 문제는 비단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고령화를 바르게 대비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이 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기독교 노인 교육 교역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인을 바로 이해하므로 우리들의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없애주고, 노인들의 한계와 잠재능력을 바로 알 수. 있다.

성인초기의 심리적 상태의 특징을 '친밀 대 고립'으로 보고,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성인은 고립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노년기의 특징은 '자아통합 대 절망' 으로 보는데 지나온 인생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자아통합이 생기고 반대로 무의미한 인생을 발견하고 탄식하게 될 때 절망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비추어 보면 친밀감을 갖지 못한 채 고립되었거나, 보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거나, 인생의 황혼기에 절망감에 처한 사람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노인신자들은 심리적인 불안이나 절망들에 대한 보상심리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애런슨(R. S. Aronson)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개별성과 동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동조성이란 실제, 또는 가상의 인물이나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과 의견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조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되려는 목표와 모임의 주류에 참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속에 수용되어 있으려는 욕망에 의해 동조화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에게는 개별성도 있어서 동조성을 증감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자존심이 강한사람은 동조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76].

매슬로우(A. H. Maslow)는 사람들의 5대 욕구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생리적인 욕구를 드는데 이 욕구가 채워진 후에는 안전의 욕구로, 이후에는 사랑과 호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보인다고 말한다.[77] 이 단계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호의

[76]E. Aronson, *사회심리학,* 윤진, 최상혁 역 (서울: 탐구당, 1989), 23-50.

적인 관계를 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동 사회적 정서' 라고 하며 사람들은 서로 동일시하며 서로 도우려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78]

이런 심리학적 견해로 노인들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동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종교심리학자인 존슨(P. E. Johnson)은 "개성을 지닌 개인이 아무리 유능한 존재라도 혼자 있을 수 없으며, 언제나 타인과의 만남을 추구하게 된다" 고 하면서 "교회는 그 가운데서 모든 지체가 유기적인 상호의존을 하여, 부담을 함께 지는 생활이 영위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79]라고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 한국 전통 문화가치의 퇴조.

'가치'란 용어는 "하나의 행위구조(a system of actions)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 혹은 광의의 투자를 통하여 형성된 어떤 영속성을 가진 관계 나 표준"을 암시한다. 다수의 학자들은 학문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가치란 한 개인이나 구룹, 또는 바람직한 양상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explicit) 혹은 암시적(implicit) 분별을 할 수 있는 개념이며 이는 가능한 양식들, 방법 들,그리고 행위의 결과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80]

전통적 가치란 한 인종 구룹의 문화와 강하게 연고 되어져 왔다. 문화의 관습들은 한 사회 에서 다른 사회 혹은 동일한 사회에서 의 한 소그룹들 속에서라도 서로 많이 다르다.[81] 각 문화는 자체 내의 가치 구조(its own value system)의 결과로서 색다른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 각 개인은 하나의 특정한 사회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태어

---

[77]A. H. Maslow, *인간의 동기와 성격,* 송대봉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2), 47-58.

[78]Ibid., 214.

[79]P. E. Johnson, *종교 심리학*, 김관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404-417.

[80]C. Kluckhohn et al., *Values and Values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fication in Talott parsons and Edward A.stil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62), 395.

[81]M. C. Howard & P. C. Mckim, *Comtemporary Cultureal Anthropology* (Little Brown, 1983), 154.

난다.[82]

한국 전통 문화 의가치는 한국인들의 행위와 철학에 영향을 준 종교들 즉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 등 종교의 심성을 바탕으로 두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그들의 삶속에서 융화되어져왔다. 서로 다른 종교와 유교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인의 문화에 전통적 한국인의 가치를 더한 것을 "전통적 한국인의 문화가치(Traditional Korean Cultural Values)"라 부른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치는 우선 공자의 도덕적 및 윤리적 견해에 기초를 한국인의 기본 가족단위는 가부장제도의 기초위에 유지되며 통제 된다.더불어 친족간의혈통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McCune 은 유교의 다섯 가지 인간관계를 분석하면서 한국사정의 양상을 설명한다. 이는 연령, 성, 세대를 기초로 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개념 하에서 전체가 운영 된다.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된다. 셋째, 동생은 형에게 순종해야한다. 넷째, 연소자는 연장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다섯째, 백성은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된다.[83] 한국인의 집안 식구들 사이에 맺어진 혈통관계의 힘과 양심은 그의 의무나 보상 면에서 오늘날 미국의 보편적 가정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다르다. 한국인 가족의 이해는 한국인의 주요 가치관 이해의 열쇠 가되며 이것은 서양의 개인주의와 정반대가 된다. 그 이해의 열쇄는 유학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상금 으로 여기는 효도이다[84] 한국의 전통사회는 가족 중심으로 형성 되었다.가족의 명예나 자존심을 귀하게 여기 고 존중한다. 한 개인이 상식적인 행위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 책망은 그 개인에게는 물론 전 가족, 그가 소속해있는 전체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미주의 동포들은 미국의 개인주의 로 많이 동화되어 미 주류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한인들은 미국에 동화되는 과정에서한국의 전통가정 융화보다는 핵가족으로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다. 결과로 일반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부모와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지고 있다. 이로 인 한 한국적 가치관이

---

[82]C. H.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Maryknoll: Orbis Books, 1980), 46.

[83]S. McCune, *Korean's heritage : A regional & social geography* (Rutuland: Charles e, tuttle, 1965), 72.

[84]M.C. Kalton, *Korean Idea and Values* (Elkins Park: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79), 9.

파괴되고 자아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타산적이며 노인들은 점점소외계층으로 떨어져나가고 있다.

동질성(Isomorphism)이란 집단의 다양한 구성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목적과 가치의 공통분모(commonality)를 말한다. 동질성의 원칙은 사회구조의 각성원이 어떻게 독특한 개인 정체와 집단 정체를 가지는가를 보여준다.

개인의 행동은 집단의 행동을 형성하고 강화해 준다. 요약하면 황동적인 사회 생체 구조는 그 성원의 삶과,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구성원들은 집단의 가치와 목표를 형성하여, 동시에 이것들에 의하여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형성에 여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개인의 행동들은 집단의 가치및 목표와 조화를(동질적) 이루게 된다.

교회 공동체는 예부터 존재와 행위가 복합되어있는 지역구조의 중심지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의 구조들은 생의 확실성과 진리의 안전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대하여 현대화된 시대는 정신요법을 시녀로 거느린 채 새로운 확실성과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과학적 연구애서 진전을 가져올수록, 우리는 점점더 그 반대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과학은 더 이상 확실성을 약속해 줄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다.

심리분석가인 알란 윌리스(Allan Wheelis)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현대의 여명기에 과학이 확실성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현재 우리가 확실성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면 그것은 우리의 추정에 근거한 것뿐이다. 첨단과학도 절대적 진리가 허구 일 뿐이며 마음의 바라는바 일뿐이지 현실적으로 인간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좀 더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단지 현재에는 이러한 실수를 할 준비가 좀 더 잘 되어 있다는 것 뿐이다[85]

세속사회 구조들이 교회의 행위기능들을 많이 넘겨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들은 존재기능들을 계승하고 있지는 못하다. 과학 일반이 그러하고 특히 정신요법이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교회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전인적인 삶(Mental Health)을

[85]Allen Wheelies, *The end of the modern age* (N.Y.: Basic books, 1971), 71.

창조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는 고민하여야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전인적이며, 거룩한 인간을 산출하는 사회구조를 창조해야 하며 그 자체가 이러한 구조이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가족구조는 가족원을 치유하고 돌보게 된다. 교회 공동체의 효과적인 집단은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다.

신앙 안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공동체로부터 도움과 의지함 그리고 서로 협력관계를 통하여 삶을 지탱하여 왔다. 이 공동체에서의 관계는 얼굴을 맞대는 (face to face)관계였다. 한 개인은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구조와 한 가지 혹은 그이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수스만은 "많은 핵가족들이 친족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호 부조와 상호 작용의 체계 속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86] 그리하여 혈연과 결혼에 기초한 대가족 구조로부터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직업, 오락, 종교단체 등으로 형성된 새로운 도시친족 구조로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3. 노년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개발

노인의 사회적 욕구는 소득, 의료, 주택, 교육, 여가, 사회활동, 오락, 스포츠, 교통, 종교 등으로 상당히 다양하며[87],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의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도 특히 의료욕구, 소득욕구, 여가욕구, 사회활동욕구 등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8]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의 사회참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을 포함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여가욕구를,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욕

---

[86]Marvin B. Sussman, "The Isolated Nuclear Family Fact or fiction" *Social problems 6* no.3(1959), 334.

[87]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 복지편람* (서울: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1985), 169-170.

[88]이근홍. *한국재가노인의 사례관리실천모형에 관한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9), 88.

구를,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스포츠욕구를, 또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사회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한편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의 소득을 증진시켜 노후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소득증진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로 질병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노인들이 고독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고독, 역할상실, 정신건강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89] 그러므로 노인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

1) 노인교육과 노인복지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시책·제도·실제를 말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즉, 노인이라는 특수 연령계층의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욕구 수준을 국가책임으로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시책·제도·실제를 총체적으로 뜻한다.

린다 죠지(Linda K. George)에 의하면 노후에 긴장을 가져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90]에 금전적인 능력, 건강상태, 사회보장제도,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교육은 노년교육을 뜻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푸는 기술을 얼마나 잘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교육이다.[91] 이렇게 볼 때 평생교육은 주체적인 자아를 존중하여 주는 인간형성의 차원과, 사회투자적 목적과는 별도로 일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92] 따라서 노인의 교육은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과 노인의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동시에 평생교육 자체가 복지

---

[89]김범수 외, *자원 봉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1), 221.

[90]Linda K. George,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rooks: Cole Publishing Co, 1980), 26.

[91]김성순, *고령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9), 391.

[92]C. Griffin, *평생교육과정,* 김수일 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54.

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노인교육을 노인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볼 때, 이때에는 교육이 목적이 된다. 반면에 노인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때, 이 때의 교육은 수단이 된다. 또 평생교육을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적 부조정, 부적응 등을 교정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인성 함양 교육을 통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결함을 치료·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의 의식계발상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은 두 개의 상충된 규범체계의 공존으로 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모든 연령층은 유교적 규범체계를 내면화시킨 노년층과 주로 서구적 규범체계를 내면화시킨 청소년층, 그리고 두 개의 규범체계를 고루 내면화시킨 장년층으로 층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과 청소년층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집단인 셈이며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문제는 이러한 사회구조에 귀결된다고 하겠다.[93] 이렇게 볼 때 노인교육은 세대 간의 대화를 증진시킴으로써 가족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문화는 노인 스스로 형성해가도록 할 수는 없다. 즉 바람직한 노인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을 비롯한 사회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 시대의 문화는 공유해야 하는 것인데, 각 계층의 문화는 발전하는 노인문화만 뒤쳐져 있어야 한다면 이는 곧 전체 사회의 문화가 균형을 잃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94]

노인문제는 빈곤문제, 건강문제, 고독과 소외문제, 역할과 보람의 상실갈등의 문제들이 상정되는데 이들 문제들은 욕구충족의 단계별로 일어난다. 그러나 언제나 이들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이 빠른 우리나라 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성순[95]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욕구수준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

[93]박재간,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여가의현황과과제*,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제2권 제1호(통권 제5호)(1997 춘계호), 29.

[94]C. Griffin, *평생교육과정*, 김수일 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463.

[95]김성순, 222-223.

①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초 생계에서 나아가 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 앞으로의 노인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하게 될것이므로 자금의 관리 방법, 이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접촉이 필요하게 되며, 재산관리의 경제성. 합리성에 관한 지식을 원하게 될 것이다.

③ 핵가족화로 인해 앞으로의 노인들은 가정으로부터 사회에로의 관심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노인생활의 다양화를 위한 노인교육 등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④ 노인들도 여유있는 생활로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람있는 시간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⑤ 젊은 사람들과의 문화의 격차로 단절현상이 깊어짐에 따라 노인 간의 대화의 모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⑥ 건강과 체력의 유지를 위한 교육, 식품, 영양, 질료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⑦ 노인의 자립의식이 높아지고 가치관도 독립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차츰 바뀌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보람있는 노후설계와 자아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⑧ 건강한 노인들이 앞으로는 많을 것이므로 이들 건강한 노인들이 자기 개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 할 것이다.

⑨ 고학력화, 정보사회화 그리고 개인주의의 발달과 개성의 추구가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노인도 사회에 알맞는 각종 취미, 오락, 생활환경, 조건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욕구수준이 단계별로 변함에 따라 대응수단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연금 등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는 고학력 고령자들은 예술·문학·공예 등 문화적인 활동을 계속하려 하고, 젊었을 때의 전문직의 일들을 계속 해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더욱 커지게 되면 노인문화가 형성되고 노후세대를 위한 노인교육의 향상 그리고 사회참여가 형성되게 된다. 즉, 노인들도 생활의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를 갖게 된

다.[96]

Ward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카드놀이를 하는 노인보다는 활동적인 일에 참여하는 노인이 생활만족도도 높았고 건강상태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도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다.[97] 우리나라의 노인들도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학습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노인이 27%였고, 건강관리를 위한 체조클럽 같은 모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노인이 21%였다. 또한 20%의 노인은 대화 상대를 원했으며, 13%의 노인은 관광여행, 그리고 4%의 노인은 사회봉사활동의 기회가 부여되기를 원했다.[98] 노인교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보아 노인 교실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인여가 프로그램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99]

최근 사회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나타내는 노인비율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노인층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대학 강의에도 노인들이 청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100]

미국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적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대개 이들 강좌는 노인의 요구 및 흥미에 따른 강의중심으로, 이는 비학위 코스로 제공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은 교육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수업료가 공제되거나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학점없이 정규과목을 청강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고유한 동년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퇴직, 배우자 상실, 우울 등 노년관련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

[96] 김성순, 221.

[97]R. A. Ward, "The meaning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to Old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1979), 34, 438-445. 박재간, 17에서 재인용.

[98] 박재간,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여가의현황과과제,* 제2권 제1호(통권 제5호)(1997 춘계호), 38.

[99]Ibid., 39.

[100]박재간, “이스라엘 노인문제의 현황과 복지정책”, 한구노인문제연구소 편, *외국의 노인 복지정책* (서울: 도서출판 동인, 1996), 22.

가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다.[101]

일본에 있어서 노인교육은 「고령자의 사회참여·삶의 보람 관련사업」에서 행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련된 사업으로 주로 교육, 친구 만들기, 교류, 능력개발, 스포츠 · 레크레이션 등 여러 종류의 사업종목이 있고, 그 외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의 명칭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사회참여·삶의 보람 활동의 대책은 범위가 넓다는 특징 때문에 종합화되어 운영되지는 못하고 교육행정에서 실시되거나 후생행정·농림행정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102] 캐나다에서 1988년부터 시작된 Seniors Independence Program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노년기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건강,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학부과정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및 각종 학교를 통해 은퇴 후 교육, 역사, 음악, 미술, 관광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캐나다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65-74세 노인 중 15%정도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103]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교육의 교육과정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①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형 ② 인력개발형 ③ 의식함양형의 사회교육과정으로서 구분된다.[104] 그러나 노인교육에 있어서는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에 치우쳐 인력개발이나 의식함양을 등한시 해 왔다.

앞으로의 사회교육과정은 보다 넓은 교육대상 층에게 보다 심층적이며 체계적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적 성장은 물론, 사회변화에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의식 함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장 중시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105]

---

[101]원영희,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및 미래," *노인 여가의 현황과 과제*, 제2권 제1호, 통권 제5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춘계호), 91.

[102]김용택, "일본노인복지의 동향과 과제," Ibid., 149.

[103]모선희, "캐나다의 노인현황과 복지정책," Ibid., 170-171.

[104]최운실, "한국성인교육의 실상과 미래지향적 발전과제", *교육연구* 31(4), 332-339, 한상길, "21세기를 대비한 사회교육 체제 개선방안" *사회교육학연구,* 제3군 제1 (1997), 116.

[105]한상길, "21세기를 대비한 사회교육 체제 개선방안,"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여가의현황과과제*, 제2권 제1호, 통권 제5호 (1997, 춘계호), 117.

4. 노인 해방을 위한 다목적 대안 공동체

성서적인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해야한다.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은 그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교육(Imitating Image of Christ)"(엡 4:13)이라면 일반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 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반교육에서는 각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선생은 옆에서 개인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자의 역할을 (facilitater)한다. 이것은 개인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이며 과학만능주의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자연과학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하였으나 전인간적인 인간 교육에는 실패를 하였다. 특별히 현대교육에서 인간의가치관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더 인간성을 상실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기독교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교육의 절대적인 내용이 되며 그 외의 어떠한 내용도 가설도 성경을 빼놓고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업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Arnold Toynbee,1852-1883)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한때 영화를 누리다가 사라지곤 하였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민족의 세 가지 특성은 첫째, 자기 민족의 고유문화전수. 둘째, 강인한 정신력, 셋째, 온 민족의 굳센 단결력이다”라고 하였다

성서적 사용을 교육이념에 도입하여 교육하는 민족은 유대인이있다 그들은 성서 교육을 통하여 세대 간의 차이가 나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약 4100년간의 역사 속에서 대동소이한 사상과 분화를 이어오고 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인 근본사상이나 철학에는 세대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날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의 가치관 민족관 사회관 노인 공경 세대간의의 차이를 극소화하기위하여 성서적 교육이 절실하다.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 지도자 양성에는 양적(Quantity) 질적(Quality)인 것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특별히 노인들에게 새로운 세상과 변화되는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스스로 개척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양을 배양하기위하여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속으로 동화되어 살아고 있으나 진정한 미국인도 아니고 또한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가 좋은 것만 선택하여 살아가는 미주 한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이다. 세속 문화에 물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현지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

부모 교육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배움은 지식으로 아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 적용 해야 한다. 또한 미주 교포들에게 맞는 교육방볍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106]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명한 것이다. 성서는 왜 네 자녀에게 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 가르치라는 말인가? 가르치는 선생은 부모가 마땅하다고 성경은 명한다.

성서에는 가정이 작은 성소(a tabernacle)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소의 제사장은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르쳐야할 의무가 있다. 이 뜻은 교육의 첫 번째 의무를 갖는 사람은 부모라는 뜻이다. 미주 교포들은 이제라도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하겠다.

교회는 노인들을 즉 건강한 노인과 연약한 노인 모두에게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경륜과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연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나머지 생애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내세를 준비하도록 돌봐주어야 한다.

1) 건강한 노인의 경륜과 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누구든지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사회적 활동에서 물러나기 마련이다. 은퇴란 인

---

[106]신명기 6:7.

생의 후반부에서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양하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성숙형, 일생동안 지녔던 무거운 책임에서 해방된 시기로 받아들이는 은둔형, 계속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 무장형, 지나치게 비통해하는 분노형, 그리고 자신의 무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후회하는 자학형이 바로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의 역할 상실로 인해 다가오는 경제적 문제와 자존심의 손상이라고 했다. 이러한 고통은 남성 노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겪는 노인들에게 은퇴 후의 심리적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들은 여생을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자아감을 확대할 수 있다.
-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 정서적 안정과 자기 수용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
- 현실적 인지능력과 기술을 습득한다.
- 자기의 객관화와 통철 및 유모어를 갖게 만든다.
- 통일된 인생관을 확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능력이 쇠퇴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생산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회는 물론 노인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다. 교회는 건강한 노인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경륜과 여가 활동을 위하여 교회는 자체의 인적, 물적 조직적 자원과 시설자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들이 그들의 경륜과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첫째로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선 교회의 유효 공간을 노인 공간화 하여 교인은 물론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교회는 노인들이 주로 낮 시간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마련하고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사회봉사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봉사를 목적으로 한,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한 프

로그램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는 전도와 심방 협조, 상담자원 봉사, 교회 행사의 지원, 청소와 조경 등에 참여 등의 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또 하나는 성지순례, 고적답사 여행, 원예활동, 서예활동, 생활용품 만들기, 사진 찍기, 음악 감상, 스포츠, 신앙 간증 발표회 등의 취미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교회 내 여가 선용 프로그램은 교역자와 노인 지도자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계획되어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노인집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노인학교나 노인 대학의 운영을 들 수 있다. 노인학교에서는 노인의 종교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 교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다가오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본적인 생활 정보를 교육시켜 노인 자신들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가르쳐야 한다. 노인학교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교회 노인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선교의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 능력은행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풍부한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가장 적합할 것이다. 노인들 중에는 은퇴한 교육자나 법률가, 의사에서부터 각종 기술직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길 바라는 노인을 연결 지어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여 유효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연약한 노인을 보호하는 복지프로그램

교회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그들의 경륜과 유효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나머지 생애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내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교회가 노인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할 때,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하드웨어측면에서는 교회의 건축물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예배 처소에 출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 보호적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약한 노인들에게 보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호적 프로그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조직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경노효친과 노인 부양의식을 가지고 교인간 상부상조는 물론 이웃들에 대한 섬김의 정신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우선 교인들의 선의를 동원하여 무의탁 노인과 연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안방문 및 상담프로그램의 실시를 생각할 수 있다. 가정을 심방하여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들어 상담 해결을 주고 문안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겠다.

둘째,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지도하여 내세를 준비하게 도와주고 그들의 생애를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노인 간병서비스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중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교인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도울 수 있다.

넷째, 탁노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탁노소란 거동이 불편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노인을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섯째, 노인결연 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교인가정과 결연시켜 다음과 같은 것을 도울 수 있다. 장보기, 취사, 세탁,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에게 용돈 후원, 이, 미용 서비스, 가사와 관련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를 잘 알고 이끌 수 있는 전문 지도력과 교회 내 후원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해야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아낌을 받을 때 성장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의 처해진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을 하며 문제해결에 동참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사회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기 방향을 설

정해 주고 전문 지도자나 교인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교회 내 전문 지도력의 확보 방안은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 봄직 하다.

첫째, 제직이나 교인들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들을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지도자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 중진들을 연수시켜 그들에게 지역사회와 노인 복지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가 소속 교단의 신학대학 출신의 사회사업 전공자나 전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립된 교회들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를 잘 알고 이끌 수 있는 전문 지도력과 교회 내 조직적 후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이러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켜 전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응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전문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

Ⅵ. 과제의 실제

1. 실버 미션. 의식의 변화

“기독교 신자들에게 영성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 흔히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온다. “신비체험,” “경건생활,” “은사,” “능력,” “방언,” “Q. T,” “기도,” “금식,” “단순한 삶,” “소명감” 등과 같은 이미지로 대답을 한다. 물론 영성(Spirituality)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여 한 마디로 정의하여 이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독교 영성의 일반적인 특징은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버나드 맥긴(Bernard McGinn)은 “기독교 영성은 일반적인 형태로든지 특별한 형태로든지 간에 기독교 믿음 안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이다...”고 한다.[107] 또 기독교 영성에 대하여 제랄드 메이(Gerald May)는 이렇게 표현했다. “각 개인의 자아가 좀더 고차원적인 어떤 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기도 혹은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관계를 표현할 때 비로소 이 영적인 반응을 종교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종교적인 영성의 부분집합인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내주 하시는 성령에 의해 가능해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108]

일반 영성과 달리 기독교 영성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초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실버들의 영성이 하나님과 좀 더 깊고 밀접한 관계로 나가는 영적 성장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품성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르게 되면서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된 행동보다도 변화된 마음 이 충만 하여지기를 기대한다.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 영성체험에는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한다. 영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

---

[107]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9), 16.

[108]Gerald May, *Will and Spirit: A Contemplative Psych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2), 33.

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격의 통합을 위한 기준점을 찾아야 한다.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에 대하여 오성춘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영성이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성령은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아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고전 2:10, 히 4:12-13). 성령은 낡은 사고를 깨뜨리고, 우리의 사는 방식과 목표의 수정을 강요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주며 거룩의 현존으로 인도해 주신다.”[109] “기독교 영성은 한 인간의 정신을 본받을 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배우고, 그 분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사귐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영성이다.”[110] 즉,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인 교제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유해룡 교수는 “기독교 영성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와 그 경험을 총칭한 기술적인 용어”[111] 라고 함으로써 영성을 성령의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오성춘 교수의 영성에 대한 이해는 홈즈의 견해에 기초하여, “첫째로, 기독교 영성은 관계성이다. 동양적인 영성의 주류가 인간의 성품의 수양과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기독교 영성은 인격적인 초월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강조한다. 둘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은 초월의 체험을 가져오며 새로운 의식, 의식의 확장, 새 삶의 출발 등의 전환을 가져온다. 셋째,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체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구체적인 역사 현장 가운데서 구현시켜 나간다.”[112]고 정의했다.

벤 존슨(Ben C. Johnson)은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와서 신앙 공동체

---

[109]Ann Ulanov박사가 한국목회상담학회의 초청으로 “위니캇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2002년 10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강연 자료집 19.

[110]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3), 49.

[111]유해룡, “다시 생각해 보는 기독교 영성훈련,” *교육교회* (1993. 9.,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30.

[112]오성춘, 70.

안에서 조정되고 형성되며, 자신의 궁극적인 목회를 위해 일하는 그 시대, 그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113]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성의 출발선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은성수도원을 창설하고, 기독교 영성 연구와 실천의 삶을 살았던 엄두섭 목사는 영성생활을 유한한 인간이 초월적인 실재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려는 생활로 이해를 했다. 그는 영성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 곧 하나님과의 사귐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생각했다.

영성의 다양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Urban T. Holmes는 그의 저서 영성과 목회(Spirituality and Ministry)에서 다섯 가지 요소로 된 영성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영성은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보편적 능력이다. 둘째는 그 관계는 감각의 현상세계를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 나아간다. 셋째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성의 경험은 의식의 확장과 고양성을 획득한다. 넷째는 이 관계는 역사적인 환경에서 그 본질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 관계적 인식의 확장과 고양성은 세계 속에서 창조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홈즈의 정의는 초월적인 실재와 인간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홈즈 는 인간에게는 초월적인 실재와 관계를 맺으려는 본성적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가 이 세상의 감각적 실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성령님과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고 강조한다.[114]

홈즈가 영성의 관계성을 강조한 반면에 노먼 샤우척(Norman Schawchuck)은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 영성은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다.[115]

그는 영성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주 예수님

---

[113]Ben C. Johnson, *목회영성,* 백상렬 역 (서울: 진흥, 1995), 33.

[114]Urban T. Holmes, *목회와 영성*,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1-19.

[115]오성춘, 50.

과의 관계의 삶이다. 둘째, 이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적인 실재이다. 셋째, 이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대가로 주는 보상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총체적인 회복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총체적 회복이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회복, 윤리적인 삶의 결단, 공의실천을 통한 사회참여와 샬롬공동체의 회복 등을 의미한다. 특히 그의 관심은 성령으로 변화된 영적인 성품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 계발된 성품과 삶의 변화에 있었다.

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보다 가난한 자와 함께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과 사회참여를 더 강조했다. 이러한 샤우척의 정의는 홈즈의 정의와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홈즈는 초월적인 실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영성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러한 본성적 욕구가 초월적 실재와 관계를 맺음으로 영성이 개발된다는 인간의 측면을 강조했다. 그 반면에 샤우척은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어 인간을 새롭게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홈즈와 샤우척은 반대의 방향에서 영성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출발점과 강조점은 서로 다른 반면에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영성의 실재는 같은 것이다. 즉, 그들은 모두 영성이 '초월적인 실재인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성'이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버들의 영성을 위하여 경험되어지는 삶을 체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영성훈련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훈련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실버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참여활동

실버들의 영성교육을 시행 하기위하여 뉴저지 실버미션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116]

먼저 모집대상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실버미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은퇴 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교육 기간은 2010년 8월 23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00-10:00 pm에 실시하고 교육 기간 과 방법은 11주 이론교육과 1박 2일의 특별 영성수련으로 하며 교육수료 후 중남미의 과테말라로 6박 7일간의 단기 선교실습을 실시한다.

그리고 목회자 와 각 분야의 전문인, 평신도들로 믿음과 삶이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강사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하기로 하였다.

첫째는 8월23일에 개강예배로 이영승목사가 인도하며 누가복음 2:25-38을 본문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김도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박성길 장로가 기도하며 정철헌 목사가 축도를 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 박노식 장로가 본 Silver Mission을 소개하는 Orientation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에 신점호 장로의 안경사역을 소개하고 실버 미션의 설립동기와 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사역 방향및 동역자로의 초청과 중남미 지역에서의 안경의 필요성과 시력검사, 난시교정, 돋보기 등의 8주간의 교육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8월 30일에 선교의 동향(이성일 목사 담당)으로 초대교회(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로마와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한국을 거쳐 세계의 현재상황과 우리의 자세, 21세기의 세계교회의 동향, 실버들의 선교전략과 기회를 강의하고, 후에 한방사역과 사진 교육, 선교지에서의 한방 치료사역의 효율성과 사진사역의 유용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세 번째 교육은 9월6일에 실버들의 영성(김용철 목사 담당)하여 미주교포들의 신앙점검과 영성의 바른 이해, 바른 영성 확립위한 교육과 자세를 강의하고 후에 중남미의 언어인 :스페니쉬 회화 교육(간단한 용어)를 교육하였다.

네 번째는 9월13일에 '나의 하프타임을'(양춘길 목사)의 제목으로 은퇴의 삶을 생각하여보며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생의 가장 가치있는 삶에 대하여 강의하고 후에는 북한 선교의 현실(김호진, 박성길 장로)로 북한에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강의하며 다양한 접근사례와 제시하였다.

---

[116]이 모임은 2010년 7월 28일 수요일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 시무)에서 있었다.

다섯 째 날은 9월 20일에 실버 선교사의 현지 적응(김현영 선교사, 콰테말라, 꼬방지역)의 제목으로 축적된 직업의 경험과 미주에서의 이민의 삶이 큰 장점. 자비량 선교의 장점을 강의하며 중남미 선교(임대기 전도사)에 관하여 중남미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선교사와 한인교회와의 Network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여섯째 교육은 9월24-25일에 라마나욧 기도원에서 김귀만, 정철헌 목사가 찬양이 주는 복음전도의 효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역과 성령의 인도함에 대하여 교육하고 집회를 통하여 영성훈련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합심기도 및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일곱 번째 교육은 9월27일에 선교의 글로벌 시대(김재성 목사)의 제목으로 지구의 가족화 와 선교, 성경에서 이민자의 삶과 복음, 실버선교사의 장점에 대하여 강의하며 스페니쉬 교육으로 4영리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여덟 번째는 10월4일에 윤명호 목사께서 '가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지역교회와 단기선교 - 성경에서 살펴본 성서적 배경, 선교의 정의, 선교 훈련의 필요성. 주의 할 점과 효과적인 선교에 대하여 교육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박수경 선교사가 아프리카 말라위의 선교소식과 비젼, 사역의 방향과 지역교회의 협력 방법, 실버들의 참여방법과 사역 제시하였다.

열번째 교육은 10월11일에 여성 선교의 전망(최현림 목사)에 대하여 성경속의 남녀의 위치, 한국인의 가치관, 지도자로서의 여성, 기독교 여성사역자의 역사와 선교사의 필요성과 장점을 교육하고 후에 인관일 선교사께서 미얀마의 사역상황, 미전도 종족 의 복음화를 위한 전략 등 이슬람 선교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열한 번째는 10월18일에 콰테말라 꼬방의 김성남 선교사께서 '선교지 에서의 원주민 선교전략'을 제목으로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현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겸손한 자세와 복음과 지도자들의 교육과 양성의 시급함에 대하여 강의하고 그 후에 스페니쉬로 4영리와 회화를 공부하였다.

열두 번째는 10월25일에 이영승 목사께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으로 세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을 사용하여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동참, 한인 이민자들의 연합에 대하여 강의하고 계인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의 진료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필요성, 보건교육의 필요성. 주의사항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열세번째는 11월 1일에 종강예배를 드리는 날로 양춘길 목사께서 '석양의 아름다움 과 실버 동창들과의 교제'에 대하여 설교하며 11월9일부터 15일에 실행한 단교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가졌다.

3. 구조변화

1) 주님의 인도함

교육을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인내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셨다. 특히 함께하는 경우에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117]

2) 영적지도자의 필요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하여도 영적 인도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영적인 인도자는 역사적으로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존경을 받았다. 영적 인도자의 목적에 대하여 17세기 베네딕투스라의 신비주의자 돔베이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간단히 말하여서 그는 유일한 하나님의 안내자로 영혼을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118]

영적 인도자의 안내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에게로 안내하여야한다. 영적 인도자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3) 영적지도자의 인품

[117]마태복음 18:19-20

[118]Thomas Merton, *Spiritual Direction and Meditation*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60), 12.

영적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수용할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 자신의 삶 전체에 진정한 성숙이 스며들어 있어야한다. 시간이나 주위의 환경적 영향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위의 이기주의와 편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하며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Merton은 영적 지도자는 '영적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적 아버지는 첫째로 가르침으로서 기도와 성결과 모범으로서 그의 제자의 영혼 속에 완전한 생명을 낳는다. 영적 스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재 하신다는 '상징' 이다."[119]

4) 그리스도안의 기쁨

그리스도의 길은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시작되었다(눅4:18-19). 구약성경의 희년의 모든 사회적 규정은 부채의 탕감,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일, 땅을 쉬게 하는 일, 재산을 되돌려 받는 일이 이행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을 때,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될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얻을 때,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때라고 하였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때 찬양의 기초를 이루는데 이 시대에는 근심이 없는 즐거운 축전이 부재하다. 무관심과 침울함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하비 콕스는 "현대인은 이해타산에 너무나도 눌려있기 때문에 황홀한 축전의 즐거움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고 하였다.[120] 기뻐함은 '영적 훈련' 에 있어서 핵심인 것이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5) 삶과 순종.

기쁨에 이르는 길은 영적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다.

---

[119]Ibid., 9.

[120]Harvey Cox, *The Feast of Foo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12.

4. 노인 영성기도훈련.

1) 일터의 영성

좁은 의미에서 영성신학이란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등장하는 신비가들이나 금욕수덕가 들의 영적 체험, 즉 그들이 체험한 하느님을 향한 내적 성숙의 여정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인간의 삶을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신체적 혹은 심리적 모습의 변화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하듯이, 인간의 내면의 모습, 즉 영적 영역에도 어떤 성장의 여정이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고전적으로 인간을 영혼과 육신의 합성체로 파악했고, 영혼이 성장해 가는 단계를 정화의 길(*purificatio*), 조명의 길(*illuminatio*), 일치의 길(*unio*)의 세 가지 길(Tripple Ways)로 나누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정교하게 신학화하였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인간의 영혼이 자신의 이기적 욕심에서 말끔히 정화될 때야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적 사물에 대한 깊은 인식을 얻는 조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깊이 일치 할 수 있다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영성신학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의 거장들이 남긴 신학적 문헌들을 바탕으로 다루어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 삶과는 거리가 먼 듯한 인상을 지니게 되는 약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성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질문은 "과연 이러한 내용과 가르침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를 전해 주고 있는가?"일 것이다.

삶의 복잡함과 분주함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하고 싶어 하는 열망에서 오는 것이든, 요즈음에는 많은 이들이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풍조가 그리스도교 영역에서는 소위 '영성'이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단어로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단어이다. 비교적 정적인 입장에서는 "영혼이 지니는 품성"이라는 의미로부터, 동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 체험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양상"이라는 의미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영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활, 혹은 하나님의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면서 그 의미가 점차 삶과 연관되어지면서 "인간의 총체적 체험의 의미를 명상과 성찰을 통해 살펴보는 추구로서, 인간 삶의 현장인 이 세상과의 연관 속에서 계속되는 인간의 총체적 체험의 의미를 명상과 성찰을 통해 살펴보는 추구"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가 우리의 행동, 생활양식, 타인과의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주로 개념과 사상을 다루는 사변 신학과는 혼동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물론 영성이라는 언어가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나, 단지 가톨릭 전통 안에서만 국한되어서 이해 될 필요는 없다.

인간 실존의 영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그 실존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의미하며, 그러기에 단지 특출한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영역은 아니다. 교회의 전통 안에서 영성 사상을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자료들은 대단히 풍부하다. 영성의 대가들은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저술했는가? 그들의 영성의 특성을 표현하는 양식은 무엇인가? 등의 관심을 지니고 주어진 자료들을 연구해야 한다. 기도하는 양상과 믿는 양상(*lex orandi, lex credendi*)과는 깊은 상관 관계가 있기에 영성의 연구에 있어서는 전례의 양식, 즉 장소, 건축, 성당 구조, 전례 도구, 성화, 예절 종류, 음악 등 뿐 아니라, 성서와 전통, 기도 양상, 행동 양식, 신심 행위 등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신체적(biological), 심리적(psychological), 영적(spiritual) 등의 세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묘사한다. 영성이란 특별히 인간의 영적 수준의 존재 양상에 우선적으로 관심 하면서, 다른 두 수준의 존재 양상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인간 내면의 세계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고 있는가? 의 질문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체험 혹은 하느님 체험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살고 증거 되는 모습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프락시스(praxis), 즉 영성이란 "체험(experience)과 성찰(reflection)이 교차하는 역동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성찰

(reflection)이란 마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다양한 체험을 돌이켜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다른 면에서 영성을 '실천적 영적 지혜(practical spiritual wisdom)'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늘 그러하듯이 아는 것(知)과 사는 것(行)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발생한다. 이 둘 사이의 긴장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도가 소위 말하는 '사도적 영성'의 주요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어떠한 체험도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구체적으로 하느님 체험에서 흘러나오는 '행동 양식(*modus procedendi, way of proceedings*)'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본 맥락은 '공동체'이고, 이것의 신학적 표현이 '교회'이다. 공동체란 성서와 사도들의 전승과 역사 안에서 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전통을 물려받아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그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신앙'을 지니지는 못한다. 신앙이란 전통을 통해 전수 받은 것이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의 전통을 통하여 전수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과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수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생한 신앙 체험이 바로 전통의 올바른 의미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행위의 원천적 자료는 성서이며, 그 성서가 전하는 의미를 그 역사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질 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통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 쇄신운동을 영성적으로 고찰한다 함은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변하는 기도, 인간관, 공동체, 행동 양식 등의 주제가 각 쇄신운동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말인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모든 신앙 체험 즉 하느님 체험은 회심 체험이며 동시에 소명 체험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 교회내의 신앙 쇄신운동은 어떠한 맥락에서 하느님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가? 그 신앙 쇄신운동이 추구하는 영성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 쇄신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적 양성에 얼마만 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과연 이에 합당한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들이 교회 내의 여러 신앙 쇄신운동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영성 생활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생활을 말하며, 그 결과로서 이 현실적인으로 맺어진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생활 역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생활 가운데에서 그 결과로서 성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확실한 교제의 길은 기도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부탁하였다. 그 동안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말씀은 사도바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도 이 일을 실천하셨고, 한시도 쉼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유지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좀 더 열심있는 기도생활을 권고하노라면 바빠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대답한다.

예수님의 삶을 현대인의 삶에 비교할 때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는가? 그 분의 삶은 누구 못지않게 분주 하셨다. 그에게 현대적인 의미의 직업명을 붙여준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설교가, 전도자, 의사, 교육가, 사회사업가, 상담가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쉼없이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했다. 그러한 분주한 삶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성생활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

첫째, 예수님은 자연을 관조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익혀갔다. 대자연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곳곳에서 뛰고 있는 생명의 숨결, 생명의 신비 등을 관조했다. 그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경이로움을 가지셨고,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로부터 새가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꾸밀 만큼 큰 나무로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비밀스런 신비로움을 맛보았다. 공중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까지도 여상하게 보시지 않았다. 시중에 나가면 몇 푼만 주면 몇 마리라도 살 수 있는 그 보잘 것 없는 그 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마음 깊이 관조했다. 예수님은 그 아름답고 신비한 관조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저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예술

가적인 감각을 뛰어 넘어, 저들을 저렇게 돌보고, 저렇게 아름답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누구신가를 관상(contemplation)했다. 그러한 관상적인 삶은 곧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깊으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한 낱 미물에 불과한 이런 것들을 저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더 클까라는 생각까지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생생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연에 대한 자연스런 관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마음의 교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의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소한 경험이나 환경이나 물건들을 의미없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인간들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하나의 도구나 환경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깊은 통찰력과 그 내면에 숨겨진 비밀스런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한 닢(눅 15:8)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애닯은 마음을 읽었다. 그 마음속에서 곧바로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는 성부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을 연상시킬 수 있었다. 말 아래 놓인 등불(4: 21)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등불이란 모든 곳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켜두는 것인데, 그것을 숨겨지도록 말 아래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어리석음이 바로 깨우침이 없는 무심한 인생들의 행위로구나 라는 것을 갈파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했을 것이다.

마을 광장에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 어린이들과 또 애곡하는 모습(마 11:17)을 보셨다. 피리를 부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요, 애곡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흥이나 슬픔의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들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 하셨다. 마음으로의 느낌은 곧 하나님에게로의 기도요 불쌍히 여기는 중보의 기도였다. 잘 못 기워진 옷(막 2:21)을 보고, 부대를 잘 못 선택해서 터져 버린 포도주의 부대(막 2:21)를 보고도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었다.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

은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관습적인 행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 하셨다. 그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다. 일상적으로 들려지고 보여 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성적인 진리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었다.

세 번째, 그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시곤 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이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곤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미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예를 들자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막 1:32-34) 난 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베푸시고 난 후(마 14:23)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추측컨대 이미 행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셨을 것이며, 동시에 이 엄청난 사건을 치루신 후의 당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시고 반추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겸손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셨다. 돌아와야 할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게 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 누가 복음에 보면 이 성을 보고 우시며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19:41-42)." 민족을 향한 뼈아픈 기도였다.

네 번째, 이미 앞에서 언급한대로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를 좋아하셨다. 특출한 예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사건이다. 광야로 나가 40주야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 그 기도는 가히 치열한 싸움이요 전쟁이었다. 모든 죄악된 인생들의 심령 속에 내재된 불타는 욕망을 몸소 체험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몸소 보여 주셨다. 지독히 끈적거리도록 붙어다니는 물질의 욕망, 권력의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등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력화 하는 영성생활이 바로 40주야의 금식기도였다. 그 때 성부 하나님은 부재중에 그곳에 임재하고 계

셨다. 마침내 그 싸움은 승리로 끝났음을 마 4:11절은 말하고 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고 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면의 싸움들을 하는 동안 언제든지 이미 주어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셨다. 그 말씀은 내면의 싸움을 이기는 무기였으며 동시에 기도의 참소제이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광야를 찾고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은 바로 소란스런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이요 준비였다. 현대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의 하나인 Thomas Merton은 “그대가 내적인 고요함을 획득하면 그것을 세상 어느 곳이라도 지니고 다니면서 아무데서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도 외적인 고행이 없이는 내적인 금욕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외적인 고요함도 없는데 내적인 고요함을 논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당시의 현실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하고, 복음의 메세지를 확신있게 전하기 위해서 늘 내적인 고요함과 평화가 필요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리 과격한 논쟁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것은 바로 한적한 기도의 훈련 속에서 얻은 항구적인 평화요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진실로 예수님은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시지 않으셨다. 모든 세상이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이요 신비였다. 그 분의 성품과 흔적이 가득히 담긴 풍요로운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내면에 숨겨진 신비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만 오용하고 탐하기에 세상이 혼란케 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세상 속에서 영성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셨다. 그래서 그는 이 혼란한 세상 한 가운데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abba)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비결이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생활 속에서 참으로 훌륭한 영성생활의 길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진리는 가까이에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사실 과거의 많은 과학적인 진리가 바로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되었다. 누구나 경험하고 대소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 속에 영원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도, 물의 부력의 법칙도, 증기기관차의 원리등도

누구나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진 진리였다. 뉴우튼이나 아르키미데스나 제임스 와츠 같은 사람들은 그 사소한 순간을 놓치지 숨겨진 진리를 포착해냈다. 그것을 깨어있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도처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발자취와 그 비밀을 느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성생활을 다른 말로 깨달음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생활 대부분은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것이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다. 이미 경건한 이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리기 쉬운 것은 우리가 성(聖)과 (俗)을 너무나 날카롭게 구분함으로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진리를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자연을 대하되 자연을 지으신 분의 눈으로 자연을 관조하고, 사람을 대하되 사람을 지으신 분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건을 대하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려는 깨어있는 통찰력을 키울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을 곳곳에서 들이쉬게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고한대로 누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영성인이 될 수 있다.

2) 영성의 일상화

여기에서 3가지영성훈련을 소개하게 된다. 첫째는 거룩한 독서를 통한 독서법, 둘째는 관상기도, 세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기이다.

(1) 거룩한 독서를 통한 기도법 - 렉시오디비나(*lectio divina*)

거룩한 독서를 통한 기도 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기위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기도 법은 물론 말씀읽기와 명상을 함께하는 영성수련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고 명상한 다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유해룡은 이러한 방법의 기도에 대해서 “16세기에 활동한 로욜라의 이냐시오(Ignatius of Loyola),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 십자가의 성 요한(John of the Cross)등이 관상기도라는 특별한 유형의 기도법을 말하기 이전의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관상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21]

거룩한 독서를 통한 기도법 *Lectio Divina*의 네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lectio*(렉티오), 즉 읽기이다. 이 단계에서 수련자는 성서를 읽는다. 정해진 텍스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읽기'의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듣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지만, 읽는 가운데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둘째 단계인 "*meditatio*(메디타티오)" 명상하기이다. 이 단계는 읽기 단계에서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았던 단어나 문장 혹은 구절을 입으로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것이 수련자의 삶과 공동체의 상황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반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수련자는 "본문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반추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oratio*(오라티오)즉 '기도'의 단계이다.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이다. *lectio divina*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와 명상하기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주로 말씀하시는 분의 역할을 하였다면, *oratio*(오라티오)의 단계는 우리가 그에 대하여 응답하는 기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contemplatio*(꼼템플라티오, 관조)는 *lectio divina*의 마지막 단계이자 *lectio divina*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수련자가 하나님과 일치를 체험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단계를 지칭한다. 앞의 읽기와 명상 그리고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들은 바의 것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명상하고, 말씀의 빛 아래로 자신을 내어놓는 간구를 드린 후, 수련자는 이제 관조의 순간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품안에서 안식하게 된다. 하나님의 변형시키는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맛보는 단계이다.

*lectio divina*의 절차와 유의점에 대하여 유해룡 교수는 다섯 가지로 말해주고 있다. 첫째, 기도하고자 하는 본문을 정한다. 초보자에게는 공관복음서가 좋다. 둘째, 방

---

[121]유해룡, *하나님체험과 영성수련*, 262.

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택한다. 셋째, 내면적으로 초점이 맞추어 졌으면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선택한 말씀을 읽는다. 넷째, 끝날 때는 기도동안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 밖으로 나온다. 다섯째, 기도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반추한다.[122]

(2) 관상기도(Contemplative Prayer)

관상 기도에 대하여 유해룡 교수는 "관상기도는 보통 거룩한 독서를 통한 기도를 정기적으로 훈련함으로서 이루어지는 발전적인 모습이다"라고 한다.[123] 거룩한 독서와 관상기도는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다. 거룩한 독서보다는 관상기도가 좀 더 복잡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관상 기도는 생각과 말과 감정들을 뛰어넘어 궁극적인 실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성과 감성이 전인적으로 활짝 열려진 상태이다. 믿음에 의해서 알려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인식활동이 활짝 열려져 있을 때 그것이 곧 관상의 상태이다.[124]

유해룡 교수는 로욜라의 이냐시오의 관상기도의 절차와 유의점에 대하여 일곱 가지로 말한다. 첫째, 기억력과 이해력과 의지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성경말씀을 선택한다.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사복음서의 사건을 택하는 것이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같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쉬며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조준한다. 넷째, 이미 선택한 말씀이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천천히 여러 번 깊이 읽는다. 다섯째, 이제 그 성서의 사건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라. 여섯째,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윤리적인 결론을 내거나 투쟁적인 과정 없이 그 사건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섯째, 기도가 끝난 후에는 반추를 한다. 일곱째, 반복 기도를 한다.[125]

관상기도의 구조는 첫 번째, 내적인 고요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기도 5분.

---

[122]Ibid., 262.

[123]Ibid., 264.

[124]Ibid., 265.

[125]Ibid., 264-271.

두 번째, 주어진 기도자료 읽기 10분. 세 번째, 기도시간 50분. 네 번째, 반추와 기록 15분으로 나눈다. 주의 할 점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막히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느낌, 마음, 가슴을 따라 가도록 하고, 사변(분석, 머리)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3)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거룩한 독서를 바탕으로 Q.T의 단점을 보완하여 평신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의 강점은 첫째 기도가 반복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으로 같은 말씀 일지라도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그 맛과 깊이를 알 수 가 없다. 처음 하는 분 중에 어려움을 느끼면 지도자의 안내를 필히 받도록 한다. 둘째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말씀에 확고한 믿음과 기도 어우러져 확실하게 기억하고 오랫동안 간직 할 수 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하심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126] 넷째로 나의 마음속 깊은 아픈 상처, 또는 아주 오래된 잠재된 상처. 편협된 잘못된 신앙의 뿌리까지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한 묵상훈련방법이 잘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지도에 잘 따르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믿고 씨름하고 실천하면 보화를 깨내게 될 것이다.

5. 미래 목회비젼

1) 어디에서 살 것인가

고령 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와 점점 더 소외당하는 노령의 회중들에게 사회학적,

---

[126]히브리서 4:12.

심리학적으로 만족감을 최대한 영유 할 수 있는 건강한 목회 계획이 있어야하겠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건강한 사회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인간의 건강을 "허약함과 질병의 부재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라고 정의 하였다.[127]

사람의 건강한 생활 경험에 관한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정서(Affect), 만족(Satisfaction), 긴장감(Feeling of strain)이라고 Cambell은 말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Cambell의 개념은 세 가지 기본 욕구의 만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첫째,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거나 얻고자하는 물질적 만족의 욕구. 둘째, 사회적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 셋째 자아성취 에 대한 욕구이다.

이러한 행복들의 개념 속에서 심리학적 만족감에 대한 주관적 지수는 사회적 만족감에 대한 객관적인 지수보다 인간 생활의 질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음을 증명 되어지고 있다.[128]

2) 누구하고 살 것인가(영적 만족감이 충만한 목회)

영적 만족감은 세 가지 기본 영역 중 의 하나인데 세 가지 기본영역은 육체적 만족감(육체의건강과 경제적 만족감), 심리적 만족감(행복의 주관적, 객관적, 사회적인 느낌), 영적 만족감이다. 이것은 바울이 주장한 사람의 삼대 요소인 몸(Body), 혼(Soul) 혹은 정신, 영(Spirit)과 비교된다.[129]

Cambell은 'The Quality of American life'란 책에서 물질적 만족감은 단지 인간의 행복을 객관적 사회적 지수에만 한정시킨 것으로 이는 전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특별히 그는 말하기를 각 만족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대인관계의 만족감에 대한 욕구가 물질적 만족의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인 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자아 성취 욕구이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나 가치에 대한 경쟁에서의 승리감 및 방향에 관련되어있다.

NICA(The National Coalition on Aging) 의 따르면 영적 만족을 다음과 같이 이

---

[127]A. Cambell, *The sense of well 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 Hill. 1981), 13.

[128]N. M. Bradburn, D. Caplovitz, *Report on happiness* (Chicago: Aldine, 1965), 21.

[129]데살로니가전서 5:23.

야기 하고 있다. '영적 만족은 하나님, 자아, 공동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인생의 확인이며 전 인간(wholeness)으로 양육하고 즐겁게 하여준다.

Moberg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다양성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요구, 알콜 중독자, 정신장애, 산업재해자들, 약물이용, 이혼, 소외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하여 제시되는 여러 방법 들 중에 영적 만족감은 행복감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상위의 수준이지 평행 한 것은 아니다. 즉 Moberg은 영적 만족감은 모든 행복에 대한 다른 형태들을 초월하여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단일 변수가 된다고 가정하였다.[130] 영적 만족감을 갖는 삶이 이루어지고 계속 된다며 는 모든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며(요10:10) 그리하면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3)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실버 공동체의 삶).

(1)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으며(고전 10:16, 엡 1:7,2:13),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일(마 5:9), 형제를 사랑하는 일(요 3:10-1)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에버리 덜레스(Avery Dulles)는 '교회의 모델'에서 교회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성서의 표상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상과 잘 어울리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된다[131] 고 하였으며, 한스 큉(H. Kűng)은 그의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앙의 공동체다. 모두가 선택된 민족이요, 왕다운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義)와 되었으며, 성령에 의하여 성화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

---

[130]D. O. Moberg, P. M. Brusek, “Spiritual Well-being : a challenge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Chicago: ASA, 1978), 70.

[131] Avery S. J. Dulles, *교회의 모델*, 김기철 역 (서울: 조명문화사, 1988), 86.

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믿고 순종하며 완전한 사랑으로 헌신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의 백성들은 서로 가족으로서 사랑을 느끼고 가족으로서 해야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이끌어 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의 의무이다."[132]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바울서신(고전 12:12-31)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몸이다. 로마서 12:5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란 에클레시아(*ecclesia*)라 하는 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에 응답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부름 받은 공동체(*communio vocatorum*)임을 의미한다[133].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보이는 '지체의 비유'(고전 12:12-30)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서로 위치와 직분이 다를지라도 '하나'를 지향해야 한다. 하나된 교회는 사랑과 겸손, 생명과 교제가 있다.

덜레스(Dulles)는 '교회의 모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상은 사회학 적 측면 보다는 유기체적 이다. 교회는 다양한 기관을 갖추고 있는 인간의 몸에서 유추되어 이해된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부여된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리에 의해서 성장하고 자신을 교정하며 변화하는 요구들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가 있다. 모든 자연적인 유기체와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몸 은 신적인 생명원리를 갖는다."[134]

(3) 교제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교제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교제

---

[132]H. Kű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경북: 분도출판사, 1989), 115.

[133]P. C. Hodgson, *Revisioning the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224.

[134]Avery S. J. Dulles, 44.

의 결과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세워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여 연합하기를 원하셨으며, 초대 교회는 특별히 교제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행 2:44-6)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Dulles는 교회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람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일치 또는 교제이며,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성한 교제[135] 라고 보았고, 본회퍼(D. Bonhoeffer)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라고 하였다.[136] 로버트 월리(Robert Worley)는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며, 서로 분리되어 소외감을 느낀다면 살아 움직이는 집단이 될 수 없다" 고 하였다.[137]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하며,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바 은혜와 은사를 무엇이든지 나누어 갖는다는 원칙하에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들어온다. 스톤(H. W. Stone)은 그의 책 '위기상담'에서 "교회회중은 하나님의 사랑이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위기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기에 매우 적절하다"[138] 고 하여 교회의 돌보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4)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 생명을 주기 위함"(요 10:10, 눅 19:10)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관이 교회이며,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요 6:35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

[135]Ibid., 45.

[136]D.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0), 22-23.

[137]R. C. Worley, 다원화 사회와 목회, 황화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12.

[138]H. W. Stone and G. Peterson, *위기상담,*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89.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란 의미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생명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고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증거 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

오성춘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이다. 로고스가 썩어가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죽음의 사막, 거친 광야에 로고스가 머물면 그곳은 생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초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머무는 곳에 죄인이 거룩한 자로 변화되며, 목마른 자가 생수를 얻으며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139]

누구든지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

(5) 돌봄(Caring)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돌봄에 대한 성서의 용어가운데 '돌보다'인 히브리어 '다라쉬'(דרשׁ)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상대방 혹은 가족의 안식을 위해 일거리를 살피고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잠 31:13)이지만,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라쉬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고 항시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고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인식된다.

신약에서 '돌보다'는 의미로 사용된 희랍어는 '프로노에오'(*phronoeo*)와 '프로이스테미'(*phroisteemi*)이다. 프로노에오의 의미는 '앞장서다, 다스리다, 능가하다, 인도하다, 돕다, 보호하다'이다. 프로이스테미는 신약에서 8회 나타나며 대체로 '인도하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14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와 용서로 돌봄을 실천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게 된다. 이 여인은 오늘날 새신자의 한

---

[139]오성춘, *성령과 목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1989), 109.

[140]*주제별종합자료사전 4권* (1990), 193.

모델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물을 길러 나온 것, 즉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하여 그녀와의 대화를 시작하신다. 그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곧바로 찔러서 여인의 고민에 접근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제기하게끔 인도한다.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예수를 이웃에게 고백하면서 생의 활기를 찾게 된다. 영원한 생명에의 확신과 소망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교회가 문제를 함께 나누는 일부터 출발함을 예수님은 알려주셨다. 교회공동체 에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돌보아주어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

중보기도를 통한 돌봄은 교회공동체 에서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보기도를 들 수 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를 하셨다. 주님 스스로는 십자가의 고난마저 능히 이기리라는 확신이 계셨으나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도 약하여 이제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이 훗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 기도대로 훗날 제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 사람들을 위한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

초대교회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앉은뱅이(행 3:1-26),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한 미술사 시몬(행 8:9),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간다게의 내시(행 8:27),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받는 서기오 바울(행 13) 등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이 있었다. 이런 다양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돌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 마디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하는 돌봄'이었다.

행 2:42-7에서와 같이 함께 통용하며,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이 돌봄의 우선적인 행위였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교회에 바라는 이들의 욕구도 다양하며 신앙생활의 동기도 각기 다르다. 이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공동체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들의 문제와 관심을 먼저 듣고, 나누고 교회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교회공동체를 긍정하는 일원이 되게 한후 양육이 이루어져 제자화의 과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Ⅶ. 유능성 개발

1. 연구반 활동

1) 연구반원들의 의견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반원들은 다음과 같다.

이름	연령	학력	교회직분
김홍철	61세	대학원 졸업	목사
박선숙	61세	대졸	집사
김현규	55세	대졸	집사
최준영	37세	대학원 졸업	간사

연구 반원들과 모임을 가지고 8주간의 주일 설교를 검토하고 조언하기로 하였다. 연구 반원 들 각자 에게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성서의 선택, 설교의 내용, 설교전달의 방식, 찬양곡 의 선정과 예배 인도에 관한 의견이다.

연구반원들은 8주간의 검토 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 성서의 선택에서는 구약성서를 2회 사용(모세오경, 선지서)하였고, 신약성서는 6회 사용(복음서,서신서, 계시록) 하였으며, 설교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2회, 고난에 대한 설교 3회, 종말론 1회, 윤리적 설교 2회였다. 그리고 설교의 전달방식으로는 연역적 3단논법의 방법이 3회, 귀납적 설교 방법이 2회, Story Telling 방법이 3회이었다.

그리고 찬양곡의 선정은 예수님 중심 3회, 성령 중심 1회, 교회 중심 2회, 선교중심 2회이었고 인도자와 회중의 예배인도 의 참여도 분포는 50대 50으로 편성되었다.

2) 연구반원들과의 공동연구 및 참여

연구 반원들의 권면 중 예배 시 말씀 선포의 선택되는 책(성서)은 년간 계획 또

는 계절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면 성경의 한 책이나, 또는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설교 집중현상에서 탈피하게 되며, 상황과 회중들의 영적상태에 따른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설교 내용 에 있어서는 현재 회중들 의 영적 상태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사건들과 이민교회에서 적응하여 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가 좀 더 부각되기를 원하였다.

설교의 접근 방법 중 내용 에 따라 연역법이나 귀납법 의 적용도 가하지마는 대화식 설교 접근법이 회중들에게 더욱 친근감과 예배참여의 적극성이 나타나므로 앞으로 대화식 설교나 구어식 설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말씀 중심으로 교리적 설교나 신학적 설교보다는 복음의 중요성과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나누며 지역사회 이웃들과의 화합하는 또한 소외된 자 와 눌림을 당 하는 자들의 회복 을 위한 말씀이 강조되기를 희망하였다.

2. 설교자

1) 설교의 중요성

회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계획과 방법,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예배를 통한 말씀 사역이 있다. 이 사역은 직접 회중들과 communication을 하여 성령의 감동과 체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각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되는 것이다.

(1) 현대 설교의 문제점

말씀 사역 중 회중들과 communication이 중요한데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패턴의 설교를 해 나가고 있다. 그 또한 회중들이 어떠한 사람들, 즉 교육이나 환경이나 또는 그들의 뒤 배경(회중의 다양한 배경)을 생각하여서 적절한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효과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설교를 듣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회중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누구인가를 잘 분간하여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커뮤니케

이션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 한인 이민 교회의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한인 이민교회의 회중들은 교육, 문화 연령의 차이가 다양하다. 또한 이민의 삶이 짧고 오래된 사람들로 되어 있다. 이 회중들은 살아온 기간에 얼마나 서구식으로 동화되었는가에 따라 다양한 전달 방식을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아직도 연역법과 삼단 논법 설교를 함으로 지시하고 가르치고 또한 권위주의식 설교가 대중화 되어있다.

(3) 미래 설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제까지의 설교자는 변화하는 세대에 따라 바뀌어져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교육경험이 다른 회중들에게 어떠한 전달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설교자이셨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과 직업 교육 배경이 전혀 다르지만 가르치며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시키도록 위임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말씀을 사용하였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며 상황과 공간과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이나 사물 또는 자연을 소재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위주의 이야기를 담으셔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여 그들을 양육하였다.

이러한 이야기식 말씀 설교는 마음과 가슴 그리고 머리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2) 설교 유능성 개발의 실재

연구 반원들의 조언과 권면에 의하여 연중 설교 계획을 세웠다. 그중에 교회력에 의한 설교 계획을 세우고 매월 한번은 강해설교나 연역법 설교, 귀납법 설교나 이야기식 설교등 다양한 설교의 모델을 적용하여 보기로 하였다. 또한 매주일 설교의 대상을 정하여 특정한 대상을 위주로 하여 설교내용을 준비하였다.

(1) 개발1 - 설교의 내용

설교의 권능은 설교의 내용에서 나타나므로 능력있는 설교를 하기위하여 설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또한 설교가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케리그

마적 이어야 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설교는 그 목적이 윤리적인 것이든 위로를 위한 것이 든 또는 복음적인 것이든 교리적인 것이든 반드시 구속적인 선포에 기초해야 한다. 선포되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중심 이어야하며, 예수의 선포는 모든 설교의 진정한 출발이며, 그 근거가 되고 내용이며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2) 개발2 - 설교의 감동

설교의 중심 내용과 함께 숙지하며 개발해야 할 것은 설교의 감동(Pathos)이다. 감동은 마음에 설교할 때 교통하게 된다.

마음중심의 설교는 모두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지식수준과 생활양식은 큰 변화를 가져왔지마는 변화되지 않은 것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 자체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하는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있는 불안·초조·죄책·양심·평안·기쁨과 즐거움·눈물은 그대로 이고. 예나 지금이나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게된다.. 그러므로 마음중심의 설교는 남녀·빈부·귀천·지식의 계층을 초월하여 한결같은 감동을 줄 수 있다

(3) 개발3 - 설교자의 담력

설교자의 설교의 능력은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중심에 설교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설교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한다.

즉 설교자의 담대함을 담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담력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힘이며, 성령의 능력이 설교자에게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담력이고, 청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설교자의 용기라 할 수 있다. 담력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다.

(4) 개발 4 - 흥미로운 설교

설교자는 회중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흥미로운 설교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예화와 유우머 사용) 복음적이고 쉬운 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더하여 교인들의 개인적인 양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교인들의 정서, 지식, 수준에 목회자가 맞추어야 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이 원활하여야한다.

(5) 개발 5 - 설교의 paradaim 이 변해야한다

한방향 중심의 communication 이 쌍방향 중심의 communication 으로 전환해야한다. 미디어 시대의 특징들은 설교자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위터, 불로그, face book과 같은 social network service 를 가능한 이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platform 을 구축하여야 한다. web 2.0 또는 미디어 2.0 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다.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트위터의 공통점은 사람이다. 이 시대의 중요 핵심 코드 사회 문화는 지식에 대한 필요성에서(need to know)에서 고유에 대한 필요성(need to share) 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의 인식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공유를 통한 끊임없는 진화를 통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나가고 있음을 자각하여야한다.

Social network service를 잃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회복과 치유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들의 영적인 방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들은 신비와 거룩과 초월과 상징 등 갈증에 목말라있다. 교회의 건축물도, 방송문화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변신을 꾀하여 영성을 회복시키며 세대별로 다양한 예배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여야한다.

즉 물량적 소비적 획일적 일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소수적, 개인적, 내재적 접근 방법을 구사하여야한다.

황상민의 디지털 신인류라는 6개의 소비자 유형은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에 대한 타켓 선교 전략의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교회의 의식은 아직도 문자 중심의 종교개혁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영성과 리더쉽 분야에서 첫째 리더쉽 개발과 훈련, 둘째 영성훈련 프로그램 개발, 셋째 평신도 리더쉽 훈련이며 예배와 설교 분야에서는 첫째 년간 예배와 설교 계획, 둘째 예배와 설교자료 개발, 셋째, 각 절기 설교 및 절기 자료 개발, 셋째 전도와 양육 분야에서는 첫째 전도 동기 와 콘텐트 제공, 둘째 전도 훈련, 셋째 새로운 미디어 적용 훈련과 이용방법 개발이다.

3) 설교 유능성 개발 평가

년중 설교 계획을 발표하여 회중들이 앞으로의 설교 본문을 미리 알게 됨으로 회중들이 성경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 설교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이로움이 있었다. 교회력에 의한 설교를 하므로 좀 더 신앙생활의 현실감과 반복되는 교육에 의하여 신앙인으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유익이 있었다. 이야기식 설교는 회중과의 문답식 설교로 변형되고 상의 하달식의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양방통행의 대화 가 됨으로 회중과의 호흡이 잘 이루어지고 친근감을 더하게 되는 유익이 있었다.

3. 지도자

1) 지도자의 중요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 활용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중심적이고 결국 자신에게 귀결되는 야신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스티븐 닐(Stephen Neill) 감독은 성직 수임식 연설에서 "나는 야심이란 말이 보통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로는 죄악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리도인들은 야심을 죄악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확신하고 더욱이 성직에 임명되는 목사들에게 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14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심에 가득한 그의 제자들에게 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선언하여 주셨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10:42-44)

예수께서는 그들과 우리에게 위대함과 지도권에 대한 세속적 사고는 그의 영적인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가치는 정 반대인 것이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인자의 온 것은

---

[141]Stephen Neill. "Address to Ordinands," *The Record* (28 March 1947), 161.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막 10:45)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눅22:27)

사무엘 브랭글(Samuel L. Brengle)은 “역사의 가장 분명한 역설은 인간이 최후심판을 받으면서 그동안 누렸던 온갖 호칭과 지위 가 전부 무시당하는 경우이다” 고 하면서 “역사는 어떤 사람이 소유하였던 계급이나 칭호 혹은 그가 가졌던 직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행위와 그의 마음과 인격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궁극적 인 평가에서 볼 수 있다”[142]

2) 섬김의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의 자세로 회중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섬기는 사역자의 자세로 다가감으로 예수 사역의 진정한 형식의 목회자적 유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지도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목회자들을 섬기는 중에 있다. 연합회 사역에 2010년 한 해 동안 적극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경주한다. 전화 이메일로 연락하여 본인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서신을 띠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선정해서 찾아간다.

또한 회중 섬기기 위해서 섬김 중심의 심방 계획을 한다.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섬김 대상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 섬김 활동으로는 지역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한다. 교회가 당신들에게 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불어 지역의 양로원, 고아원, 등 도움이 필요한 단체를 3곳 이상 선정하여 매주 방문하여 섬김의 봉사를 하도록 한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야말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리더들이 만나게 되는 최고의 천적(天敵)이다. 노련한 셰르파도 한순간의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고산(高山)의 극한지대다. 기업 CEO의 결정적인 오판이나 실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고산에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엄청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했을 때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

[142]C. W. Hail, *Samuel Logan Brengle* (New York: Salvation Army, 1933), 274.

다." 역설적이지만 죽음의 공포는 회피가 아니라 수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둘째, 최고봉을 오르는 등반에서는 단 한 명의 이기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개인의 이기심을 압도할 만한 조직의 스토리를 개발해 조직원들로 하여금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월마트의 구호인 '보통사람들에게 부자와 똑같은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보잉사의 구호인 '비즈니스 세계를 제트시대로 인도한다' 등이 짧지만 조직원에게 이기심을 제압할 수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킨 스토리인 것이다.

셋째, 도구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현실감과 유연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죽은 산악인들이 종종 훌륭한 도구들을 손에 쥔 모습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기업에서는 유행을 타는 경영이론에 맹목적으로 기대려는 경향이 바로 도구만능주의다.

이어 오만, 고독한 영웅주의, 비겁, 편안함, '중력' 등 다섯 가지 위험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산에서건 어느 사역이든지간에 오만은 독이다. 상황변화를 무시하면 곧장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만에 대한 최고의 예방백신은 겸손이다. 따라서 조직에 겸손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고독한 영웅주의에 대한 처방은 협력이고, 비겁의 처방은 용기다. 무엇보다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이 위험하다. 편안함이란 정상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의 원천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어려움도 커진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숨기지 말고 팀에게 진실을 말하라. 팀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편안함을 잡는 백신은 바로 끈기다.

또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중력(重力)'은 위험이 된다. "1990년대 말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 기업을 시작했고 중력의 힘이 매우 강력하게 시장을 밀어올린 덕분에 엄청난 부자들이 탄생했다. 그러다가 2001년 3월, 중력이 마음을 바꾸자 닷컴 거품이 빠져버렸다." 우리는 행운을 인정해야 한다. 기회와 준비가 만나서 발생하는 기술 기반의 운은 중력에 맞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세계사를 지배해 온 제국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도, 허물어지지도 않았다. 위대한 제국에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 세상 역사는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든 역사이다. 그러면 지도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본질적인 특색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천국 지향적 인생관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향해서 끝없이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도자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다가 올 미래의 어떤 가능성과 기회이다. 미래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기에 미래의 목표를 추구하며 환상을 갖는다.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나타난 꿈을 축복하셨다고 한다. 이 꿈을 실천함에 있어 많은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설득력, 그리고 신뢰감도 있어야 한다. 천국 지향형의 도덕관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4).

둘째는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지도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인 특별한 감각이 필요하다. 미래 지향성은 지도자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감각과 감지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처하는 자질도 있어야 하고, 그 선견지명이 이루어지도록 현실 유도 능력도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남다른 속성이 있다. 지도력은 선견지명이다. 지도자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지도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선견지명은 지도자의 지도(地圖)와 같은 것이다. 선견지명은 미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자질이다. 내면의 눈이다. 환상이다. 마음의 눈이다. 영의 눈이다. 기회와 가능성을 포착케 하는 미래 감지 능력이다. 미지에 대한 특별한 감각,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본능적인 느낌이나 예감,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생겨나기 전에 떠오르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본능적인 지식이나 의식, 영감, 계시, 잠재력이 영적 자질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전 2:13).

세 번째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특징은 인물 키우기이다. 미래 지향성이 지도자의 제일 강력한 자질이기 때문에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재생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시키고 독립시킨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지도자가 사회 모든 단체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땅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바

른 지도자는 인간의 조직이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도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뺏을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신적 부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큰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인류의 지도력이 쉽게 세워지면 그 단체나 사회에 고난이 온다. 그러나 지도자가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면 그 단체나 조직에 평화가 온다. 지도자는 환상가이다.

이 고난의 백성들 속에 길을 제시하며 ‘나를 따르라!’고 외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며 모델이 되어 힘있게 달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문제적 개인'의 자질을 지닌 인물도 드물다. 평범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화려하게 변신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왕다운 왕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 순간 순간 욕정을 못 이겨 실수를 저지른 적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또 다시 오뚝이처럼 우뚝 선 인물. 그만큼 다윗은 '특별한' 인물이다. 그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결점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평범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 어떻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밥 얀디안의 ‘다윗 섬김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귀감이 되었던 다윗왕의 리더십을 조명한 책이다. 흔히 다윗이라고 하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이란 거인을 물리친 인물 정도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는지, 그 후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위대한 왕으로서 자리할 수 있었는지를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순례의 시' 편으로 통하는 '시편 131편'은 다윗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저질렀던 과오를 통한 깨달음을 노래한 시로 유명하다. 비록 짧은 시이긴 하지만, 또 시편에 있는 다른 시들에 비해 문학적으로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엔 다윗 리더십의 핵심 원칙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윗 리더십의 요체를 '교만하지 말라!' '주위 사람들을 믿고 맡겨라!' '감정을 절제하라!' '역사에서 배워라' 등 4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읽을 수 있는 '교만하지 말라'는 원칙은 사실 다윗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놉이란 지방에서 자신의 실수로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하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로채는 간음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성경에는 다윗이 최소 20회 이상 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사무엘상 13: 14)으로 불렸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지체 없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징벌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밑바탕엔 '교만하지 말라'는 삶의 자세가 깔려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그를 가리켜 '섬김의 리더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을 믿고 맡겨라' '감정을 절제하라' '역사에서 배워라' 등 다윗의 다른 덕목들 역시 '겸손, 혹은 섬김의 자세'에서 그리 멀지 않다. 오랜 기간에 걸친 시련과 극복을 통해 결국 리더의 위치에 까지 오른 다윗은 성경적인 관점을 떠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다.

3)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종업원과 고객의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다. 1977년 AT&T에서 경영관련교육과 연구를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가 저술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우리 말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Servant Leadership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Leadership과 membership을 구분하여 이원화 하지 아니하고 공통되는 본질적 조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143] 리더십은 개인의 행동을 옮기는 일이며 리더십 개발과 인

격 개발은 결굴 동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144] 지도자의 자질에서 지도자는 지도자이기 이전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부를 함께 감당하며 섬김의 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로서 바람직하다. 많은 리더들이 이론과 행정 그리고 경영 관리차원에서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데 비하여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도덕적 권위와 양심, 인격적 가치를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철학적이며 교육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서번트 리더’ 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한 Greenleaf는 이 개념을 헤르만 헤세 의 작품 ‘동방순례’ 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145]

동방순례에서 나오는 주인공 레오는 여행단의 잡일을 도맡아 하는 종으로서 ‘종사자’잡역부로 여행에 참가하지마는 여행단이 지치고 힘들 때는 노래를 부르고 유머로 지친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도 한다. 종으로서의 섬김과 함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레오가 있음으로 순조롭고 즐거운 여행을 하였다. 레오가 사라지면서 여행단은 혼란과 지루함과 진행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레오의 부재중에 여행단은 그가 실질적인 지도자이며, 정신적 지주였고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는 지주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Greenleaf 는 말하기를 “위대한 지도자는 Servant처럼 보인다”고 역설하였다.[146]

4) Servant Leader의 자질

Servant leader 는 자기가 속하여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또는 소속단체에서 진정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한다. 사람들을 긍휼히

---

[143]servant leadership이란 Robert K. Greenleaf가 1970년대에 처음 발표한 논문‘The Servant as Leader '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 Servant는 머슴 , 하인, 부하, 종복, 봉사자, 종업원 등으로 번역, servant leadership 을 ‘섬김의 리더쉽’이라 번역한다.

[144]James C. Hunter, *서번트 리더쉽*, 김광수 역 (서울: 시대의 창, 2006), 53.

[145]동방순례는 헤르만 헤세(Herman Hesse)가 1929년 후반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1931년 4월 취리히에서 끝마친 작품으로 같은 해 7월과 9월 격월간지 '코로나'에 발표되었다가 다음 해인 1932년 3월에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일종의 '신소설'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정소설'이라 할 수도 있는 특이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된다. 한 남자가 합리주의가 만연하고 날로 기계 문명의 이기에 잠식당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이 꿈과 이상에 회의를 느끼고 절망하기 시작하자 지난날에 겪었던 경험을 영혼의 순례기로 쓰기 시작하면서 꿈과 이상이 지닌 의미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146]James C. Hunter, 24-25.

여기며 공동체 사역을 위하여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탐내는 사람은 리더의 자질은 없는 것이다. Greenleaf는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인간다워지는가? 섬김을 받는 동안 더 건강하여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면서 Servant로 변하고 있는가? 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James C. Hunter는 Servant leadership을 '공동의 최선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술인 동시에 사람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인격'이라고 정의 하였다.[147] 서번트 리더는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타인을 위한 종의자세로 임하여야한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도덕적 권위와 신뢰 존경이 수반되어야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진실된 자세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고 하였다.[148] 요즈음 같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뢰와 존경이다.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도덕율이 필요하다. 공동체 의 신뢰, 존경, 윤리적 행동이 없는 사회에서 젊은이가 무었을 배우고 노인이 어떻게 버티어 나갈 수 있겠는가?

공동체를 기본 터전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잉태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이기를 포기한 기업, 교회, 전부, 학교와 같은 제도적 기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149] 서번트 리더는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 시티기 위하여 나를 타인을 위한 종의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헌터는 "인격" 이란 도덕적 성숙을 의미하며 설령 회생이 다르더라도 기꺼이 옳은 일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말한다[150]

지도자는 높은 인격을 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산물이다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반복적 행동이다"[151] 리더의 필수라 할 수 있는 덕

---

[147]James C. Hunter, 33.

[148]Warren Bennis and Bert Nanus, *리더와 리더쉽*, 김석원 역 (서울: 황금부엉이, 2008), 147.

[149]Robert K. Greenleaf, *서번트 리더쉽 원전*, 강주현 역 (서울: 참손, 2006), 68.

[150]James C. Hunter, 169.

[151]Ibid., 172-173.

목 높은 인격은 신뢰와 존경에서 나온다. 리더의 도덕적 권위와 양심에서 도덕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것은 양심이다.

간디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7개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땀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얻은 부. 둘째 양심을 저버린 기쁨. 셋째 인격을 상실한 지식. 넷째 도덕성이 결여된 장사. 다섯째 인류애를 잊은 과학. 여섯째 희생이 없는 종교. 일곱째 원칙이 사라진 정치라는 것이다.

이기심은 목적을 정당화 시켜준다며 우리를 유혹하지마는 양신은 우리에게 목적과 수단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이들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친다.[152]

(1) 강한 책임감.

도산 안창호는 책임감은 주인과 나그네를 구분하는 핵심기준이다 라고 하였다. 주인은 어떤 일에 대하여 무한책임의 소유자다. “그 미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이 없는 자는 여객이라 하였다.[153]

(2) 사랑으로 함께하는 지도자

헌터는 서번트 리더쉽은 본질을 사랑으로 들고 있다. 그는 사랑이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타인들의 욕구와, 이해관계의 최선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선택 이것이 자발적 사랑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사랑의 속성을 고린도 전서 13장 을 인용하여 8가지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오래참고(인내) ②온유하며(친절) ③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겸손) ④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존중) ⑤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 하며(무욕) ⑥성내지 아니하며(용서) ⑦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정직) ⑧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헌신)것이라고 하였다.[154]

5) Team 사역 지도자

조직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협조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

[152]Robert K. Greenleaf, 23-24.

[153]주요한, *안도산 전서[증보판]* (서울: 흥사단 출판부, 1999), 518.

[154]James C. Hunter, 97-104.

리더의 역할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리더쉽은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의 형성은 물론 이들 행동을 조직체 성과에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체 연구에 있어서 리더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왔고, 따라서 리더쉽에 관한 지식과 이론은 어느 사회과학 분야에 못지 않게 많이 개발되었다. 한 조직의 성패는 효과적인 리더쉽의 발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더욱이 조직행위의 제반사고가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조직활동이 이러한 인간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현대적 조직활동의 관점에서 리더쉽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목표의 달성이 조직구성원의 활동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은 조직의 리더로 하여금 조직성원의 노력을 종합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리더쉽의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쉽은 관리능력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요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6) 리더쉽의 효율성이론(Effectiveness Theory)

리더쉽의 효율성은 그 리더의 퍼스낼리티가 상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리더쉽 모텔의 과업. 인간관계적 차원에 효율성의 차원을 차가 함으로써 리더의 형이라는 요인과 특정한 환경이 지니는 상황적 요인을 통합하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리더의 유형이 부여된 상황에 따라 적합한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효율적 이라고 불리운다. 리더 행동성의 효율성이 그 상황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규범적 기준형도 상황 여하에 따라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한 비효율적이기도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형과 효율적이지 못한 형의 차이는 리더가 하고 있는 실제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상황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이같이 볼 때 삼차원적 효율성 모델의 특징은 모든 상황에 적합하도록 다만 하나의 이상적인 리더 행동의 형을 그리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리더로서의 성공도를 높이고자 하며 행동적, 환경적 배려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말하는 환경이란 리더, 조직원, 기타 조직의 상황적 제요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리더에게는 환경의 요구를 진단하는 힘이 있어야 되며, 그 요구에 적합하도록 리더 자신의 퍼스낼리티를 순응시키거나, 자기 이외의 변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혁할 만한 수단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리더가 적응해 나가야 할 환경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리더의 퍼스낼리티, 리더의 기대, 조직원의 퍼스낼리티, 조직원의 기대, 상층조직원의 퍼스낼리티, 하층 조직원 퍼스낼리티, 동료의 퍼스낼리티, 동료의 기대, 조직의 퍼스낼리티, 조직의 기대, 조직 활동의 요구 등이다. 이 경우 퍼스낼리티란 타인이 지각하는 개인의 일관된 행동의 패턴을 의미하며, 기대란 각자의 역할, 지위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의 방법이 적합한가를 가늠하는 관점 내지 조직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뜻한다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또 하나의 덕목은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과 각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 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는 자기가 천명의 몫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할 천명의 사람을 두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다. 자기가 권위를 안심하게 이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실재로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의 능력이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호스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널리 다양한 부류의 사역자들이 가진 은사를 평가하고 자신의 특성과 사역의 성격에 따라 그들을 돕는 기능은 우리의 임무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한 자질이다”[155]

지도자가 사역을 이양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도자 자신의 성공 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 사람의 활동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양보다 더 커질 수 없다는 것은 진리이다.

심슨 (A.B. Simpsom)박사는 그가 관계하기 어려운 다른 기관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 그들의 은사를 활용하였다.[156] 그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 하였다.왜냐하면, 그 지위에 알맞은 다고 그들을 선택한자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결과가 어떠하든 지, 자기의 권한 내에서 행동하며 행동하는데서 전적으로 지도자의 의지를 확신해야 된다. 또한 이것은 책임영역이 명확히 정의되어 야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155]Phyllis Thompson D. E., *Host* (London: China Inland Mission, 1973), 156.

[156]A. E. Thompson, *The Life of A. B. Simpson* (Harrisburg: Christian Publication, 1920), 208.

문서에 기록해야함을 전제하고 있다.

존 모트 박사와 동역한 폴 수퍼(Paul Super)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폴란드에서의 최근 10년 동안 나의 가장 커다란 지원중 하나는 그가 후원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나의 가장 커다란 자랑은 그의 신뢰이다. 확실히 나의 가장 놀라운 사역의 동기중 하나는 그의 후원에 힘입고 있는 가치이며 나에 대한 그의 기대에 부응 하고자 하는 데 있다”[157]

책임과 권위의 이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여주는 곳은 성경의 출애굽기 18:1-27에 기록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이다. 모세혼자서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 모세의 책임들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권한 위임을 권고하면서 두 가지의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대와 함께한 이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라.”[158]

생스터가 영국 감리교 선교국의 총무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자기 나라의 모든 감독들을 없애버리고 구성원들에게 임무를 분담하여 책임을 맡겼다. 그는 동료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기의 책임을 위임하였으며, 위임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도자의 자격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협력자들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런 기술을 잘 습득하고 있었다.[159]

필립 탐슨은 그의 저서 ‘바로 서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큰 선교회의 한지도자에 대하여 그 선교회의 간사가 논평하였다. ‘그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간섭도 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자질을 소유하였다. 그러므로 누고든지 자신의 일에 열중하였다.’ 또 다른 간사는 논평하기를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 인가를 알았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기회를 최대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단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조사함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160]

---

[157]B. Matthew, *John R. Mott* (Lodon: Hodder & Stoughton, 1909), 364.

[158]출애굽기 18:18.

[159]Paul E. Sangster, *Doctor Sanster* (London: Epworth, 1962), 88, 221.

[160]Phyllis Thompson, *Climbing on Track* (London: China Inland Mission, 1965), 99.

4. N. G. O.지도자

1) 국제연합에서의 NGO의 개념정의

UN 내에서는 NGO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에 따른 논란을 피하면서 이들을 UN의 체계에 폭넓게 수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UN 전체 차원의 어떤 표준화된 개념정의를 수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UN 내의 여러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NGO 들과 공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1) UN의 NGO에 대한 개념정의의 시도에 관한 보고서(1994)에서는 “NGO란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① 활동목표와 방법이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운동 창설과 관련되는 조직들이며, ② 사회운동에서 출범해서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현실의 대표들이다. 전자는 참여와 권력행사를 중시하며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자립을 확대하는 역량축적에 자신의 역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후자는 후원(後援 : advocacy)과 네트워킹(networking)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 통치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이 개념정의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였다는데 있었다. 즉 이에 따르면 UNESCO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과학, 교육 및 문화 NGO들과, ILO, WHO, FAO 등 전문기구들이 파트너로 삼고 있는 다양한 전문 NGO들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2) “개발, 인권, 환경, 평화문제 등 지구차원의 문제 해결에 비정부 · 비영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민주도의 국제 및 국내조직”

(3) WORLD BANK에 의한 NGO의 개념정의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혹은 상당 부분 독립적이고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혹은 사회전체에 대해 인도주의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이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협회, 친교회, 재단, 자선단체들도 NGO로 간주”될 수 있다

2) 국제 사회에서 NGO의 일반적인 역할(Simmons, 1998)

(1) 의제설정역할 -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조성 혹은 공론화의 과정(ex, 대인지뢰금지활동).

(2) 국제적인 협력창출의 역할 - 새로운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창출하는데 기여 (ex, 인권협약).

(3) 정당성부여의 역할 - 공론화와 대중적인 지지동원을 통해 정부나 국제기구의 결정 및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의 증대.

(4) 문제해결의 역할 - 난민, 기어, 빈곤퇴치, 개발원조, 환경 및 인권 감시 등의 역할.

NGO가 공식적인 UN 기구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를 통해서이다. 1946년에는 41개 NGO가 협의 지위를 부여 받았으며, 1992 년까지는 700개가 넘는 단체가 협의 지위를 부여 받았다. 현재는 2531 개의 NGO들이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UN 헌장 71조는 NGO 단체들과 적절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러한 협의 관계는 협의 지위를 위한 자격 요건, 권리, 의무, 협의 지위 철회나 중지시 필요한 절차, NGO들에 대한 ECOSOC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협의 지위를 지원하는 UN 이사회의 역할 등을 골자로 하는 ECOSOC에 의해 결정된다. 협의 지위는 19개 국가로 구성된 ECOSOC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부여된다.

3) NGO의 자격 조건

협의 관계는 국제적, 지역적, 지구적, 국제 비정부기구적, 비영리 혹은 자원 봉사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설립될 수 있다. 국제 기구에 이미 소속된 NGO들은 그들이 UN의 목적과 의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협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협의 지위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원 단체는 최소한 2년 기간 동안 존립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설립된 본부와 민주적으로 채택된 정관, 그 기관을 대표하는 권위자, 대표 구조, 책임이 수반된 적절한 절차,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관의 기반은 주로 국가 조합이나 개별적인 구성원에 의해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 혹은 정

부간의 협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은 NGO로 간주 되지 않는다.

4) 포괄, 특별, 명부 지위

ECOSOC 에서 부여되는 지위는 포괄적 협의 지위, 특별 협의 지위 그리고 명부 지위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포괄적 협의 지위는 ECOSOC의 의제나 그 부수적인 기관에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일의 영역을 하는 조직이 큰 국제 NGO들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단체들은 상당한 규모를 갖고 이미 확립된 국제 NGO로서 그들의 활동 지역 범위 역시 광범위하다.

특별 협의 지위는 ECOSOC이 관여하는 부분이 국한되며 특별한 역량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단체들에 한해서 부여된다. 이들은 대개 조직의 규모가 작고 최근에 설립된 경우가 많다.

협의 지위에 지원하는 기관 중 위의 어느 지위에도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명부 지위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NGO들은 주로 협소하거나 전문적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UN 지부나 FAO, ILO, UNCTAD, UNESCO, WHO 와 같이 전문화된 기관들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NGO들은 ECOSOC 명부 지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 ECOSOC 나 UN 사무총장이 위원회나 그 지부의 활동에 때때로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고려되는 NGO들이 명부에 나열된다.

5) 국제 회의 참여

포괄적 협의, 특별 협의 그리고 명부 협의에 속한 비정부 기구들이 UN이 개최하는 국제 회의나 회의를 위한 준비 기구 모임에 참여를 표현할 경우에, 규율에 따라 참석 권이 부여된다. 회의에 참석의 승인을 원하는 다른 비정부 기구들은 회의 이사회에 미리 지원을 해야 한다.

6) ECOSOC 협의지위 위치의 획득을 위한 지원 절차

(1) 지원 동기서 제출.

ECOSOC 협의 지위 획득을 위한 지원 절차에 착수하기 앞서 지원 동기서를 우선적으로 경제 사회 업무 부서(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NGO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는 기관의 이름이 새겨진 레터헤드로 보내져야 하며 사무 총장이나 기관장의 서명이 새겨 져야 한다.

지원 동기서는 중요하다

지원서 보낼 곳

DESA NGO Section

One UN Plaza. Room DC1-1480

New York, NY 10017

tel: (1-212) 963-8652

fax: (1-212) 963-9248

desangosection@un.org

(2) 지원서(질문서+ 요약본+ 보충 자료들)

NGO과에서 지원 동기서를 받는 다음에야 질문서를 비롯한 다른 배경 서류들 등이 포함된 지원 서류들을 지원 기관에 보낸다. 지원서와 질문서는 지원기관이 얻고자 하는 지위에 맞추어 작성 되어야 한다. 올바른 지원 서류 작성시 야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NGO부서에 문의해야한다. 지원 서류들은 관련 사이트 (http://www.un.org/esa/coordination/ngo/)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지원서는 UN 사무국에서 통용되는 영어나 프랑스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관이 원하는 해에 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6월 1일까지 요구한 모든 지원 자료를 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성된 지원 서류들이 2009년 6월 1일 전에 NGO 부서로 접수될 경우, 2010년에 위원회로 올려 지게 된다. 2009년 6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6월 1일까지 접수된 서류들은 2010년에 위원회로부터 심사 받게 된다.

(3) 지원서 심사

6월 1일부터 위원회가 모임을 열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NGO 부서에서 지원서들을 검토를 한다. 이 기간 동안 지원한 기관에게 더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애매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임원에 의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서 지원 서류들이 NGO 위원회로 보내지게 된다.

지원서들이 NGO 위원회의 협의 절차에 포함되면 앞으로 열릴 세션에 대한 서한이 해당 NGO 에게 통보하며 두 사람 이하의 대표들이 그 세션에 초대된다. 대표들의 참석은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며 어떠한 이득도 부가되진 않는다. 지원 NGO들은 단지 자신들의 지원서가 고려되는 시점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뉴욕으로 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NGO들은 첫 번째 세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원서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어 다음 세션으로 절차가 미루어 질 경우, 해당 NGO 기관은 다음 세션에 직접 참석해 질의에 답함으로써 또 다시 미루어 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협의 지위 위치를 위한 부가적인 요구 사항

- 기관의 활동 내역들이 ECOSOC 와 연관되어야 함
-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활동해온 기간이 적어도 2 년 이상 되어야 함.
-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운영되어야 함
- 기관 자금은 대부분 전국 조합, 개인 회원, 혹은 다른 비 정부 요소로 충당되어야 함.

(5) NGO내의 위원회

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의 만남을 가지며 협의 지위에 지원한 기구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ECOSOC 이사회로 추천할 기관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질문이 생기면 언제라도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은 사무국에 의해 fax로 해당기관에 보내지며, 다음 세션으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질문에 답을 보내 줘야 한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협의 지위 요청에 대한 고려와 지원 기관들의 재 분류 요청.
- 포괄(General)과 특별(Special) 지위 기관의 4년 주기 보고서 고려
- 위원회 Resolution 1996/31 조항 이행과 협의 지위 관계들에 대한 감시
- ECOSOC가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이슈들에 대한 책임.

(6) 위원회 추천 결정

위원회 추천서는 보고서로 발행되며 마지막 승인을 위해 다음 ECOSOC 미팅에 회부된다. 위원회 추천에 관한 공식적인 통지는 고려된 모든 NGO 기관에 전해지게 된다.

위원회는 지원 단체가 요구한 지위 위치와 다른 위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요구된 의문사항과 개정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세션으로 지원서 검토를 연기할 수 있다.

(7) ECOSOC 최종 결정

이사회에서 협의 지위에 대한 위원회 추천이 최종 승인 되면 사무국에서 공식적인 통지가 해당 NGO 에 보내진다. 포괄(General) 혹은 특별(Special) 협의 지위를 승인 받은 기구는 4년에 한번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그들의 UN에 대한 기여와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8) 지원서 작성시 다른 주의 사항

- 지원 자료들은 영어나 불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
- 보충 자료들이 다른 언어일 경우 반드시 번역이 요구된다.
- 문서가 너무 길다고 판단 시에는 번역된 요약 본이 대용될 수도 있다.
- 발행물에 한해선 자국어 사용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7) 한국의 대표적인 NGO

(1) 컴패션(http://www.compassion.or.kr/Sponsor/ApplyInformation.aspx), 후원안내 전화 Tel. 02-3668-3400.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 스완슨 목사가 처음 만든 단체로 많은 어린이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받았다. 2003년 우리나라는 컴패션의 10번째 후원자로 나서게 된다.

태아, 영아 생존 프로그램부터 지도자로 성장하기위한 프로그램, 1대1 결연 등 어린이 양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재 26개국 110만 명 이상의 어린이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 천사로 손꼽히는 탤런트 신애라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2)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http://www.obos.or.kr), Tel. 02-774-3488.

고 김수환 추기경이 1989년 설립하고 초대이사장을 지낸 NGO이다. 헌혈과 헌안운동을 벌이며 시작해 현재 세계 52개국을 대상으로 나눔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구촌 빈곤퇴치운동, 해외원조, 긴급구호, 자원봉사, 백혈병어린이돕기, 제대혈등록, 장기기증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3) 굿네이버스(http://www.goodneighbors.kr), Tel. 02-6717-4000.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는 19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국제구호개발NGO로 해외 아동결연, 국내 아동권리보호, 대북지원, 긴급구호, 후원, 자원봉사 등을 연결 지원하고 있다. 포털 네이버와 연계한 '해피빈 콩' 사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4) 로터스월드(http://www.lotusworld.or.kr), 후원안내 및 건의전화 Tel. 02-725-4277.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우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구호 지역개발단체로 최근 TV프로그램을 통해 안타까운 현실이 전해지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에 국제NGO를 설립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BWC아동센터(고아원)과 초등학교 설립 등을 통해 빈곤아동복지와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빈곤지역주민들에 대한 무료진료 및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식량을 원조했던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북한에 유치원 콩우유, 방한용 내의 및 학용품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의류잡화, 도서류, 문구 등을 캄보디아와 북녘어린이들에게 물품후원 할 수 있으며 캄보디아 자원봉사, 캄보디아 아동 1대1연결 후원, 기타 정기후원 등으로 참여 가능하다.

(5)이외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로는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기구인 JTS(Join Together Society: http://www.jts.or.kr, Tel. 02-587-8756), 월드비젼(http://www.worldvision.or.kr, Tel. 02-2078-7000), 또 국경없는의사회, 아프리카난민구호협회, 세계자연보호기금,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카리타스 등이 있다.

8) NGO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

일반적으로 NGO는 그 특성상 자국 및 대상국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니고 빈민층과 소외계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공적기관과는 달리 정치적 부담이 없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고귀한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NGO는 그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헌신적인 실무자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 대중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 실무자들은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동이 잦으며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개발도상국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연결망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NGO들의 지원사업을 전문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파견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NGO간의 연결망을 통한 전문인력의 훈련이나 파견은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NGO간의 협력으로 전문인력을 모집, 훈련하는 전담 NGO를 설립하거나 최소한 동일 대상지역 내에서의 한인 NGO들의 기술협력이나 축적된 경험의 분배는 매우도움이 될 것이다.

NGO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복지재단의 참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인 기업복지재단이 해당사업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한국 NGO들의 전문인력 파견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Ⅷ. 결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또 이민의 역사가 축적됨에 따라서 한인 교회와 사회에서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는 노령의 성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노령의 인구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살며 누구하고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은 어느 계층이나 집단에도 뒤지지 않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령의 인구들을 통한 선교와 그들의 신앙 헌신은 이 시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 자유주의 등과 같은 현상은 노인들이 현상황에 적응하기에 힘들게 하였다. 가족제도의 변화와 경제적인 무능력, 역할 상실로 인한 무력감, 소외감, 고독 등에 빠지는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의 권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을 겪는 등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고통이 심각해졌다.

전통적인 효사상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로 절망과 좌절 속에 아픔의 나날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니 이들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며 이들의 남은 인생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일은 각 교회의 최우선적 사명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설립되어 약 300명에 이르는 단기 선교사를 훈련하였고 이제 발전해가는 뉴저지 실버 선교회는 현시대와 여기 미주한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그간에 본 선교회는 한인교회의 은퇴노인들에게 교육과 선교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삶과 영성회복을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재충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어 하나님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선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훈련은 계속되어질 것이며, 교회 내에서 단독으로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기

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본 선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연합과 협력과 헌신의 모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선교에 헌신하고자하는 지망생들이 선교지 파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 단체를 통하여 교육이 1년에 2회씩 실시되고 있으며 선교지의 단기선교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비젼과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본 선교회는 이 시대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노인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을 기울여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맡겨진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선교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복지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아갈 때 행복한 노인복지 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노인들이 교회 내에서 섬김을 받는 존재에서 벗어나 마지막까지 자신을 헌시했던 베드로 사도나 바울사도가 마지막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퇴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Appendices

Appendix A.

실버선교회 설립 개관

실버선교의 새로운 움직임은 시카고 근교에 있는 휄로우쉽 교회 중심으로 시카고 실버선교회를 설립하면서 1999년 시작 되었다.

2002년 2월에 시카고 실버선교회로 부터 동부지역에 실버선교회 설립에 대한 제안을 받은 양춘길목사의 건의로 원성우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 뉴저지 일대 4개의 교회의 평신도들이 협력하여 뉴저지 실버선교회를 설립하였다.

뉴저지 실버선교회는 시카고 실버선교회의 신앙고백 및 사명과 비전을 같이하나 운영체제는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운영한다. 실버선교회의 공동목표를 위하여 지역별 선교회 설립을 독려하며 타 지역 실버선교회와 상호 협력한다.

2002년 7월 뉴저지 주정부에 Silver Missions Fellowship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였으며 한글표기는 "실버선교회" 라 하였다. 동년 9월에 선교회 산하 실버선교사 훈련원 (Silver Missionary Training Center)을 개설하고 2003년 2월 제1기 평신도 실버선교사 훈련생 22명을 배출하였다.

지난 8년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실버선교사 훈련원 의 훈련과정을 마친 선교사 후보생이 320명에 달한다. 현재 27명이 각 나라에서 거주 및 비거주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11월 실버선교회의 비전 나눔 목회자 모임을 갖고 세계 선교현장에서 미국 이민 1세 Korean-American 실버들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뉴저지 일대 12개 교회가 연합하여 후원교회를 형성하고 각 교회에서 실버사역을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010-2012년 뉴저지 실버선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실버선교회 대표: 양춘길목사
운영이사회 이사장: 길용남목사
운영이사회 부 이사장: 김두화 목사
실버선교사 훈련원 원장: 이영승목사
후원이사회 이사장: 김상수장로
실번선교회 총무: 박노식 장로

2011년 2월 10일

"새로운 삶을위한 새로운 도전"

실버선교회

Silver Missions Fellowship
408F Paulding Ave.
Northvale, N.J. 07647
(201) 767-7979
(201) 403-1350, (656) 642-1550

Silver Missions Fellowship

실버 선교회의 비전

실버 선교회는 은퇴 후 여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려는 신실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모집하여 훈련하며, 실버선교사로 세워 사역현장에 파송하는 비전을가지고 설립한 초 교파 선교단체이다.

이를 위하여 은퇴를 고려하거나 은퇴한 선교 마인드를 가진 평신도에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실버 선교사로서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소원과 동기를 부여한다.

철저한 단기 훈련과정을 통하여 선교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 하도록 훈련한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과 긴밀한 연락 가운데 선교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적기 적소의 필요한 실버 선교사를 단기로 파송하며 현지 사역자들을 도와 협력하도록 주선하여 후원한다.

"모든 족속을 예수께(All Nations for Jesus)" 의 목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 까지" 헌신하는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을 제시하는 것이 실버선교회의 비전이며 목표이다.

실버 선교회의 사명

1. 우리는 실버 선교사의 축적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현장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봉사 활동을 하며 복음전파사역에 동참함으로 해외 현지 선교사의 총체적인 사역에 협력한다.

2. 우리는 실버선교사의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토대로 수집한 자료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지 지원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후원함으로써 미 전도 종족의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여한다.

3. 우리는 초 교파 선교단체로 지역교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협조함은 물론 타 선교 단체들과 협력함으로 선교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4. 우리는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실버들을 발굴하여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집중적인 선교사 훈련을 함으로서 세계 복음화에 그들이 쓰임을 받게 한다.

5. 우리는 실버선교 훈련원에서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에게 선교사가 필요한 해외 선교지나 국내에 특수 사역지를 알선하며 소속한 교회에 추천하여 실버 선교사로 임명 파송할 것을 권장, 의뢰한다.

6. 우리는 실버들의 공통적인 특성인 퇴직에 따른 심리적 소외감이나 소극적인 생활 방식에서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선교사에 동참케 함으로 선교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영유하도록 권장한다.

7. 우리는 선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적 사명이며 이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임을 인식하고 실버들의 남은 생애를 바쳐 이 사명을 공유하고 감당하도록 독려한다.

실버선교회의 모토

"모든 족속을 예수께"
"내생명 다하기 까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Appendix B.

뉴저지 실버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 본회는 뉴저지 실버선교회 (SILVER MISSIONS FELLOWSHIP N.J.)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 본회는 뉴저지에 본부를 둔다.

제 3 조(목적) : 본회는 초교회, 초교파로 구성된 복음주의적 선교기관으로 은퇴 후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려는 신실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모집하여 훈련하며 실버선교사로 세워 해외 및 국내 선교지에 파송하여 협력 선교사로서 사역에 동참케 함으로 써 세계 복음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역)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역을 실행한다.

1)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
2) 실버 선교사 후보자 발굴과 훈련 및 파송
3) 선교지 네트워크 조성과 지원 사역
4) 실버선교회를 위한 본부행정, 재정 지원
5) 소속 교회 안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협력

제 2장 회원

제 5 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본회 운영이사와 후원이사회 이사와 실버선교사 훈련원 동창회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

제 6 조(권리)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회비납부, 기타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교에 힘쓰며 세계 복음화에 적극 동참할 의무를 진다.

제 3장 조직

제 8 조 (기본조직) : 본회는 총회와 운영이사회, 후원이사회, 동창회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조직한다. 훈련기관으로 실버선교사 훈련원을 둔다.

제 9 조 (임원) :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대표 : 1인 총무 : 1인 서기 : 1인 재무 : 2인 훈련원장 : 1인 훈련원자문 : 1인 이상 감사 : 2인,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10 조(임원선출 및 인준): 본회 임원은 운영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운영이사회회 이사장, 선교회 대표, 후원회 이사회 이사장은 정기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

제 11 조(임원임기) : 본회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궐위) : 본회 임원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는 궐위된 임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임무) : 대표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무 :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 사무행정을 총괄한다.
서기 : 본회의 회의록 기록 및 보고
재정 : 보회의 재정관리 및 보고
훈련원장 : 실버선교사 훈련원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실버선교사 훈련원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4장 총회

제 14조 (총회) :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소집하고 총회소집 통보는 총회일자 2주전에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 운영이사회의 요구 혹은 회원 본회 회원의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대표가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인준 (2) 정관 인준 및 개정 (3) 본회의 예산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재산의 처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타 재산상의 문제처리
   (5) 본회의 사업계획 및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4) 의결 정족수 : 출석인원을 정족수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운영이사회

제 15 조 (이사) : 운영이사회는 최소 1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이사장과 본회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당연직 이사로는 본회 대표, 총무, 실버선교사 훈련원장, 후원회회장, 동창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운영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서기: 1인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6 조 (이사회) : 정기 운영이사회는 6개월의 1회 년 2회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1/3이상의 이사 동의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회의 구성은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이사회의 임무)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2) 선교사 임명
3) 정관의 개정
4) 재산관리
5) 총회에 부의할 안건
6) 선교회 임원을 선출 임명한다

제 6 장 후원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제 18 조 (후원이사회) :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둔다. 후원이사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자 중에서 본회 대표와 운영이사회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 19 조 (후원이사회조직) : 후원이사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선출하며 회장단은 필요한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제 20 조 (후원이사회의 임무) : 후원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실행한다.
1) 기도 후원
2) 본회 운영상 필요한 인력 지원
3) 본회 운영상 필요한 재정 지원

제 21 조 (자문위원회 조직) : 본회는 세계 선교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과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 22 조 (회계) :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회원의 년회비 및 이사회비
2) 특별회계: 목적헌금, 선교후원 헌금 및 특별헌금

제 23 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회계감사) : 정기 회계감사는 년 1회 실시하고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 부서

제 25 조 : 선교회 대표는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총괄하는 간사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9장 부칙

제 26 조 : 실버선교사 훈련원 및 후원이사회 운영규칙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27 조 (개정) : 본 정관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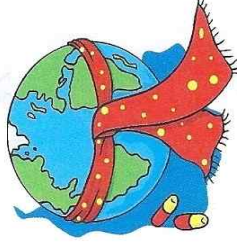
제 28조 (시행) : 본 정관은 창립총회 일로부터 시행한다.

Appendix C.

뉴저지실버선교회

뉴저지 실버 후원의 밤

2011년 2월10일 오후 8시

뉴저지장로교회

1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 가신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절: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곳에 있던지 늘 기도힘쓰리

후 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순례자의 노래

1.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위에 이 몸이 상할 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New Jersey Silver Mission

실버선교 후원의 밤 예배순서

2011년2월10일 오후8시 — 사회: 이영송목사

뉴저지장로교회 — 반주: 문 옥권사

1부

찬송	온세상 위하여	다 같 이
기도		김도완목사
말씀	가던지보내던지 눅 8:1-3	김재열목사

2부

특송		NJ 장로성가단
선교활동보고		이영송목사
비젼나눔의시간		양춘길목사
헌신의시간		양춘길목사
헌금	헌금송	남숙현집사
광고		김상수후원회장
찬양	순례자의노래	다 같 이
축도		길웅남목사

끝

뉴저지 실버 파송선교사

원성우	원유선	김호진	엄세웅
박태수	박경심	김현영	김덕주
박수경	박정숙	전상범	전송희
한상우	전청수	김승범	마건우
김국홍	김수자		

실버 선교 소식

1. 오늘의 헌신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2. 제 16기 뉴저지 실버 선교 교육이 2월21일(월요일)부터 5월2일(월요일) 까지 실시됩니다. 주위의 실버 에이지를 본 교육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16기 교육이 끝난 후 1차 5월10일-16일, 2차 5월24일 -5월30일 에 있습니다. 많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에 기록된 뉴저지 실버 파송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5. 실버교육 개강 및 종강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Appendix D.

TENGO PAZ COMO UN RIO

Tengo paz como un rio   Tengo paz como un rio
Tengo paz como un rio   En mi se halleluya
Tengo paz como un rio   Tengo paz como un rio
Tengo paz como un rio   En mi se

DIOS ES AMOR

Dios es amor   Dios es amor   Dios es amor   es amor
Dios es amor   Dios es amor   Dios es amor   es amor
Hal-leluya   Hal-leluya   Dios es amor   es amor
Hal-leluya   Hal-leluya   Dios es amor   es amor

THE AMAZING GRACE

수 브리메 그라시아 델 세-놀 케운 인 휄리즈 살보
푸이 씨에고 마스 오이 미 로요 베르디 도이 엘 메 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 멘 X 2

순례자의 노래

1.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위에 이 몸이 상할 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뉴저지실버선교회

제15기 실버 개강 예배
2010년 8월 23일 오후 8시
뉴저지장로교회

Silver Missions Fellowship

New Jersey Silver Mission

제15기 개강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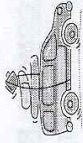
2010년8월23일 오후 8시

뉴저지장로교회 사회: 이영승목사

묵도	--	다 같 이
찬송	----------- 온세상 위하여 ------------	다 같 이
기도	--	박성길장로
특송	--	졸업생일동
말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도완목사
	----------- 눅 2:25-38 -----------	
헌금		다 같 이
헌금기도	--	황교돈장로
파송의 기쁨		한상우선교사
광고	--	이영승목사
찬양	----------- 순례자의노래 ------------	다 같 이
축도	--	정철헌목사

끝

Orientation	--	박노식장로

* 뉴저지15기 실버미션스쿨 개강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육장소를 제공한 뉴저지장로교회와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1부 예배 후 졸업생들은 각기 회장의 인도로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 선교는 1차11월9일-11월15일 과테말라 3개 지역, 2차는 미정입니다.

실버선교사소식

1.NJ 11기 한상우장로는 중국 왕청현 직업 중고등 학교 분교에서 사역하며 여호수와 갈렙선교회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2. 김국홍, 김수자(NJ11기) 부부 선교사는 멕시코 꼬미딴에 위치한 익투스 선교센타의 사역을 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3. 박수경(NJ4기)선교사는 말라위에서 어린이 교육선교 중 입니다.

4. 김현영, 이덕주(NJ7기) 부부선교사는 과테말라에서 동물사역과 대학 강의를 맡아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5. 전상복,전송희선교사(NJ3기)는 3개월간 X국과 연변 과기대 사역후 귀국했습니다.

6. 권강혁(NJ7기)선교사 전 가족은 2010년 4월 터어키 안카라지역으로 파송 되었습니다.

7. 장홍호선교사와 최상현실버선교사는 과테말라 부에나비스타 Vision 선교센타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8. 지난 5월 미얀마로 파송되었던 NY7기 이정숙 선교사는6 월 초 귀국하였으며 10월초순에 다시 현지로 가실 계획입니다.

9. 터어키의 김지연 선교사(NY6기)는 어려움 가운데 이스탄불에 거처를 정하고 가정 전도를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 중이십니다.

10. 엄세웅 선교사는 금년 5월 X국 선교를 마치셨습니다.

11. NY 11기 김승범선교사는 캄보디아로 파송되었습니다. 7월27일

12. 전청수선교사는 과테말라 1차에 이어 10월까지 2차 선교중임

13.이릴리 선교사는 X국 에 안경점을 개업하였습니다

Appendix E.

NJ 실버 제 15 기 교육

기간:2010년 8월23일-11월1일 매주 월요일 교육장소 :뉴저지장로교회

일자	1부 (8:10-9:10)	강사	2부 (9:10-10:00)	강사
8/23	개강예배(주여! 나를)	김도완목사	Orientation/안경사역	박노식/신점호선교사
8/30	선교의 동향	이성일목사	한방사역/사진사역	진광훈/독고휘선교사
9/6	실버들의 영성회복	김용철목사	스패니쉬(1)	김재권장로
9/13	나의 하프 타임을	양춘길목사	북한선교	김호진/박성길선교사
9/20	실버선교의 현지화	김현영선교사	중남미선교	임대기전도사
9/24	선교와 찬양	김귀만목사	7:30pm 라마나욧 기도원 집합	
9/25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	정철헌목사	1:00 pm 하산	
9/27	선교의 글로벌시대	김재성목사	스페니쉬(2)	김재권장로
10/4	가기 전에	윤명호목사	아프리카선교	박수경선교사
10/11	여성선교의 시대	최현림목사	이슬람에서 선교	인터컵선교사
10/18	현지원주민선교전략	김성남선교사	스패니쉬(3)	김재권장로
10/25	한민족디아스포라	이영승목사	선교지에서 진료사역	계인호선교사
11/1	종강예배	양춘길목사	실버동창의시간	윤석래장로

* 단기선교훈련 1차는 11/9-11/15 과테말라 3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2차는 미정입니다.
* 위의 강의, 강사, 선교 일정및목적지, 특수교육등의 일정과 강사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ppendix F.

실버선교훈련 2010 년 9 월 13 일

하프 타임 (Half Time)

서 론 하바드에서 예일로

Half Time 의 중요한 이유

1) 전반전 분석
2) 마무리 / How to finish well?
3) 궁극적인 게임 목표
4) 필요한 전략
5)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성공에서 의미있는 삶으로)

본 론 1. 개인 인생 여정표 □ 사람, 사건, 환경

2. S.H.A.P.E

S □ Spiritual Gifts (영적 은사)

H □ Heart, Passions (열정)

A – Abilities (능력)

P □ Personality (성품)

E □ Experience, "Know-how" (경험)

3. 개인 소명 선언문

4. 후반전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전략

1) Delegate(대리인) □ 일, 가정, 취미생활 / Work smarter, not harder

2) Do what you do best; drop the rest. (내가 잘하는 것 중심, 가지치기)

3) Know when to say “No” □ 거절할줄 아는 것.

4) Set Limits – 한계를 정하고 줄일 것.

5) Appointment with Self –자기 자신과의 약속

6) Work with people you like □ 용기와 격려를 주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7) Set Timetables □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계획표

8) Downsize □ 생활비 줄이기

9) Learn and Practice □ 배우고 훈련하기, 실제적인 경험

Appendix G.

뉴저지 실버교육 9/6/10 김용철 목사

영성의 일반적 이해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영[πνεuμα,]과 본성[nature]이 결합된 용어다.

본성: 성품 또는 성격, 성향 으로 이해.

그러므로영성이란 말은 "영적 본성" 영적 성품으로 이해할수있다.

알아야 할것 은 하나님의 영성과 사람의 영성은 구별 된다 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성은 본질적 영성이며[요4:24]

하나님 자녀의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달적 영성 인 것이다.[고전 2:12]

하나님의영성: 독립적, 절대적 영성.

인간의 영성 :의존적, 상대적 영성.

성경에 영성 이라는 직접 표현은 없으며 형용사[영적 spiritual,πνευματικος]라는 표현이 있다.

고전2:14.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회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닥지도 못하나니 이런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참고:인간이 갖이고 있는 성품은 인성(人性 human nature)여기에는

이성(理性 reason, rationality)과 감성(感性 sens sensibility) 이 있다.

이성은 지성(知性 intelligence)으로도 이해.

많은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이 인성 또는 인격(人格 personality)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며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또는 균형감을 중시한다.

그러나 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성을 지배하고있는 영성이다.

영성 강화를 위한노력

초대교회이후에 신실한 사도들이나 수도사들은 영적성장및 영성 강화를 위해

1.회심체험[experience of con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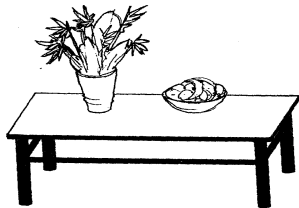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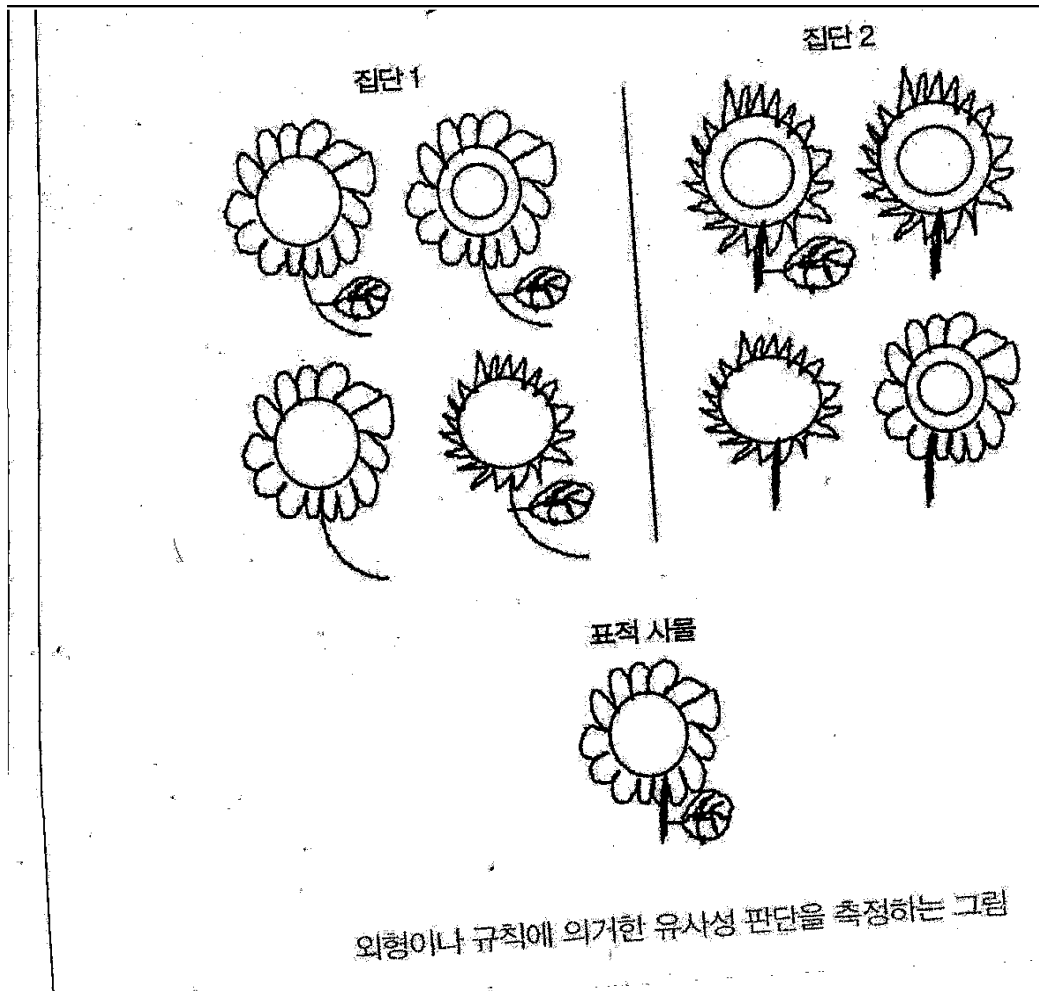
2.정화 와 초연함[purification and detach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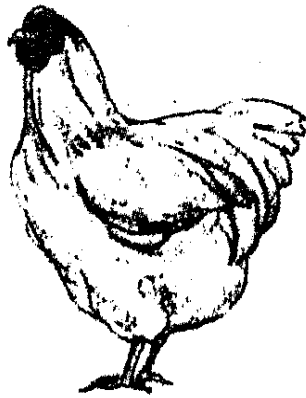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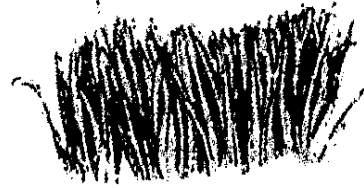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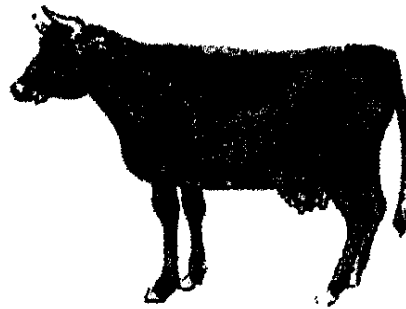
3.영혼의 조명[illumination of the soul]

4.일치의 삶[unity life]

이러한것들을 위한 단계적 노력과 훈련에 힘써왔다.더불어 금욕과 절제,청빈과순종,기독교적 덕목을 몸소 실천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명상에 전념하였다.

성도의 삶은
지속적인 영성교육[훈련] 을 통하여 고상한 영성의 강화를 목적한다.
영성교육[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과같이 온전한 사람이되고 예수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곧 신성의 실현 [deification]신의 성품[벧후1:4] 에 참여하는 것이다.

영성교육
문제점 ;사람들 각자의 지식과 경험이 실체[fact. real]를 보는데 방해받고있다.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그림 3
그림 4

말씀과 영성[word and spirituality]
영성을 유지하고 더욱 깊이있고 풍성하게 유지하기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 해야함.
영성의 은혜는 말씀의 상고와 깨달음과 비례한다.[시1편히4:2]

기도와 영성[prayer and spirituality]
구약의 모세사역은 기도로 일관.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출3:18,34:28]

범주에 의한 분류 대 관계에 의한 분류를 측정하는 항목들의 예

예수님의 사역 .
살전5:16-18 항상기뻐...쉬지말고..범사에.. 그리스도.. 하나님의뜻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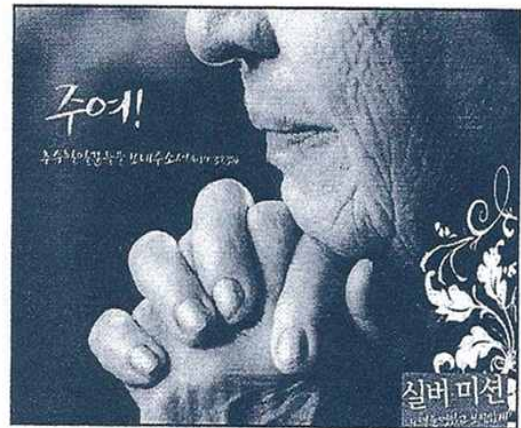
명상과 영성[meditation and spirituality]
기도와 명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피며 자신의기도가 하나님보시기에 합당항가를 성찰해야한다.
이 명상은 심령의 평화[peace]와 정화[purification]을 갖어오며 영혼의 조명과 [illumination]각성[enligtenment]은 또한 명철과 지혜를 가져다 준다.[시49:3]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보다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한다.[시 119:15,23. 145:5]

노동과 영성[labor or practice and spirituality]
크리스챤I의 영성 훈련에서 가장 소홀이 여기는 부분중하나. 특히 사역자 중에서.
노동의 개념에는 이웃을 위한 봉사와 사랑의의 실천이 포함.

교회공동체에서 각직분을 따라 봉사와충성도 노동의 범주에 속함.

고행[penance]도 노동의 범주에 있음.그러나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극기를 위한 영성훈련이란점에서 구별됨.

영성의 궁극적 목적은?
성결의삶 점진적 성화[gradual santification]하여 가는 성도의영적상태를
골2:7. 그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서서 감사함을 넘치게하라.
롬8:19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그 바라는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Appendix H.

실버의 장점과 선교적 중요성

서론/Workshop
1. 고령화 사회와 그 대안
2. 실버사역의 성서적 바탕
3. 새로운 도전의 시기
4. 선교의 새로운 주역
5. 선교와 자아통합
결론/꽃보다 단풍이 더 아름다운 이유

Workshop

- 이름
- 해석 (자신의 이름과 관련한 내용이나 의미)
- 오직 한 가지-나의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유산/전통/가르침은?
- 오직 한 가지-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전달하고 싶지 않은 일은?
- 교회란...?
- 선교란...?

1. 고령화 사회와 그 대안

1.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
2.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3. 노인들의 여가 활동
4. 여가 생활 활용 방법

"고령화 사회" 로 진입한 시대

- 정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ity)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며, "고령 사회"(Aged Society)란 14%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미국/일본 비교

	7%	14%	20%
한국	2000337만(7.1%)	2022752만 (14.3% 예상)	2032
일본	1970	1994	2006
미국	1942	2013	2028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 老人四苦: **빈곤, 병고, 고독, 무위**
  1. 빈곤/경제적 문제
  2. 병고/신체적 문제
  3. 가족관계 및 부양문제
  4. 고독과 무위/사회적 문제

노인들의 여가 활동

- 영화, 연극, 합창 등 문화 활동 단체에 가입해 여가를 즐기는 노인은 **1.0%**,
- 등산·운동모임 등에 가입한 노인은 **3.9%**
-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4.0%**
  (미국 25%, 캐나다 32%, 호주 17%)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조사

여가 생활 장려

△자신에게 맞는 취미와 여가활동 개발것,
△어떤 활동이라도 꾸준히 할 것,
△여가 활동을 일찍부터 배우고 훈련할 것
△여럿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을 것,
△배우자와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을 것,
△혼자 시간 보내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
△젊은 세대와 어울릴 것,
△내 멋을 고수하며 즐길 것,
△사회적 여가에 눈을 돌릴 것,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취미가 있을 때 바로 시작할 것

2. 실버사역의 성서적 바탕

1. 성경이 말하는 장수
2. 평강으로 가득찬 장수
3. 성경이 말하는 노인의 장점
4. 실버세대의 요구와 자원활용
5. 개발되어야 할 Silver Ministries

성경이 말하는 장수

-하나님의 복/경건한 생활의 보상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창15:15, cf. 출20:12)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신4:40, cf.5:33, 11:21)

평강으로 가득찬 장수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3:1-2)

-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명이 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노인의 장점

- 체험 신앙/인내와 연단을 통한 영적 성숙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4:16)

- 영광스러운 존재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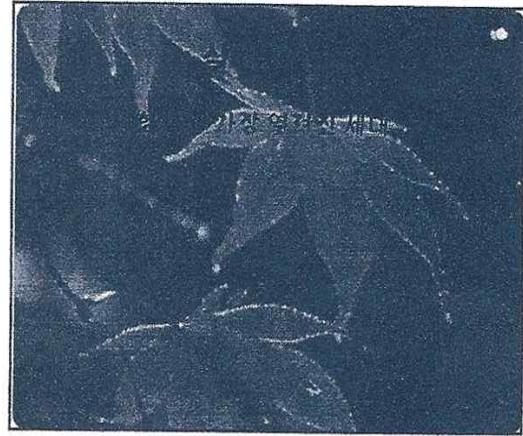
- 존경의 대상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19:32. cf. 신28:50)

- 지혜의 상징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32:7)

-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아브라함, 모세 등)

개발되어야 할 Silver Ministries

- **참여형 프로그램**
  - Silver Mission School
  -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 **대상형 프로그램**
  - 복지대학 (경로 대학, 에버그린사역)
  - 복지회관 (장애, 고령, 독거노인 케어)
  - 단기보호 (중풍, 치매, 임종전)
  - 전문요양 (양로원, 탁노소, 안식관과 함께)
  - 경로 수양회, 경로 잔치, 경로관광 등

3. 새로운 도전의 시기

1. 인생의 제2 황금기를 맞는 세대
2. 나이와 힘의 역학 관계
3. Aging to saging
4. 오직 한 일을 발견하십시오.
5. Workshop 2 – 나의 오직 한일?

인생의 제2 황금기를 맞는 세대

- 인생의 두 시기
  - -사명을 발견하는 시기
  -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
  -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 인생의 두 황금시기
  - -1차 황금시기 (45세~55세)
  - -2차 황금시기 (은퇴후~)

Aging to Saging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4:16-18)

나이와 힘의 역학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4:16)

계절	구분	"힘"	특징	지도력
봄	청소년 Youth	체력	젊음	
여름	청년 Y. Adult	지력/재능	지성	
겨울	노년 Aged	?	?	

(믿음, 기도)로
하나님의 힘

"오직 한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 1:6)
-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3:13-14)
-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6:10)

은발의 선교사들

- 아브람함-75세 -가나안 선교사
- 모세-80세-애굽 선교사
- 갈렙- 85세-미전도종족 정탐선교사
  -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수14:12)

버릇없는 세대의 도전?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 욥32:9-10)

Workshop 2 - 나의 오직 한 일?

목숨건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취해야 할 산지는?

4. 선교의 새로운 주역

1. 실버 선교를 위한 자기 개발
2. 실버 선교의 장점
   -선교적 측면에서의 장점
   -교회적 측면에서의 장점
   -개인적 측면에서의 장점

실버 선교를 위한 자기 개발

-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무엇이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 4:6)
-말씀 공부로 비전을 다듬고 기도로 비전을 날카롭게 세울때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짓을 골라서 한다" (잠29:18)

-비전은 열정을 잉태시키고, 열정이 비전을 현실화시킬 때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1:6)
-차세대를 향한 거룩한 소명때문에 단순히 늙어갈 수 없음으로 분투할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 (시71:18-19)

실버 선교사의 장점(SMF)

선교적 측면
- 깊은 신앙 연륜과 풍부한 성경지식
- 오랜 직업을 통해 얻은 삶의 노하우
- '이민' 경험을 통해 얻은 문화적응능력
- 경제적 안정으로 자비량 선교 가능
- 세계의 공용어-영어구사
- 미국 여권
- 선교사와 현지인들에게 훌륭한 조언자
- 안정적으로 사역에만 전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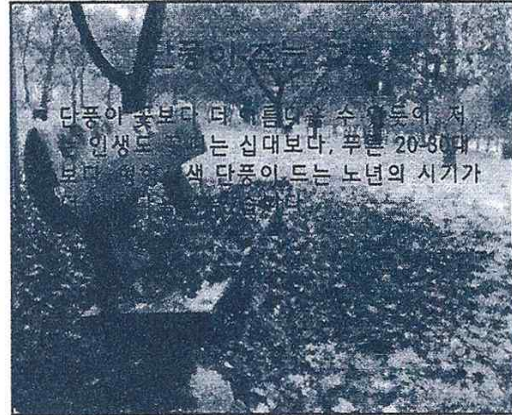
교회적 측면

- 교회내 선교활성화
- 교회내 제직의 신진대사
- 선교지와 교회의 간격을 좁힘 (기도/물질)
- 선교사역 동참을 증대시킴

개인적측면

-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구
- 새로운 삶으로 최고의 죽음을 준비
- 간접선교에서 직접선교로 생의 기쁨만끽
-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힘으로 선교할 수 있는 자신감 확인
- 자녀양육/교육부담에서 해방-사역집중
- 보다 중심 선교기여
- 경험과 지혜로 새로운 환경 적응 능력
- 은퇴후무력감/소외감으로 오는 심리적 노쇠현상 극복

5. 선교와 자아통합

자아통합-개인 스스로가 일생동안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할 때 가지는 긍정적인 느낌 (에릭 에릭슨)

1. 선명한 단풍은 고온다습한 여름과 차고 맑은 가을의 결정품으로, 물려받은 아름다움보다 가꾼 아름다움이 더 멋이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면에 누적된 경건과 인격이 발하는 향기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2. 단풍은 식물이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듯이, 노년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3. 낙엽이 되어 떨어질 덧없는 잎새에 영양분을 쌓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줄기와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듯이, 우리 인생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영원을 위해 보이지 않는 천국에 쌓아야 함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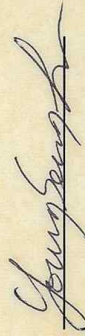
4. 단풍과 이어지는 낙엽을 통해 식물은 1년 동안 누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듯이, 우리 인생도 수십년간 삶의 굴곡을 지나는 동안 인생의 구석구석에 우리도 모르게 누적된 욕심과 탐욕, 정욕의 노폐물들을 버리고 인생을 정화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얻게 된다.
5. 단풍의 양분을 줄기나 뿌리로 이동시키고 겨울눈을 여러겹의 조직으로 감싸 겨울을 나게 하듯이, 우리로 다음 세대의 지도력을 준비시켜야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한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
(시71:8-9)

Appendix I.

실버선교사훈련원수료증

성 명 김용철

위의 사람은 뉴저지실버선교회(NEW JERSEY SILVER MISSIONS FELLOWSHIP)부설 실버선교사

훈련원 제 12기 훈련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증서를 수여 합니다.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후 2009 년 4 월 27 일

뉴저지실버선교회

훈련원장 이 영 승 목사 대표 양 춘 길 목사

Appendix J.

실버 미션 의 영성회복을 위한 연구 설문 조사
아래의 질문들은 미주교포사회에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살펴서
좀더 유용한 목회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교포사회에도 유익한정보로 활용 될 것입니다.

뉴저지 실버 12기   김용철 목사.

질문 :뉴저지 교포들의 신앙 년도 와 연령.(적당한곳에 표시를 하여주십시오.)

1.현재 의 연령 [   ]
1.40-50   2.50-60   3.60-70 4.70-80

2.교회생활 년수[   ]
1.1-10   2.10-20   3.20-30. 4.40-50. 5.50년 이상

3.교회 직분   [   ]
1.평신도   2,집사.   3.권사 4.장로   5.교역자.

4.현재 의 직업 [   ]
1.회사원[고용인]   2.자영업[고용주] 3.전문인   4.무직. 기타 5.공무원.

질문: 은퇴 연령(시기)과 생활.

5. 현재 거주지의 의 생할 만족은 [   ]
1계속 현재의 장소에서 살고 싶다.   2.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이다.
3.은퇴 후 생각 하겠다.   4.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6.생각하시는 은퇴 연령.[   ]
1.55-60   2.60-65   3.65-70   4.70-75 5.건강이 허락하는 한

7.은퇴 후에 누구와 함께 살 계획인가[   ]
1.부부끼리   2. 자녀들과   3.독신으로 4.친구 혹은 친척 과함께

8 원하는 거주 장소는?[ ]
1.한적한 시골 의 개인 주택 2. 은퇴자 들을 위한 은퇴 주택단지
3.도시의 콘도나 아파트 4. 상관없음.

9. 은퇴 후 의 생활 수입원(계획) [ ]
1.은퇴연금 2.Rent income 3.정부보조(S. S. I.). 4.기타 [ ]

질문: 교회교육 과 영성

10. 미주로 이민 하여 정착한 후에 미국 교육 기관 에서의 교육은? [ ]
1.받은 경험이 있다. 2.받은 경험이 없다

11.교회에서 사회교육은 필요 한가?[ ]
(예: 심리학, 경제학, 교육제도, 타민족 문화, 역사.)
1.교회에서 교육 받은 경험이 있다.
2.교회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11.출석하는 교회의 교단과 교리공부는? [ ]
1.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교회의 교단과 교리를 잘알고있다.
2.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교회의 교단 소속이나 교리를 잘 모른다.
3.교회의 교단소속이나 교리를 교육 받은적이 없다.

12.교회 신앙 교육중 제일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1.성경공부[구약과 신약] 2.제자 훈련 3 전도[선교]훈련 4.영성훈련.

13.영성 이 무었인지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가?[ ]
1.경험이 있다. 2.경험이 없다.

14.영성과 영성 훈련은 구별 되는가?[ ]
1.구별 된다 2.구별 안 된다.

15.가장 훌륭한 영성 훈련이 이라고 생각 되는 것은?[ ]
1.기도 2.금식 3.묵상 4.신앙 안에서의 삶 과 전도[선교]

질문: 은퇴 후의 삶.

16.은퇴 후의 하고 싶은 일은 ?[ ]

1.평안하게 쉬고싶다. 2.세상 여행 하고 싶다. 3.교육을 받고싶다.4.선교 하고 싶다.

17.만약 은퇴 후 에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헌신 할 마음이 있는가?[ ]

1.기회가 주어지면 헌신하겠다. 2.나에게 여건이 허락 된다면 헌신하겠다.

3.관심이 없다.

18.은퇴 하게 될 때 나에게 가장 두려움으로 생각 되는 것은 ?[ ]

1.배우자 와의 이별 2.경제적인 문제.

3.할일이 없는것 4.나이로 인한 소외감.

19.은퇴 자[예정] 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며는 무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업교육, 신앙교육, 취미교육, 놀이교육, 등등] 생각나는대로 적어주시기를...

20. 현재 기독교의 본 이 되고 알리고 싶은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천거하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본 설문지는 무기 명 으로 하며

기록된 자료는 본인의 목회 자료로 사용 하게 됩니다.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20011/2/28

BIBLIOGRAPHY

1) 외국서적

Ammerman, Nancy T. *Pillars of Faith.*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Ammerman, Nancy T, and Jackson W. Carrol, and Carl S. Duoley, and William. Mckinney, *Studying Congreg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Bochme, Ron. *21세기 지도자.* 허광일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9.

Boff, Leonardo.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김쾌상 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7.

Bonhoeffer, Dietrich. tran. John W. Doberstein. *Life Together: A Discussion of Christian Fellowship.* New York: Haper Collins, 2000.

Carroll, Jackson W. *권위 있는 목회자.* 오성춘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9.

Clair, Michael S. *Human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of God.* New York: Integration Book, 1994.

Clinbell, Howard J.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Cox, Harvey. 세속의 도시, 김관석 외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Crossan, John Dominic. *Jesus: A Revolutionary Biograph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4.

Dudley, Carl S. *Building Effective Ministry.* San 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1983.

________. *Making The Small Church Effective.*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Erikson, Erik H. *아동기와 사회.* 윤진·김인경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Fowler, James W. *신앙의 발달 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2.

Franklin, M Segler. *예배학원론.* 정진황 역. 서울:요단출판사, 1989.

______. *목회학 개론.* 이창희 역. 서울:요단출판사, 1977.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93.

Goleman, Daniel. *감성지능*. 황태호 역. 서울:비전코리아, 1993.

Goleman, Daniel. and Boyatzis, Richard. and Mckee, Annie. *감성의 리더십.* 장석훈 역. 서울: 청림출판사, 2002.

George, Carl F. *Nin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hip*. Pennsylvania: Kingdom Publishing, 1997.

Haggai, John Edmund. *미래는 진정한 리더를 요구한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Kornfeld, Margaret Z. *Cultivating Wholeness: A Guide to Care and Counseling in Faith Communities.*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1998.

Kű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3.

Lee, Jung Young.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Levinas, Emmanuel. *윤리와 무한- 필립 느모와의 대화*. 양명수 역. 서울: 다산글방, 2000.

________. *Korean Preaching: An Interpret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Maxwell, John C. *Be A People Person.* Colorado: Cook Communications Ministries/ SP Publications, Inc, 1994.

________.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Inc, 1997.

Maxwell, John C. and Dorman, Jim. *Becoming a Person of Influence,* Tennessee: Thomas Nelson, Inc, 1997.

McClusky, *Howard Y. Education, Background prepared for the 1971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ashington D.C: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1971.

Mcguire, Meredith B. *Religion: The Social Context*. Wadsworth Thomson Learning, 2002.

Messer, Donald E. *Contemporary Image of Christian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_______. *A Conspiracy of Goodness: Contemporary Image of Christian Miss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Miller, Calvin. *청지기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위한 열 가지 열쇠*. 최미향 역.

서울: 청우, 2005.

Moltmann, Jűgen. *The Crucified God.* 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1993.

Moltmann, Jűgen. *Theology of Hope*. Trans. by James W. Leitch, 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1993.

Moran, Gabriel. *종교교육발달*.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Niebuhr, Richard H.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_______. *책임적 자아*. 정진홍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Nouwen, Henri J.M. *The Wounded Heale*r. New York: Image Books, 1979.

_______.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Oates, Wayne E. *침묵의 영성*. 신현복・신선명 역. 서울: 아침영성 지도연구원, 2002.

Olsen, Charles M. *Transforming Church Boards into Communities of Spiritual Leaders.* Kansas City: Alban Institute, 1995.

Pattison, Stephen. *Pastoral Care and Liberation The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Raymond Abba, *기독교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삼경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Rainer, T. S. *The Book of Church Growth: History, Theology and Principle.* Tennessee: Broadman, 1983.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생달, 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Ruiz, Lester Edwin J. "Culture, Politics, and the Sense of the Ethical: Challenges for Normative International Relations," in *Principled World Politics: The Challenge of Normative International Relations.* ed. by Lester Edwin J. Ruiz and Paul Wapner. Lanham, Maryland: Row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Stevens, R. Paul. & Collins, Pill.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Tillich, Paul. *신앙의 다이내믹스*. 이병섭역. 서울: 전망사, 1982.

Toffler, Alvin. *예견과 전제*. 이부행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1.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96.

Ward, Graham. *Cities of God.* London, U.K.: Routledge, 2000.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디모데, 2003.

Wesley, John. *A Plain Account of Chistian Perfection.* London: The Epworth Press, 1985.

Whitehead, Alfred N. *과정과 실재.* 오명환 역. 서울: 민음사, 2003.

Yancey, Philip.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2) 한국서적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쉽.* 서울: 금란출판사, 1996.

김규삼. *노인복지론.* 대구: 학문사, 1983.

김남용. *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전략.* 서울: 그리심, 2005.

김영길.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개척과 역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93.

김석년. *패스 브레이킹.*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김중은.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서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2000.

교회성장연구소 편집부.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노언필. *리더와 리더십 트렌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 청람, 2006.

민병갑외 9인. *미국속의 한국인.* 뉴욕: 유림 문화사, 1991.

박기호. *타 문화권 교회 개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5.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박은규. *예배신학.* 서울: 연세대 유니온 학술자료원, 1989.

박종구. *바른 지도자는 누구인가.*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7.

변성환 편. *성경 속 인물에게서 배우는 28가지 성공 리더십.* 서울: 월간조선사, 2005.

백동섭, *새예배학.* 부천:도서출판복음, 1991.

서정운.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서울: 한울, 1992.

안종철. *열린 목회와 예수 공동체.* 서울: 쿰란공동체, 1997.

유수현. *한국교회와 사회사업의 실천"세상에는 참 좋은 교회도 많더라".* 도서출판 기윤실, 1996.

이계준. *현대 선교신학.* 서울: 전망사, 1992.

이상철. *개척교회 1% 성공 스토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_______.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_______. *밀레니엄 목회 리포트.* 서울: 규장문화사, 1999.

이성훈.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성경과 내적치유.* 서울: 두란노서원, 1997.

이장식. *현대 교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이정효. 기독교 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2.

오덕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서울: 규장문화사, 2000.

오성춘. *성령과 목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5.

윤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장현운. *교회성장을 촉진시키는 말씀과 양육.* 서울: 쿰란출판사, 2002.

정용섭. *한국프로테스탄트 교회예배의 갱신.* 신학사상제14집(1976. 9.)

정웅섭.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1994.

정정숙. *기독교교육과정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80.

최운실. *고령화 시대의 후기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서울: 홍성사, 1993.

한영태. *삼위일체와 성결.* 서울: 성광문화사, 1994.

_______.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_______. *그리스도인의 성결.* 서울: 성광문화사, 1995.

한완상.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2.

한 홍.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두란노, 2002.

황청일. *교회성장과 평신도.* 서울: 한남대학교출판부, 2005.

3) 간행물

고환규. "해외 한인 사회속의 교회와 선교" *기독교사상*. 1988년 11월호.

권영규. "노인복지에 대한 성서적 이해." *신앙과 교육*. 2000년 2월호.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2000.

김성철. "NGO 입장에서본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기독교 사회복지*. 1999년 8월호. 부천: 평화사회복지연구소. 1999.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 연구"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서원 1994년 5월호.

전요섭. "발달적 위기로서 노인의 심리 이해와 목회적 돌봄." *복음주의 실천신학 논총* 제4권. 2002.

최성재. "21세기 한국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1999.

4) 사전

류영기 편. *성서사전*.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1960.

박한용 외 5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6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2.

5) 인터넷 웹사이트

U.S. Census Bureau. *Income, B19119.* http://www.census.gov/hhes/www/income/data/statemedian/index.html(accessed, 01. 15. 2011).

Koreadaily News. *미주한인인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29194(accessed, 01. 15. 2011)